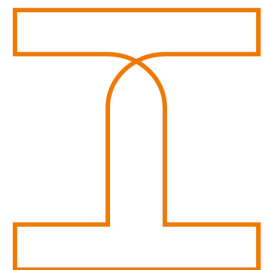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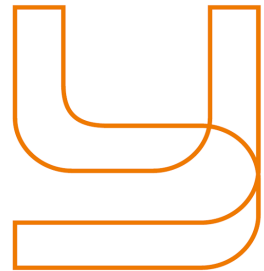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임지연

공동연구원 김한별 한도희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 책임연구원 :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한별(교원대학교·교수)
한도희(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사무총장)
- ▶ 위촉연구원 : 오서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2016년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시점이라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보다는 현장에 전면 실행하는 단계임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 개발이 절실합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운영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체험활동 자원을 통해 자유학기제와 지속가능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핵심요인을 포함하는 실행방안과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확대와 함께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지원하는 연구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학교와 지역사회 체험장 현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체험처와 프로그램들이 확보되었지만, 체험처 프로그램의 질과 발굴 체험처의 지속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유학기 동안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특기적성 소질개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체험처와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전제로 어떤 방식으로 연계·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협업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부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지속적인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되었던 지역사회 체험인프라 확대 및 구축에서, 그 방향과 내용이 자유학기제 전면실행 시점에서는 위한 학교-지역 자유학기제 협업을 위한 좀 더 근원적인 접근과 단기, 중장기적 정책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자유학기제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역할이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의 역할보다는 청소년시설의 자체적이고 일상적인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협업 및 소통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 연구가 지역사회 체험기관,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학교와 공동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정책 실행에 있어서 동력이 되기를 기원하며 보고서 작성에 노력해 주신 연구진과 청소년기관, 지역사회기관, 학교 전문가들과 현장 사례조사, 심층면담과 전문가집단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현장전문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혁

국 문 초 록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지속가능한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체험활동 자원을 자유학기제와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성공적인 핵심요인을 포함하는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확대와 함께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는 청소년시설 및 단체로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의 체험활동을 말하며, 연계운영의 의미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한 학기 약 8회차 이상의 지속가능한 연계운영으로서 협업을 말한다.

본 연구의 특징은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입장에서 학교 자유학기제와 지속적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한 점이며, 단위 학교와 단위 지역시설 차원에서 실무자의 실행을 지원하는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현장사례조사, 실증적 자료분석, 심층면담,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워크숍을 활용하였다. 첫째, 현장 사례조사로서 지역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과정과 효과성을 분석결과, 문제점으로는 진로직업체험 영역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범위 제한, 공모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활용 및 사업실행시기 등의 제약, 청소년시설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른 프로그램 수준의 차이 및 참여자 모집에 대한 부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교사의 준비도와 관심부족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2014-2015)의 지역연계 실증적 자료분석 결과, 지역시설 활용비율은 평균 74%이며, 이중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비율은 평균 54%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시·군·구 수련관 설치비율(82.4%), 읍·면·동 문화의집 설치비율(6.7%)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심층면담 결과, 핵심요인을 도출하여 협업사항으로서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하였으며 기획단계의 사전실무협의, 실행실무협의, 사전교육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외부강사 위탁을 줄이고 직접 중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web 설문조사 결과,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경험자(청소년지도사, 교사, 장학사) 85명은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운영이 중요하다(99%)고 응답했다. 연계 실행방안 중요도 우선순위(1-5순위형 다중응답분석) 분석결과, 사전실무협의(1

순위), 연계운영방식 준비(2순위), 학생수요조사 및 프로그램개발(3순위),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 준비(4순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지역연계 운영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교사, 장학사를 조사대상으로, 심층면담(8명)과 전문가집단 설문조사(85명)를 실시하여 연계 운영방안 개발과 핵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정책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은 설문조사 1-5순위 다중응답분석(중요도 우선순위) 결과에서 도출된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정책과제별로 문제현상, 문제원인, 추진방안, 추진 Tip, 법·예산·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개 영역별 9개의 정책과제로는 기관별 자체자원분석 및 사전실무협의, 자유학기 프로그램 실행실무협의, 담당자 사전교육, 학생 수요에 기반한 자율참여 증진, 정부공모사업의 확대, 공공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및 교육역량 강화, 교사의 교육과정 개선과 지역사회 이해 및 관계형성 역량강화,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의 인력배치 인원증대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위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1.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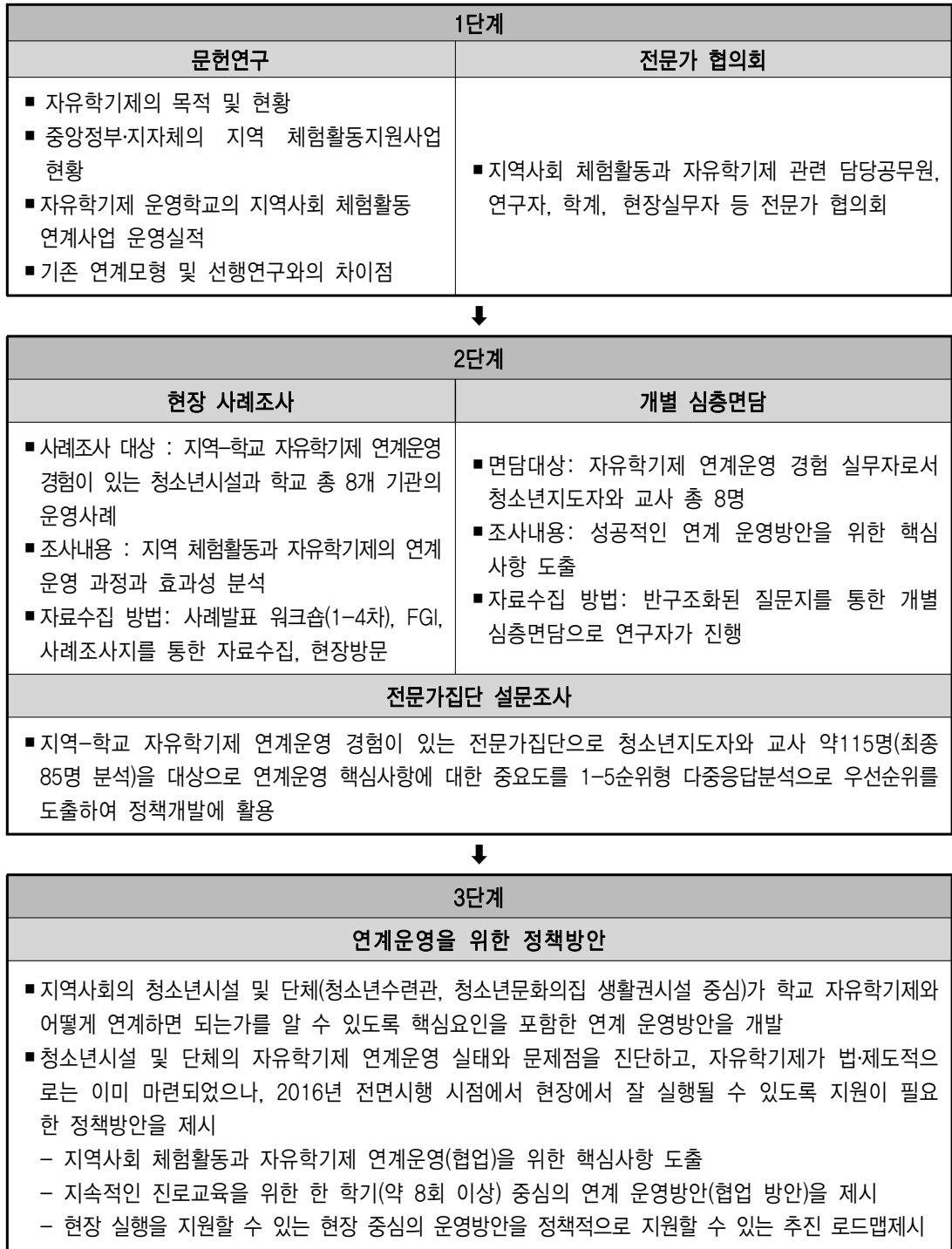
-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법과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2016년 전면시행 시점에서 현장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를 연계운영하는 협업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체험활동 자원을 통해 자유학기제와 지속가능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핵심요인을 포함하는 협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확대와 함께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물은 학교 뿐 아니라 기타 지역사회 체험기관에서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는 청소년시설 및 단체로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의 체험활동을 말하며, 연계운영의 의미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한 학기 약 8회 이상의 지속가능한 연계운영으로서 협업을 말한다. 자유학기제(교육부, 2013.5.29.)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현황/관련 법률 분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사업,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운영 사례,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 **전문가 자문** : 연구방향 설정, 조사지 개발, 자료 분석 관련 자문,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 **현장 사례조사** : 지역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시설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의 연계운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6개)과 학교(2개)이며, 연계 운영과정과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지역연계 실증적 자료 분석**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2014-2015년에 제출한 자유학기제 운영결과보고서와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의 지역연계 실증적 자료로 160개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 **심층면담** :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개발을 위하여 성공적인 현장 실행을 위한 핵심사항과 어떻게 실행하였는가에 대한 개별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연계운영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자(6명)와 교사(3명)이다.
-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및 장학사 총 115명을 대상으로 Web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지도사(42명)와 교사(39명) 및 장학사(10명) 총91명(참여율 79%)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계 운영 핵심사항에 대한 중요도를 1-5 순위형 다중응답분석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 **전문가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 워크숍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현장전문가와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절차

3. 주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1) 지역사회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및 연계모형에 대한 문헌분석

- 첫째,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현황,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관련 법률 및 정부계획,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 현황,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 사업, 셋째,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운영 유형 및 우수 연계 사례, 넷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2) 현장 사례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 본 사례조사를 위하여 연계운영 방식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활용한 운영방식, 공모사업을 활용한 운영방식, 자체사업 운영방식, 학교 입장에서의 운영방식으로 구분하여서 각 유형별로 2개씩의 사례를 선정하여 총 8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4가지 중점적인 운영방식 접근에 따른 연계 운영과정 분석(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의 배경, 지역사회와의 연계과정,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성 분석(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운영방식 비교**

경험사례 운영방식	주요특징	사업실행구조	문제점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용방식	진로직업체험활동에 특화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기관중심의 사업구조 진로직업체험이라는 주제와 학교여건의 불일치로 학교참여 제한(특강, 제한적 준비교육 수준 담당)	진로직업체험 영역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범위의 제한
공모사업을 통한 운영방식	공모사업 선정주제에 관심을 갖는 학교 참여로 프로그램 운영	사업실행의 전반에 걸친 기관의 주도성 프로그램 운영 위탁자로서 학교	공모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활용, 사업실행시기 등의 제약
자체사업을 통한 운영방식	기관의 사명, 성격, 정체성에 부합하는 주제적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실행의 전반에 걸친 기관의 주도성 기관의 프로그램 홍보, 안내자로서 학교	시설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른 프로그램 수준의 차이 참여자 모집에 대한 부담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방식	학교의 부족한 인적자원,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기관과의 협력 운영	학교차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적합한 기관 프로그램 선정 학교의 주도적 역할 강조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교사의 준비도, 관심 부족

○ **현장 사례조사의 연계 운영방식과 효과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첫째, 진로직업체험으로 오해되는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복원하는 것이다. 둘째, 꿈끼의 탐색을 위하여 지나친 지역성 강조로 인한 교육경험의 불평등 가능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협치 성격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넷째, 자유학기제 사업을 위한 예산배분, 집행,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섯째, 학교 혁신과 교사역량 개발을 통하여 학교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진로체험은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역량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체험을 통한 경험에서 비롯한 진로학습과 진로발달은 자유학기제 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 학교와 교사가 교수학습 측면에서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에 기여하며, 이를 실현해갈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계 실증적 자료분석 및 시사점

○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활용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계실적 내용에 대한 정성적 자료 분석과 통계적인 정량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구분	분석자료	분석자료수
20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교의 80개의 운영결과보고서	총 160개 보고서
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교의 45개의 운영결과보고서와 35개의 운영계획서 (2016년 6월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에 한정)	

○ **분석결과 및 시사점**

첫째,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일회성 활용 관점에서 지속적 협업 관점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014-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결과 80개 연구학교의 지역시설 활용 비율은 평균 74%이며, 지역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비율은 평균 54%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2 2014-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비율¹⁾

구분	연구학교	지역시설 연계경험 연구학교	연구학교의 지역활용비율	학교연계 지역시설	학교연계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비율
2015년 ²⁾	80개교	60개교	75%	74개 시설	42개 시설	57%
2014년 ³⁾	80개교	57개교	71%	77개 시설	40개 시설	52%
평균	80개교	59개교	74%	76개 시설	41개 시설	54%

2014-2015년에 지속적 학교-청소년수련시설 연계운영 현황을 보면, 20개의 학교가 22개의 청소년수련시설과 동일 연계를 함으로써 학교도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위한 사전실무협의 등 운영방안 제시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3 2014-2015 학교-청소년수련시설 지속적 연계운영 비율⁴⁾

구분	지역시설 연계경험 학교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 과 연계경험 학교	동일한 청소년수련시설 과 연계활용 학교비율	학교연계 청소년수련 시설	동일한 학교와 연계경험 청소년수련시설	동일한 학교와 연계활용 수련시설 비율
2014-2015년	평균 59개교	20개교	34%	평균 41개	22개 수련시설	54%

둘째,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자유학기 연구학교의 지역연계시설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지역연계한 시설 중 57%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나타났다.

1) 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와 20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한 것임.
 2) 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함.
 3) 20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함.
 4) 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와 20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한 것임.

며, 2014년에는 52%로 과반수이상은 청소년수련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자유학기제 등 학생 지역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을 확대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국 중학교가 3,173개이고 읍·면·동이 3,488개임으로 읍·면·동마다 문화의집이 활성화되면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2014).

표 4 초·중·고 학생수/ 학교수/ 교육지원청수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비율

구분	산출근거		단위학교당 청소년(수련)시설 수(%)
1	중학교수/ 청소년(수련)시설수	3,173/ 787	학교 4.0개 당 1개 시설
2	초·중·고 교육지원청수/청소년(수련)시설수	179/ 787	1개 교육지원청 당 4.4개 시설
3	초·중·고 학생수/ 청소년(수련)시설수	6,285,792/ 787	학생 7,987명 당 1개 시설
4	초·중·고 학교수/ 청소년(수련)시설수	11,446/ 787	학교 14.5개 당 1개 시설

참고: 교육통계서비스(2014.11.12). 유초중등 학교급별 개황.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4. 11. 12에 인출.
여성가족부(2015a). 청소년백서.를 임지연(2015). p.56에서 재인용하여 수정·보완함.

표 5 행정구역별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설치 비율

구분	시·군·구	수련관	시·군·구 수련관 설치비율	읍·면·동	문화의집	읍·면·동 문화의집 설치비율
계	227	187	82.4%	3488	233	6.68%

참고: 여성가족부(2015a), 안전행정부(2013)을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2014). P.158.에서 재인용하여 수정·보완함.

전체 17개 시도에서 전국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 20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운영되는 130개소 중에서 64개소(수련시설 56개소, 상담복지센터 8개소)로 49%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시설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d).

표 6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위탁운영하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비율

2015년	자유학기제·진로 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 센터	위탁운영비율	위탁운영	청소년수련시설에 서 위탁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비율
계	203개소	130개소	64%	130개소	64개소	49%

자료: 여성가족부(2016d).청소년(수련)시설과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내부자료를 재정리함.

- 이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위한 사전실무협의 등 운영방안 제시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운영방안 절차와 틀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면담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 조사목적은 단위학교와 단위 청소년시설 차원에서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와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핵심요인과 실행방안을 포함한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단위 학교와 단위 시설차원에서의 연계 운영 실무를 지원하고자 한다.
-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성공적인 연계를 위한 핵심요인, 절차(준비, 실행, 평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단위 학교와 단위 청소년시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하였다. 2016년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이 되는 시기로서 자유학기 활동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초점으로 하여 기획, 실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면담결과 기획단계의 실행방안이 제일 중요하며, 그다음 평가와 실행단계 순으로 중요성이 나타났다.
- **연계 운영방안 개발**: 면담조사 분석결과로 연계 운영방안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여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연계운영 방안의 특징은 기획단계의 자체자원분석, 사전실무협의, 실행실무협의, 사전교육 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초점을 두어, 단위 학교와 단위 시설에서 실무담당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핵심적인 추진사항을 제시하고 누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를 제시한 점이다. <※개발된 연계 운영방안은 정책방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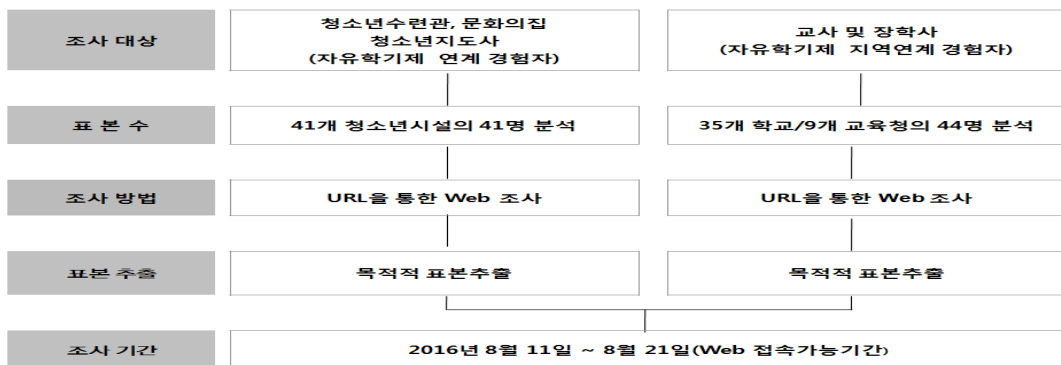
○ 자유학기제가 청소년(수련)시설에 주는 시사점

자유학기 활동 지역 연계운영에서 성공의 핵심은 이를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이다. 이는 본 면담조사 결과 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청소년지도사와 교사들이 강조한 내용이 사전실무협의 와 프로그램, 강사 문제 등 모두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역 교육력을 향상하느냐가 가장 근원적인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의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을 보면,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않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요프로그램이나 반 이상의 활동들을 외부강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진흥법 (2016)의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제한이라는 조항과 수련활동인증제에서도 외부강사 위탁운영에 대한 제약이 있듯이, 자유학기제 역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중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수련관 최소 인력배치 기준이 500명당 1명이라는 최소 인력배치 기준(청소년활동진흥법, 2016) 등의 상충되는 법제도적 기준을 개정하고 청소년지도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외부강사 위탁을 줄이고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5)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시사점

○ 조사목적은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정책과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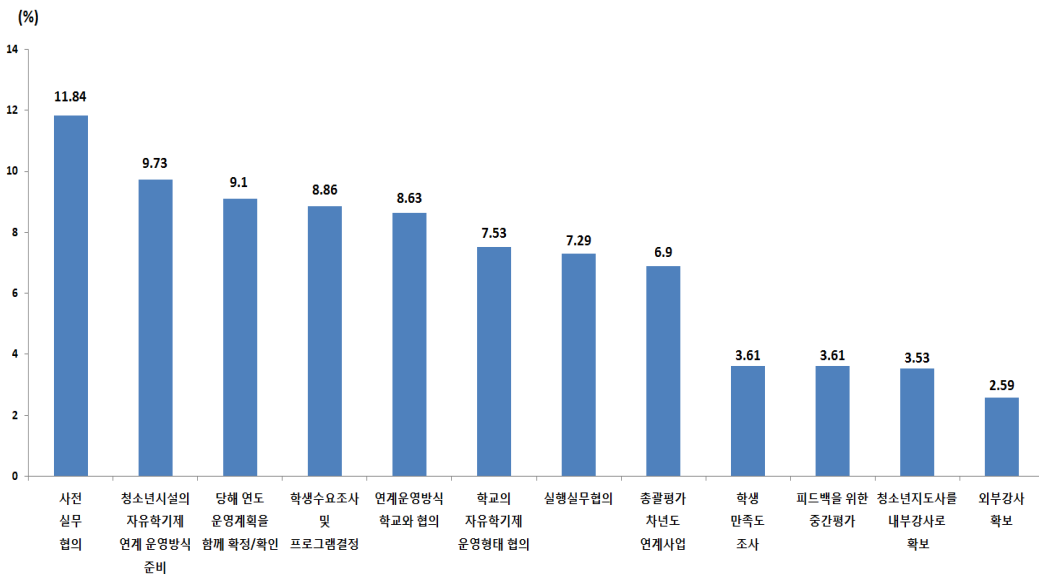


【그림 2】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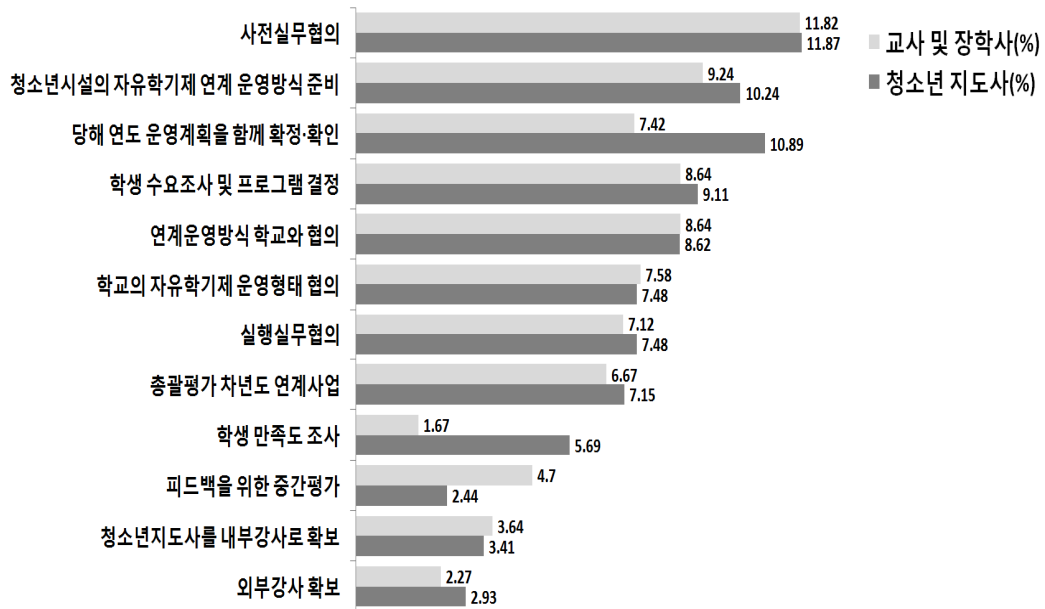
○ 분석대상은 91명 응답자 중에서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주제선택, 동아리, 진로탐색, 예술체육활동)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5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지도사 41명, 교사 35명, 교육청 장학사 9명으로서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종사자(청소년지도사) 41명과 학교와 교육청 종사자(교사-장학사) 44명이다. 현재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중요하더라는 응답이 약 99%(매우중요하다 69.4%, 중요하다 2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을 중요하게 실행해야한다는 의식은 이미 당연하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집단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 중요도 우선순위 비교

연계 실행방안(23문항) 중에서 전체응답자의 1-12순위를 살펴보면, 상호 사전실무협의, 연계운영방식 준비, 학생 수요 조사 및 프로그램,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 준비,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시설과 자유학기제 연계운영은 일회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계를 인식하면서 상호 협업과정에서 필요한 사전기획단계의 사항들과 프로그램과 청소년지도사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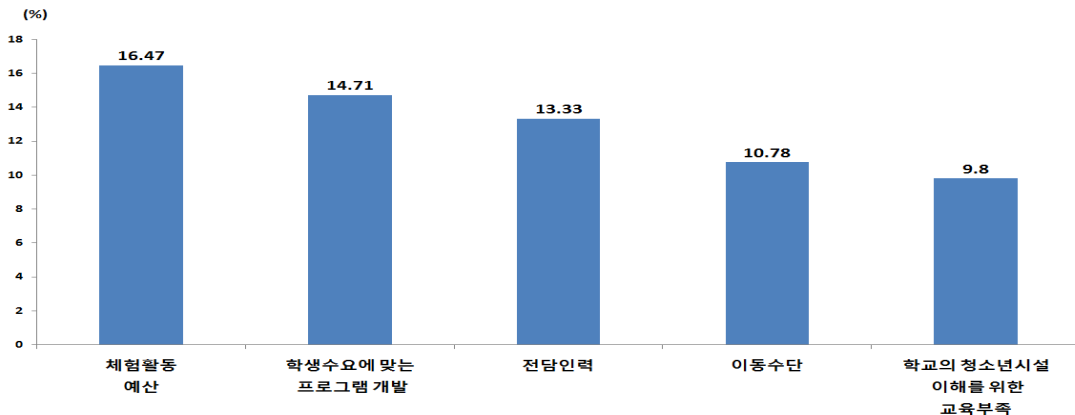
【그림 3】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 방안 우선순위(1-5순위형 다중응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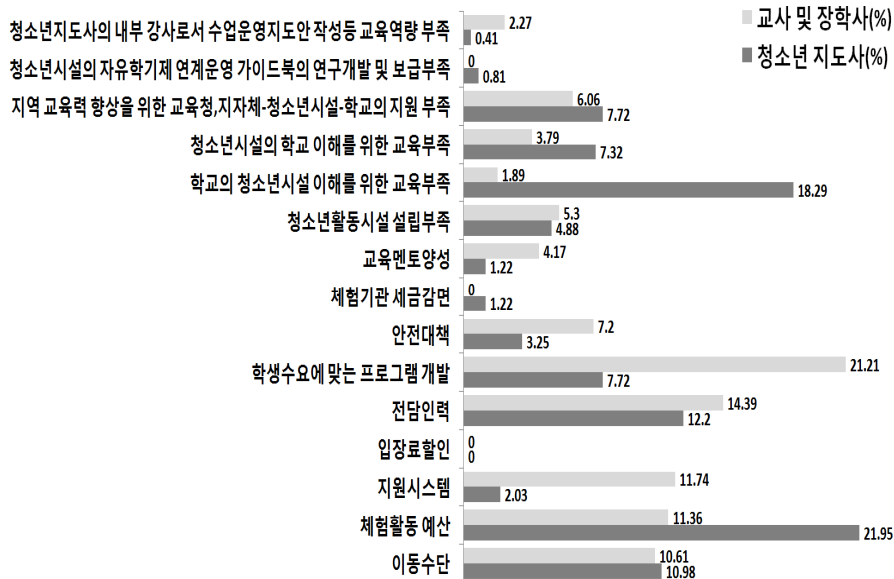
【그림 4】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 방안 우선순위 차이

○ 집단별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비교

둘째, 연계가 어려운 이유 15문항 중에서 1-8순위까지의 공통적인 요구로는 체험활동 예산,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전담인력, 이동수단, 지역 교육력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이상의 공통적인 요구를 포함하면 지원시스템,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청소년 시설의 학교이해를 위한 교육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림 5】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이 어려운 이유(1-3순위형 다중응답분석)



【그림 6】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이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차이(전체문항)

○ 시사점 :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지원 강조

2016년의 조사결과와 특징은 실행에 필요한 체험활동 예산 지원, 그리고 좀 더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지원으로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지역교육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점이다. 물론 이동수단이나 전담인력, 예산 등 여전히 정책지원이 현장에 연결되도록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의 요구도 여전하지만, 2014년에 비해서 2016년 전면실행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활동 예산 뿐 아니라 근원적인 사항에 대한 현장의 요구 순위가 높은 것은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정부도 단기적 지원뿐아니라 중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력과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교육역량의 기회와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지원해야할 때이다. 학교내에서만, 교사들만으로는 자유학기 활동 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지속가능한 진로교육을 통한 성과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학기제에서 지역 체험활동이라는 용어를 우리 동네지역으로 한정하거나 직업체험으로만 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타지역을 얼마든지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꿈끼를 키우는 활동으로 확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청-구청의 안내 및 정보지원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정부에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자유학기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꿈길, 교육기부매칭사이트, 크레

존를 통합하여 구축(서우석 외, 2014)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단위 학교나 단위 청소년시설에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정책방안 : 지역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협업

1) 연계운영으로서 협업방안 개요 : 절차 및 핵심사항

이 연구의 결론은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운영을 위한 일선 기관들의 실무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연계 운영으로서 협업방안 개발과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다.

본 연구의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로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한 체험활동을 말하며, 연계운영의 의미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한 학기 약 8 회 이상의 지속가능한 연계운영으로서 협업을 말한다. 이를 학교나 지역사회 체험기관에서 시사점을 가지고 현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계운영으로서 협업방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계 운영방안은 3단계별로 14개의 핵심요인과 29개의 실행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는 기획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서 절차상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러나 단위 청소년시설이나 단위 학교에서 활용할 때는 기관의 자원과 여건에 따라 각 단계별로 핵심요인과 실행방안을 순서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비슷한 내용의 핵심요인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

29개의 실행방안은 협업 사항임으로 학교나 청소년시설의 업무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협업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모두 제시한 것이다. 이는 협업에 필요한 추진사항들로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호 이해하고 확인해야하는 사항도 포함한 내용이며,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에 맞게 순서대로 진행하거나 몇가지 항목을 함께 진행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등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단계	절차 및 핵심요인	협업 사항
기획	1. 자체 자원분석	1) 청소년시설과 학교의 자체 자원분석(예산, 인력, 기관장 의지)을 실시한다.
		2) 청소년시설에서 학교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을 준비한다(무료, 유료, 한 학기, 일회성, 기간, 강사 등)
		3) 학교에서 지역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을 준비한다(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예산, 한 학기, 일회성 등)
	2. 사전실무협의	4) 청소년시설의 기존 프로그램 내용과 연계 운영방식에 대한 핵심 논의사항을 학교와 협의한다.
		5) 학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프로그램, 예산 등 핵심 논의사항을 협의한다.
		6) 청소년시설과 학교가 사전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상호 사업계획에 반영한다(예시: 전년도 11월 사전실무협의, 2월 사업확정 등)
	3. 실행실무협의	7)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실행실무협의를 통해 당해 연도 자유학기활동 내용 및 세부 진행일정을 결정한다.
		8) 교사와 청소년시설 간 역할분담을 위한 실행체크리스트를 통해 역할분담을 논의한다.
	4. 학교의 학생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결정	9) 학생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결정 내용을 파악한다(약3월경 실시)
	5. 연계운영계획 확정 및 확인	10)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자유학기 연계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한다.
	6. 담당자 사전교육	11) 학교-지역 상호 이해교육(학교/청소년시설의 행정과 프로그램 특성 등)을 실시한다.
		12) 기관 별로 학교-지역 협업을 위한 실무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활용하여 실무역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7. 강사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도안 작성	13)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한 외부강사를 확보한다.
		14)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강사교육을 실시한다.
		15)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가 작성한 수업운영지도안 개요를 확인한다.
		16)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에게 역량강화 기회를 주어 내부강사로 확보한다.
		17)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한다.

단계	절차 및 핵심요인	협업 사항
실행 단계	8. 자유학기 활동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18) 학교에서 개최하는 자유학기제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를 청소년시설에서도 참여한다.
	9. 학교의 학생 프로그램 배정	19) 학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별 학생 배정 내용을 청소년시설에서 파악한다.
	10. 지역연계 자유학기 활동 운영 및 관리	20) 시설에서 내·외부 강사를 관리한다.
		21) 시설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관리한다.
		22) 시설에서 학습 교보재를 관리한다.
23) 참가 학생을 관리한다(출석체크, 안전지도 등).		
11.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	24) 진행기록(자료집 제작 등에 활용)을 관리한다.	
	25)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평가 단계	12. 운영성과관리: 전시(발표) 및 자료집 제작	26)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13. 자유학기 활동기록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27) 진행 기록 관리를 통해서 전시, 발표, 자료집 제작 등 결과물을 산출한다.
	14.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 협의	28)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활동기록 및 과정평가, 사업 결과보고서를 위한 활동기록을 한다. (학생 스스로 기록 및 지도자 관찰기록, 과정평가 방법 등)
		29) 총괄평가 및 향후 연계방안 모색을 위하여 차년도 연계사업을 협의한다.

2) 연계운영으로서 협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1)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 협력체계 구축

○ 문제현상

첫째, 기존의 사전협력체계 구축이 교육청 차원이나 폭넓은 협력기관 차원으로 진행되어 현장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회의참석은 하지만 실질적 성과와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일회성 활용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진로교육을 위해서 협업 관점에서의 인식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실증적으로 2014-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 160개를 분석한 결과, 학교의 지역시설활용 비율은 평균 74%이며, 지역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비율은 평균 54%로 과반수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자체에서 자유학기제 등 학생 지역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확대·설치비용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 2014-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설 중 54%가 청소년수련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학교의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에 대한 지자체의 설치비용은 저조하다.

○ 문제원인

기관별 자체자원분석 및 사전실무협의를 실효성 있게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연계운영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지원이 없고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상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지도사가 연계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체험활동예산(1순위),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2순위), 청소년시설의 학교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7순위)로 나타났다. 연계 운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설명회, 연수 등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대책마련 및 추진방안

[정책영역1]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 협력체계 구축 : 사전에 자유학기 활동 연계운영을 준비하는 현장 기관별 사전실무협의를 지원	
추진 방안	<p>과제1) 기관별 자체자원분석 및 사전실무협의를 지원</p> <p>(1)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주위의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정보로 제공하면서 사전실무협의를 권고사항으로 하며 이를 공문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p> <p>(2) 학교-지역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실무협의를 위한 연수를 개최한다. 협의할 구체적인 실무 안건을 가진 현장 차원의 실무협의방안을 안내하고 제공한다.</p> <p>(3) 사전실무협의를 실행하여 반영한 실적을 학교평가 지표/청소년시설 평가지표에 제시한다.</p> <p>(4) 현장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실무담당자의 만남으로 회의비, 다과비 식사비, 교통비, 사전 실무협의를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p> <p>(5) 진로교육법의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 등 관련 조항에 단위학교 차원의 사전실무협의를 촉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를 만든다.</p> <p>(6)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설평가 지표에서 기관 차원에서 주최하는 사전실무협의 개최의 반영실적을 평가지표로 제공한다.</p>
	<p>과제2) 자유학기 프로그램 실행실무협의 지원</p> <p>(1) 단위 학교와 단위 시설 차원의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설 등의 이해를 위한 교사 교육을 실시한다.</p>

	<p>(2) 교사와 청소년시설 간의 자유학기 활동 연계를 위한 상호 실행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개발하여 배포한다.</p> <p>(3)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자유학기 연계 당시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한다.</p>
	<p>과제3) 담당자 사전교육 지원</p> <p>(1) 학교-지역 상호 이해교육(학교/청소년시설의 행정과 프로그램 특성 등)을 실시한다.</p> <p>(2) 기관 자체에서 학교-지역 연계운영 실무체크리스트양식 등을 활용하여 실무역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p> <p>(3) 자유학기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활동기록 및 과정평가 방법을 교육한다.</p> <p>(4)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활용방안을 교육한다.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결과를 공유한다.</p> <p>(5) 향후 총괄평가 내용 및 차년도 연계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한다.</p> <p>(6)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가이드북(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한다.</p>

○ 추진 활용 Tip

표 8 < 예시 > 청소년시설-학교 자유학기제 협업을 위한 실행체크리스트 양식

작성날짜 :			
담당 청소년지도자 :		담당 교사 :	
항 목	세 부 항 목	실시여부 (O, X)	점검자 의견
1. 자체 자원분석	1) 청소년시설과 학교의 자체 자원분석(예산, 인력, 기관장 의지)을 실시한다.		
	2) 청소년시설에서 학교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을 준비한다(무료, 유료, 한 학기, 일회성, 기간, 강사 등)		
	3) 학교에서 지역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을 준비한다(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예산, 한 학기, 일회성 등)		
2. 사전실무협의	4) 청소년시설의 기존 프로그램 내용과 연계 운영방식에 대한 핵심 논의사항을 학교와 협의한다.		
	5) 학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프로그램, 예산 등 핵심 논의사항을 협의한다.		
	6) 청소년시설과 학교가 사전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상호 사업계획에 반영한다(예시: 전년도 11월 사전실무협의, 2월 사업확정 등)		
- 중 략 -			
14. 총괄평가	29) 총괄평가 및 향후 연계방안 모색을 위하여 차년도 연계사업을 협의한다.		

○ 법·예산·추진체계 개선방안

표 9 학교-시설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추진 체계	현황 및 문제점(원인)	문제점 원인 해결 및 지원사항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자유학기제 협의체 운영 관련 법제도적 근거를 살펴보면, 진로교육법(2015)에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진로체험 지원, 진로체험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청소년기본법(2016)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함. ③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에 학생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해 교육부, 지자체,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할수있음.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함. 해당 지역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진로교육법(2015)에 이미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실무협약이 아니라, 광범위한 구성원들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한 협의체로서 실질적인 협의내용을 운영하는 현장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②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운동을 위해서는 학교-시설 사전실무협약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공문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③ 협의할 구체적인 실무 안건을 가진 현장 차원의 실무협의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함. 내용없이 참가하는 명목상 협의체보다는 성과를 가져오는 현장의 사전실무협약의 중요성이 대두됨.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진로교육법(2015)에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이는 운영예산 근거가 됨.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이는 운영예산 근거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위 학교와 청소년시설 실무담당자의 만남으로 인한 회의비, 다과비 식사비, 교통비 등 사전실무협약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함. ② 진로교육법(2015)의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 등 관련 조항에 단위학교 차원의 사전실무협약을 촉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를 만들.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청소년기본법(2016)에 국가 및 지자체의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②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에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 구축. ③ 지자체 자치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의 교육행정협의회, 교육발전위원회 등 설치운영이 명시되어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주위의 청소년시설 기능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전실무협약을 권고사항으로 하는 공문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함 ②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설평가 지표에서 기관 차원에서 주최하는 사전실무협약 개최 반영실적을 평가지표로 제시하여 형식적인 협의 개최를 지양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지원함.

(2) 학생 수요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제공

○ 문제현상

첫째,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의 영역을 진로체험으로 한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학생 수요조사를 1년 전에 실시하여 충분히 홍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공공청소년시관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명목의 사업비 지원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이동수단이 불편하여 학생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자유학기제 사업을 위한 예산배분, 집행, 관리 문제점이 있다.

○ 문제원인

첫째, 공공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활동 사업이 활성화되지 어려운 이유는 운영예산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선호하는 체험일정이 시험기간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 수요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의 공고 및 확정, 운영, 평가보고 행정절차 및 시기와 주제가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시기 및 활동주제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대책마련 및 추진방안

[정책영역 2] 학생수요에 기반한 자율참여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제공

: 기관별로 1년 전에 준비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에 기반하여 자율참여를 촉진하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추진 방안

과제1) 사전에 준비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에 기반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자율참여 증진

(1년 전에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를 실시하여 학생 자율참여를 촉진하는 지원방안/ 학생 자율참여 촉진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실시 지원방안)

(1) 1년 전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하도록 지원한다.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내용을 청소년시설에서 파악한다(3월경 실시)

(2)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지역별로 학생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배포하여 공유한다. 지도사와 교사 관련자들의 설문지문항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예산을 확보한다.)

(3) 개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간에 몰려있는 체험일정을 분산하여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4) 대규모(학년 단위)에서 소규모(학급별, 소모임 단위)로 실시할 수 있게 지원한다.

	<p>(5)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수단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학년단위는 이동상의 어려움을 동반하며, 다양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전세버스를 활용하거나, 청소년수련관의 버스운영지원, 시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체험지원 버스운영 등이 요구된다.</p> <p>(6)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단기부터 중장기 “프로그램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다.</p>
	<p>과제2)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정부 공모사업의 확대</p> <p>(1)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주제와 공고시기 등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사업에 맞게 추진한다. 정부 공모사업은 주제별로 영역이 정해져있어 한계가 있는데, 자유학기제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을 하면 특정한 주제에 국한 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p> <p>(2)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공모사업의 공고와 확정시기, 예산지원 시기를 사업운영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한다(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공모사업의 공고와 확정 등 행정절차를 연말로 조정하여 추진한다. 공모사업을 현행 2월에 공고가 나서 3월에 확정되는 행정절차를 수정하여, 11월에 공고가 나서 12월에 확정해주어야 차년도 자유학기 연계운영을 추진할 수 있다).</p>
	<p>과제3) 공공 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명목의 사업비 지원</p> <p>(1) 자유학기제 연계운영을 하는 공공 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명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정책적으로 자유학기 연계운영을 명시한 만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 연계운영 사업비를 지원한다.</p>

○ 추진 활용 Tip

표 10 <예시> 청소년(수련)시설⁵⁾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방식

구분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안)
참여대상	• 한 학급, 2-3학급, 한 학년, 5-10명, 인원수에 구애 받지 않음.
활동기간 (진행횟수)	• 자유학기 한 학기(13차시부터 16차시), 일일체험, 맛보기체험, 4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함
프로그램	• 다양한 프로그램(진로체험, 디자인, 뮤지컬, 목공, 도예, 난타, 바리스타 등)
활동장소	• 교실, 수련관, 학교, 지역 체험처, 야외 등
사업과 예산확보	•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기관이라 1년 전에 연간 사업계획 운영을 세울 때 반영이 되어야 자유학기 프로그램 연계사업 일정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갑자기 문의하면 1회성 프로그램이나 상시 프로그램에 소규모 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학교에서 접근방식	• 학교 근처에 위치한 수련관과 문화의집에 문의하여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지속적 프로그램은 1년 전에 협의 필요)
자유학기 운영방식	•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므로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인원과 참여대상 등 자유학기 운영방식이 확정될 수 있음

5) 자유학기 연계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의미함.

구분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안)
청소년수련시설 특성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시설, 학교, 학생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협의 및 선택
지속적인 자유학기 연계과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자유학기 한 학기 이후 연계과정으로 2-3학년 자율동아리활동 등을 계속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능 자유학기 사후 연계과정 대상은 2-3학년(자율동아리활동 등 계속 지원)

출처: 정영근 외 (2015).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방안. p.253.

○ 법·예산·추진체계 개선방안

표 11 학생수요에 기반한 자율참여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추진 체계	현황 및 문제점(원인)	문제점 원인 해결 및 지원사항
법·제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진로교육법(2015)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야함. ② 초·중등학교 교육과정(2015)에 교육청 수준의 지원으로 첫째,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둘째,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할수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에서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지역 청소년활동요구를 정기적 조사하고 지역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함/ 지자체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에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조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 교육과 홍보 사업수행을 명시함. ④ 청소년기본법 시행령(2015)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계획에 수요조사,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명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 청소년이라는 같은 대상을 두고 지역별로 각기 목적에 맞는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학교의 교과교육과정 외에도 자유학기 활동 등은 학생의 요구가 중요하므로 학교는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함. ② 첫째,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별 청소년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활동시설 및 단체에 배포함. 둘째, 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학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같은 지역의 같은 대상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조사 시기에 차이를 둔다면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음.

추진 체계	현황 및 문제점(원인)	문제점 원인 해결 및 지원사항
예산	<p>①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지원예산이 지자체와 교육청을 거쳐서 학교로 교부되고 있는 상황이며, 각 학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시설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을 의뢰함. 향후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현행 예산 집행의 방식을 보완하여 예산 집행과 정산 등에 소요되는 부수적 업무를 축소하여야함</p> <p>②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방과후아카데미 등에 의무화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p> <p>③ 자유학기 활동 연계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정책화 되었음에도 교육부와 여가부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자유학기 사업 지원예산은 전혀 없음.</p>	<p>①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사업을 위한 예산규모, 배분, 집행,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p> <p>② 자유학기제 사업 관련 예산을 여성가족부에서도 마련하여 이를 각 청소년 시설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예산의 집행 및 정산시기를 학교의 학사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배분시기를 앞당기고 정산보고시기를 늦추어 현실화하는 방안필요.</p> <p>③ 자유학기 활동 연계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 되었음으로 교육부와 여가부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자유학기 사업지원, 공모사업 확대 등 예산 배정이 필요함.</p>
추진 주체	<p>①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하여 자유학기 운영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교육연수, 지역연계, 학교의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 연계·협력 지원을 명시함/ 학교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학생 요구/학부모 요구조사를 반영하도록 권고함.</p> <p>②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하여 해당지역 청소년활동요구를 정기적조사하고 지역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함. 지자체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p>	<p>① 교육부, 교육청의 지역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자유학기 사업예산지원, 학교에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개선필요, 공모사업의 개선 및 확대.</p> <p>② 여가부, 지자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자유학기 사업예산지원 및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필요, 공모사업의 개선 및 확대.</p>

(3)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

○ 문제현상

첫째,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다. 둘째, 현재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야한다는 규정과 청소년수련시설의 법적 청소년지도사의 인력배치 인원 규정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

○ 문제원인

첫째, 청소년지도사가 외부강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프로그램 기획에서 수업지도까지 하기 어려운 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법적 인력배치 인원이 너무 적어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 이해와 협업을 위한 실무 연수나 교육적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대책마련 및 추진방안

<p>[정책영역 3] 지역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p> <p>첫째, 지역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가 자유학기의 다회기 프로그램을 기획에서 직접적인 학생교육까지 할수있도록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방안</p> <p>둘째, 지역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교사 역량개발을 통해 학교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방안</p>	
추진 방안	<p>과제1)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및 교육역량 강화</p> <p>(1) 청소년지도사가 자유학기의 다회기 프로그램을 기획에서 직접적인 학생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예산, 시간과 교육기회).</p> <p>(2)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한 강사교육을 실시한다.</p> <p>(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할수있게 교육한다.</p> <p>(4) 청소년지도사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전문분야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p>
	<p>과제2) 교사의 학교 교육과정 개선 및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p> <p>(1)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실현해 갈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p> <p>(2) 교사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p> <p>(3) 지역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내부의 혁신사항을 지원한다.</p>
	<p>과제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증대</p> <p>(1)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의 인력배치 인원을 증대하기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한다.</p> <p>(2)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를 많이 채용하도록 기관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예산을 지원한다.</p>

○ 법·예산·추진체계 개선방안

표 12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추진 체계	현황 및 문제점(원인)	문제점 원인 해결 및 지원사항
법·제도	<p>①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의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제39조에 의하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일부 수탁 받은자)도 청소년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 인가,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함, 또한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p> <p>② 현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2016)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수용인원 500명 기준으로 4명을 배치하고,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 당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p> <p>=> 현재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야한다는 규정과 청소년수련시설의 법적 청소년지도사의 인력배치 인원 규정은 상충됨.</p>	<p>①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을 보면 외부강사의 자격과 프로그램 범위에 제한이 있음. 이와같이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야함을 알수있음. 또한 이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수련활동위탁제한 요건이 충족이 되지못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p> <p>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에 현행 500명당 4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청소년문화의집에 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기준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인력 부족을 낳게되고 이는 인력 증대로 해결해야함.</p> <p>=>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야한다는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인력배치 인원을 증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p> <p>=> 지역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및 교육역량 강화,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증대 방안이 필요함.</p>
예산	<p>① 현재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2016)에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으로 명시됨.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함.</p> <p>=> 청소년지도사 교육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 및 연수기회가 너무 적음. 이는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양하여 청소년 지도 및 교육역량을 강화할 여건 및 시간, 인식도 부족함.</p>	<p>① 교육훈련기간에 필요한 보조인력예산, 교육비 전문연수, 직무연수, 출장비, 재료비, 도서비, 교육특근비, 학습동아리지원비를 지원함</p> <p>②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연수나 교육훈련 비용과 시간 지원이 필요함.</p> <p>③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p>

추진 체계	현황 및 문제점(원인)	문제점 원인 해결 및 지원사항
추진 주체	① 현재 교육부는 다양한 교사연수 및 교과별 학습동아리 등 교사들이 교재 및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인정하여 출장비, 교재비, 학습동아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② 현재 청소년지도사는 자격연수와 보수연수 외에는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수업지도안 작성 등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시간 및 여건마련이 부족함.	①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교사연수에 지역사회이해와 협력이라는 주제의 강의개설 등으로 교사대상 연수뿐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대상의 학교행정 및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 등 지원. ②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설평가 지표에서 청소년지도사 교육역량 강화 제공의 반영실적을 평가지표로 제시하여 실효성을 지원함(교육훈련학습 결과보고 및 결과반영 실적). ③ 교육부/여가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지속적으로 연계·운영하는 공공청소년시설에 교육훈련비를 제공하고 결과보고를 받거나, 교육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추진 로드맵

표 13 본 연구결과 추진 로드맵 (지역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협업 지원 정책방안)

정책영역	정책과제 ⁶⁾	추진방안 ⁷⁾	추진단계 ⁸⁾	추진체계 ⁹⁾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협력체계 구축	1. 자체자원분석 및 사전실무협업	1) 학교-시설 주위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정보제공하면서 사전실무협의를 권고사항으로 하는 공문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2) 학교-지역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실무협의를 위한 연수를 개최한다. 협의할 구체적인 실무 안건을 가진 현장 차원의 실무협의방안을 안내하고 제공한다. 3) 사전실무협의를 실행하여 반영한 실적을 학교평가 지표/청소년시설 평가지표에 제시한다. 4) 단위 학교와 청소년시설 실무담당자의 만남으로 회의비, 다과비, 식사비, 교통비, 사전실무협회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5) 진로교육법의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 등 관련 조항에 단위학교 차원의 사전실무협의를 촉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를 만든다. 6)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설평가 지표에서 기관 차원에서 주최하는 사전실무협회의 개최의 반영실적을 평가지표로 제공한다.	단기과제 (1-2년)	주)교육부 여가부 보)지자체

정책영역	정책과제 ⁶⁾	추진방안 ⁷⁾	추진단계 ⁸⁾	추진체계 ⁹⁾
	2. 실행실무협의	1) 단위 학교와 단위 시설 차원의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설 등의 이해를 위한 교사 교육을 실시한다.	단기과제 (1-2년)	주)여가부 교육부 보)지자체
		2) 교사와 청소년시설 간의 자유학기 활동 연계를 위한 상호 실행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3)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자유학기 연계 당시 연도 운영 계획을 함께 확정·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한다.				
	3. 담당자 사전교육	1) 학교-지역 상호 이해교육(학교/청소년시설의 행정과 프로그램 특성 등) 연수 등을 실시한다.	단기과제 (1-2년)	주)여가부 교육부 보)지자체
		2) 기관 자체에서 학교-지역 연계운영 실무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활용하여 실무역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3) 자유학기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활동기록 및 과정평가 방법을 교육한다.		
		4)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활용방안을 교육한다.		
		5) 향후 총괄평가 내용 및 차년도 연계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한다.		
		6)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가이드북을 개발 및 보급한다.		
학생 수요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제공	4. 사전 수요조사와 홍보로 자율참여 증진	1)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를 1년 전에 실시한다.	단기과제 (1-2년) 중기과제 (3-4년)	주)교육부, 여가부 보)지자체
		2)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학교-시설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3) 개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간에 물려있는 체험일정을 분산하여 실시할 수 있게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4) 대규모(학년 단위)에서 소규모(학급별, 소모임 단위)로 실시할 수 있게 지원한다.		
		5)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수단을 지역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6)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단기부터 중장기 “프로그램개발 5개년 계획” 을 세운다.		

정책영역	정책과제 ⁶⁾	추진방안 ⁷⁾	추진단계 ⁸⁾	추진체계 ⁹⁾
	5. 정부공모사업 조정 및 확대	1)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주제와 공고시기 등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사업에 맞게 추진한다. 2)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공모사업의 공고와 확정시기, 예산지원 시기를 사업운영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한다.	단기과제 (1-2년)	주)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6. 공공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활동 사업비 지원	1) 공공 청소년시설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명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역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와 학교의 교사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	7.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및 교육역량 강화	1) 청소년지도사가 자유학기의 다하기 프로그램을 기획에서 직접적인 학생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예산, 시간과 교육기회).	단기과제 (1-2년) 중기과제 (3-4년)	주)여가부 교육부, 보)지자체
		2)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한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 지도안을 직접 작성할 수 있게 교육한다.		
		4) 청소년지도사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전문분야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8. 교사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 방안	1) 교사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단기과제 (1-2년)	주)교육부 여가부 협)지자체
		2) 지역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내부의 혁신사항을 지원한다.		
	9.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증대	1)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의 인력배치 인원을 증대하기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한다.	중기과제 (3-4년)	주)여가부 지자체 보)교육부
		2)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를 많이 채용하도록 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6) 정책과제는 정책영역과 우선순위로 도출된 정책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협의를 통해 제시하였음

7) 정책 추진방안은 심층면담 및 전문가집단 설문조사결과 중요도 우선순위(1-5순위)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음.

8) 추진단계는 대부분 단기과제(1-2년), 중기과제(3-4년)로 나타났음.

9) 추진체계는 정책이나 사업 주관부처, 연계부처, 지자체를 주관부서(주), 보조부서(보), 협조부서(협)로 명시하였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6
1) 지역사회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및 연계모형에 대한 문헌고찰	6
2)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을 위한 핵심요인 분석	6
3)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6
4.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7
2) 전문가 자문	7
3) 현장 사례조사	8
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지역연계 자료 분석	10
5) 면담조사 : 심층 개별면담	10
6)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10
7)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11
8) 청소년정책 리포트 발간	12
II. 이론적 배경	13
1. 자유학기제의 목적 및 현황	15
1) 자유학기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15
2)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관련 법률 및 정부 계획	19
3)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 현황	21
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사업	23
1)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 사업	23
2) 지자체 차원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 사업	36

3) 시사점	38
3.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운영 사례	39
1)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운영 유형	39
2)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우수 연계 사례	42
3) 시사점	44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45
Ⅲ. 질적양적 조사결과 및 시사점	53
1. 현장 사례조사 결과분석	55
1) 사례조사 개요 및 분석방법	55
2) 청소년시설 및 학교의 사례 분석결과 : 연계 운영과정	58
3) 시사점	79
2.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계 실증적 자료 분석	83
1) 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실적 분석	84
2) 20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실적 분석	88
3) 청소년(수련)시설 에서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분석	92
4) 시사점 :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관점에서 협업 관점에서의 전환	96
3. 면담조사 결과분석 : 연계 운영방안 개발	100
1) 면담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100
2) 청소년지도사 및 교사의 분석결과 : 협업 방안 핵심요인	101
3) 결론 및 시사점 : 협업 방안의 핵심요인	103
4.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결과분석	107
1) 설문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107
2) 청소년지도사, 교사·장학사 분석결과 : 협업의 핵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109
3) 시사점	116

IV. 정책방안 : 지역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협업방안	123
1. 협업 방안 개요 : 절차 및 핵심사항	126
1)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절차	126
2) 핵심요인과 협업 방안	128
2. 협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130
1)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 협력체계 구축	133
2) 학생 수요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제공	143
3) 지역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	152
3. 추진 로드맵	160
 참고문헌	 163
 부 록	 171
[부록 1] 현장 사례조사지 : 청소년지도사 및 교사(연계운영 경험자)	173
[부록 2] 면담 조사지 : 청소년지도사용/교사용(연계운영 경험자)	176
[부록 3] 설문 조사지 : 청소년지도사/교사장학사(연계운영 경험자)	178

표 목 차

〈표 II-1〉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 경과(2016년 3월 3일 시점)	17
〈표 II-2〉 자유학기 활동 영역과 내용	19
〈표 II-3〉 자유학기제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21
〈표 II-4〉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2015.12.31.)	22
〈표 II-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5
〈표 II-6〉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6
〈표 II-7〉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27
〈표 II-8〉 신고제 관련 신고주체 및 적용대상 요건	27
〈표 II-9〉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28
〈표 II-1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운영 개요	29
〈표 II-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추진체계	29
〈표 II-12〉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 포함) 인원	31
〈표 II-13〉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현황(2016)	32
〈표 II-14〉 2016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규모(여성가족부)	32
〈표 II-15〉 중앙부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사업 현황(2014-2015)	33
〈표 II-16〉 지자체별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 사업 현황	37
〈표 II-17〉 주요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8
〈표 III-1〉 현장 사례조사 참여기관	57
〈표 III-2〉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운영방식 비교	79
〈표 III-3〉 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비율	84
〈표 III-4〉 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실증적 자료 분석	85
〈표 III-5〉 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비율	89
〈표 III-6〉 20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실증적 자료 분석	89
〈표 III-7〉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2016.2)	93

〈표 Ⅲ-8〉 2014-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비율	96
〈표 Ⅲ-9〉 2014-2015 학교-청소년수련시설 지속적 연계운영 비율	97
〈표 Ⅲ-10〉 초·중·고 학생수/ 학교수/ 교육지원청수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비율	98
〈표 Ⅲ-11〉 행정구역별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설치 비율	98
〈표 Ⅲ-1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위탁운영하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비율	99
〈표 Ⅲ-13〉 면담조사 참여대상	100
〈표 Ⅲ-14〉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9
〈표 Ⅲ-15〉 전체 응답자(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의 협업 방안 중요도 우선순위	110
〈표 Ⅲ-16〉 청소년지도사 협업 실행방안 우선순위	111
〈표 Ⅲ-17〉 교사 및 장학사 협업 실행방안 우선순위	112
〈표 Ⅲ-18〉 전체 응답자(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의 협력이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113
〈표 Ⅲ-19〉 청소년지도사 입장에서 협력이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114
〈표 Ⅲ-20〉 교사 및 장학사 입장에서 협력이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115
〈표 Ⅲ-21〉 집단별 협업 실행방안 우선순위 비교	117
〈표 Ⅲ-22〉 집단별 협력이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비교	120
〈표 Ⅳ-1〉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시설-학교 자유학기제 협업 방안	129
〈표 Ⅳ-2〉 〈예시〉 청소년시설-학교 자유학기제 협업 실행체크리스트 양식	138
〈표 Ⅳ-3〉 자유학기제 지역협의체 운영 관련 법·제도적 근거	140
〈표 Ⅳ-4〉 학교-시설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142
〈표 Ⅳ-5〉 〈예시〉 청소년(수련)시설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방식	147
〈표 Ⅳ-6〉 학생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관련 법률 근거	148

〈표 IV-7〉 학생수요에 기반한 자율참여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151
〈표 IV-8〉 청소년지도사 인력과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제한 관련 법률 근거자료	155
〈표 IV-9〉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59
〈표 IV-10〉 본 연구결과 추진 로드맵(지역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정책방안)	160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절차	5
【그림 Ⅱ-1】 자유학기제 교육공동체와 지역인프라 연계모형	47
【그림 Ⅲ-1】 설문조사 개요	108
【그림 Ⅲ-2】 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 실행방안 우선순위 차이	119
【그림 Ⅲ-3】 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이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차이(전체문항)	121
【그림 Ⅳ-1】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절차	127
【그림 Ⅳ-2】 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 실행방안 우선순위 (1-5순위형 다중응답분석)	131
【그림 Ⅳ-3】 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이 어려운 이유 (1-3순위형 다중응답분석)	132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I 장 서 론¹⁾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학교와 지역사회 체험장 현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체험처 78,993개와 프로그램 163,613개가 확보(2015.11.20 기준)되었다고 보도(교육부, 2015.11.25.)되었지만, 체험처 프로그램의 질과 발굴 체험처의 지속성 문제가 애로사항으로 제시(장현진, 정윤경, 김나라, 임건주, 2014; 임지연, 2014)되었다. 물론 체험기관을 발굴하여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발굴하고 구축한 지역 체험인프라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학기 동안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특기적성 소질개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체험처와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전제로 어떤 방식으로 연계협력·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지속적인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임지연, 2015). 지금까지 이슈가 되었던 체험인프라 확대 및 구축에서 그 방향과 내용이 자유학기제 전면확대 이후의 중장기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학교와 체험처 관리 및 상호 지속가능한 연계를 할 수 있는 운영방안 연구가 필수적이다.

2016년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6.8.2.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6.8.4.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9.23.), 진로교육법 제정(2015.6.22.)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교육부, 2015.9.23.; 진로교육법, 2015.6.22.; 김기현, 김형주, 2015;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2014).

1) 본 내용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이 장의 일부 내용은 연구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NPI 이슈브리프 제75호로 발간한 바 있음("지역사회의 청소년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협업을 위한 과제", 2016년 12월)"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2015.6.30.),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운영(2015.7), 지역 진로교육센터 운영(2015.12.23.)을 통해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체험인프라와 학교 연결 및 진로체험처 관리(꿈길, 크레존, 교육기부 등), 교수학습방법개선, 연수, 컨설팅 등 체험활동을 지원 확충하고 있다(교육부, 2015.11.25.)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인 청소년수련시설을 코디네이터 기관으로 연계하여 청소년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하였다(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이 사업은 2013년까지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2014년부터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지방비로 일부 추진되었다.

이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체험활동이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체험활동 인프라 강화, 도농 간 체험활동 자원의 격차 문제 해소, 지원시스템, 전담인력, 안전대책,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등(임지연 외, 2014; 정영근, 김진숙, 이근호, 2014; 장현진, 이지연, 윤수린, 이윤진, 2014; 최상덕, 이상은, 고장완, 김경숙, 김기현, 2015; 서우석, 정철영, 이종범, 이순옥, 2014; 장현진, 정운경, 김나라, 임건주, 2014)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개발되어 왔다. 2016년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시점이라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보다는 현장에 전면 실행하는 단계임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 개발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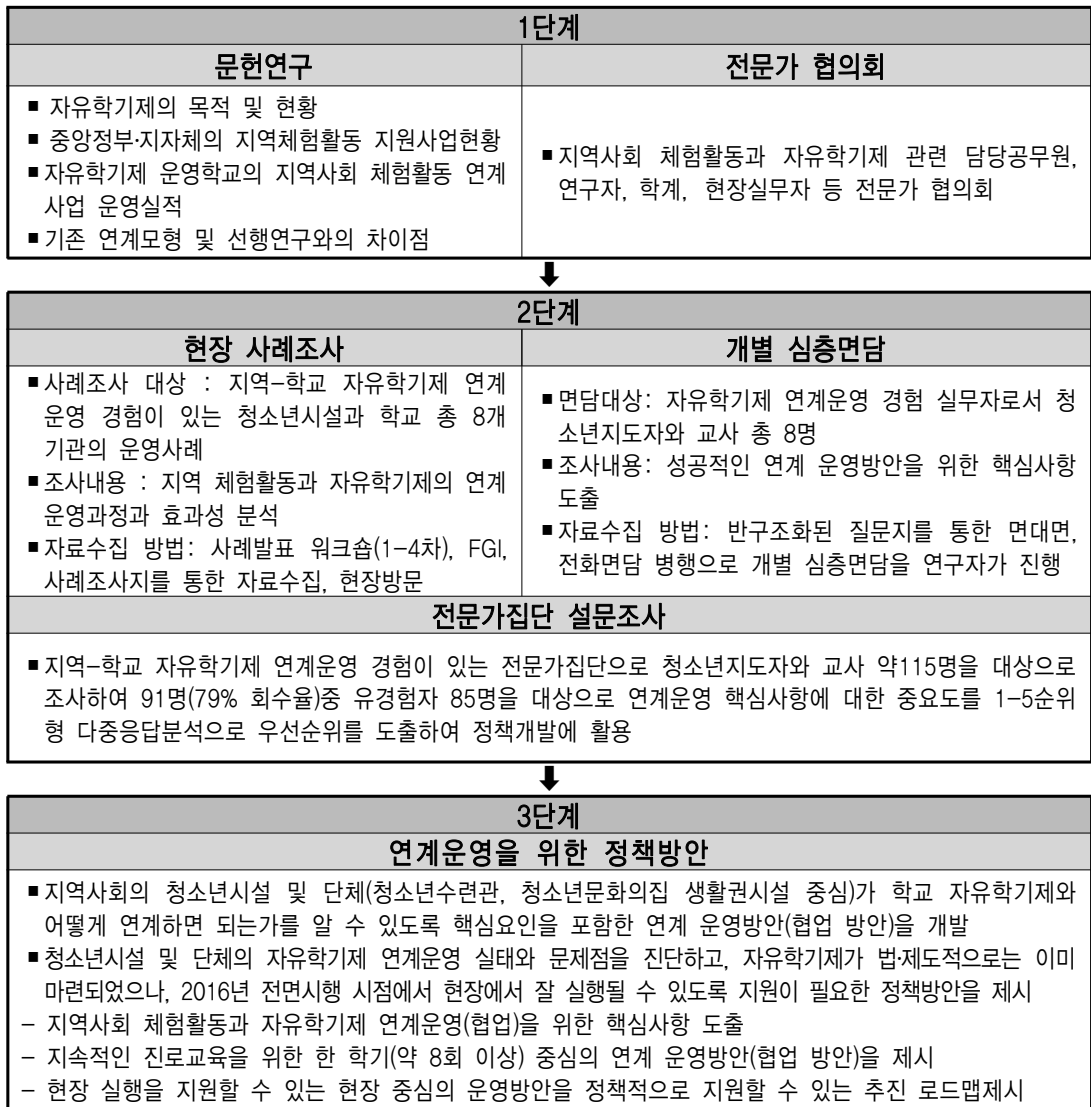
현재 자유학기제에서는 지역교육청 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지역 진로체험기관과 학교와의 매칭 등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역할이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의 역할보다는 청소년시설의 자체적이고 일상적인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관리 및 소통의 역할이 요구된다. 즉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들 또한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학교와 공동 협력체(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이상은, 김은영, 2014)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운영의 의미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한 학기 단위로 약 8회 이상의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연계운영으로서 협업을 말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의 체험활동을 말한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3.5.29).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법과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2016년 전면시행 시점에서 현장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협업방안(연계운

영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체험활동 자원을 통해 자유학기제와 지속가능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핵심요인을 포함하는 협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확대와 함께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연구추진체계



【그림 -1】연구의 추진체계 및 절차

3. 연구내용

1) 지역사회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및 연계모형에 대한 문헌고찰

-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지역-학교 연계 체험활동, 지역인프라 활용 관련 연계모형들을 분석하여 연계를 위한 핵심요인 등 운영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계 운영방안 제시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역 체험활동 사업현황을 분석한다. 학교연계 자유학기제 관련 등 자유학기제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지역 체험활동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자원은 현장 사례조사와 면담분석에서 함께 논의하였다.
- 연계 운영방안 제시를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사업운영실적을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 지역인프라 연계 사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사업운영실적 분석, 성과보고 발표회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2)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을 위한 핵심요인 분석

-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 학교 등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현장 사례조사, 심층 개별면담, 전문가집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6년 현재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일선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학교 자유학기제와 어떻게 연계하면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개발을 위한 성공요인이 되는 핵심사항을 도출하였다.
- 지역사회 자유학기제의 연계 운영을 위한 핵심요인 뿐 아니라, 현장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애로사항, 운영 노하우나 전략 등을 파악하였다.

3)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의 핵심사항을 도출하였다.

-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을 위한 현장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현황을 고찰하였다. 연계 운영방안 제시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지역 체험활동 사업현황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사업 운영실적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 고찰을 통하여 관련 연계모형과 연계 핵심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 질적, 양적 조사도구 개발 및 정책방안에 활용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 설정과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조사지 개발 및 분석 관련 자문,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1	연구방향 설정 및 실행계획서 추진내용 보안을 위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5명 내외 ○ 학계 5명 내외 ○ 현장전문가 5명 내외
2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관련 자문	
3	조사지 개발을 위한 자문	
4	실증적 연계자료 분석 관련 자문	
5	연구결과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자문	

3) 현장 사례조사

(1) 현장 사례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보편적 일반적인 추론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관심인 지역사회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시설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의 연계운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다.

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활동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에 대해 생생하고 심층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시급하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시사점들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2) 조사도구 및 조사내용

조사도구로서 사례조사는 문헌을 통하여 초안을 개발한 후 전문가협의를 거쳐서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사례조사지의 내용은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사례 간단 소개, 연계목표 및 연계이유, 연계 운영의 주체 및 담당자, 학교 연결방식(또는 지역기관 연결 방식), 주요연계 운영장소, 주요 연계내용 및 연계방법, 경험적 노하우, 연계운영을 위한 사전 요구분석, 연계 운영을 위한 홍보, 실제 연계 운영과정, 연계 운영후 결과 평가를 위한 활동, 연계운영에서 타 기관 담당자의 활동 또는 역할, 연계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친 참여 청소년 및 부모 역할, 연계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친 지역사회 특성(환경, 문화 등), 연계운영 방식의 특징과 성공요인, 연계 운영방식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기타 소감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내용은 연계 프로그램 분석이 아니라 연계 운영경험에 대한 것으로서 (1) 운영사례의 특성을 중심으로(예를 들어, 공모사업, 진로직업체험센터, 자체사업의 운영특성 등) (2) 주요 연계활동 및 실행과정 경험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선정과정

조사대상은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관련 연계운영 경험이 있는 6개의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과 2개의 중학교(교사)이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전국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결과 보고서(2014-2015)에서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활용 사례를 파악하고,

전문가협의를 통하여 연구자가 직접 접촉하여 참여를 수락한 8개 기관을 최종적으로 섭외하였다.

(4) 자료수집

본 현장 사례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방법은 첫째, 연계운영 방식별로 사례발표 워크숍(1-4차) 개최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사례발표 워크숍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활용한 운영방식(4.8), 공모 사업을 활용한 운영방식(4.12), 자체사업 운영방식(4.14), 학교 입장에서 운영방식(4.15)으로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례발표 내용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소개가 아니라, 연계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과 연구진에서 사전에 요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 현장 사례조사 자료수집 방법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관련 연계운영 경험이 있는 6개의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와 2개의 중학교(교사) ※ 사례조사의 대상인 사례는 연계운영 경험이 사례 단위가 되며 조사기관이 사례단위가 되는 것이 아님.
선정기준	연계 운영 경험사례가 있는 실무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였음. 다양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점을 둔 운영방식 별로 ①진로직업체험센터, ②청소년수련시설의 공모사업유형, ③청소년수련관의 자체사업유형, ④학교의 연계운영 방식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음 ※ 조사기관이 여러 운영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양한 사례조사를 위해서 특정 운영방식에 초점을 두고 연계운영의 경험사례를 조사하였음.
선정방법	목적 표집으로서 사례선정 전문가협의 및 전문가를 통한 네트워크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결과 보고서(2014-2015)를 활용하여 선정
조사내용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관련 연계운영을 위한 핵심요인, 연계 운영방식 등 파악 (연계목표 및 연계이유, 연계운영의 주체 및 담당자, 학교-지역 연결방식, 장소, 연계방법 및 노하우, 요구, 홍보, 평가, 지역특성, 성공요인, 애로사항 및 개선점 등)
조사방법	사례발표 워크숍, FGI, 문서수집, 현장방문
조사시기	4-6월

※ 구분은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점을 둔 운영방식 별로 선정한 것임. 조사기관이 여러 운영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양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특정 운영방식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조사하였음.
※ 운영방식 유형으로 제시한 근거는 문헌고찰과 전문가협의 결과, 현재 자유학기제를 통한 연계운영의 중점 방식으로 판단된 것임.

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지역연계 자료 분석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계실적 자료 분석을 위하여 80개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2014-2015년에 제출한 자유학기제 운영결과보고서와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의 지역연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실적 분석, 둘째, 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실적 분석, 셋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실적을 분석하였다.

5) 면담조사 : 심층 개별면담

- 조사내용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과정 작동맥락을 통하여 성공적인 현장 실행을 위한 핵심사항과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조사대상은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관련 연계운영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와 학교 교사이다.
- 자료수집방법 : 개별 심층면담은 면대면과 전화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전문가협의 및 전문가를 통한 네트워크 활용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결과 보고서(2013-2015)
면담참여자 수	청소년시설(청소년지도사) 및 학교(교사) 8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지역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경험 실무자
면담방식 및 시기	개별 심층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6-7월
면담 시간 및 횟수	인터뷰 당 2시간 내외, 인터뷰 당 2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기록, 녹음 후 전사
면담자	연구자

6)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및 장학사 총 115명을 대상으로 Web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지도사(42명)와 교사(39명) 및 장학사(10명) 총91명(참여율 79%)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문헌고찰과 현장 사례조사를 기초로 경험자 심층면담을 통하여 개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연계 운영방안의 핵심사항에 대한 질문이다. 분석방법은 문항별 중요도에 대한 1-5순위, 1-3순위에 대한 다중응답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와 학교 교사의 핵심사항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

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문가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계 운영방안의 핵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정책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 설문조사 자료수집 방법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연계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집단(청소년지도자 및 교사) (약115명)
선정방법	연계운영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목적적 표집 (청소년지도자 및 교사, 장학사)
조사내용	연계운영 핵심사항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
조사방법	Web 설문조사(URL주소에 접속하여 직접 기입)
조사시기	8-9월

7)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 워크숍

횟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연계운영 사례발표 워크숍(1-4차)	청소년지도사 및 교사, 현장전문가 (13명 씩)	4월 8일 4월12일 4월14일 4월15일
2회	청소년수련시설 자유학기제 설명회(1-3차)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협력기관과 연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이해, 발표 및 논의 참여)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약 80명 씩)	5월26일 6월16일 6월28일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횟수	주요내용(안)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연구실행계획 관련 및 협력사항 협의	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2월 2일 3월23일
2회	연계 운영방안 실무협의	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10월 7일 11월28일 12월 8일

8) 청소년정책 리포트 발간

- 본 연구의 필요성과 쟁점 및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NYPI 정책브리프를 연구성과물로 기 발간하였다.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의 협업을 위한 과제” 청소년정책 리포트(2016, Vol. 75)는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의 목적 및 현황
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사업
3.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운영 사례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의 목적 및 현황²⁾

1) 자유학기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자유학기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키우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행복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꿈과 끼를 살린 창의교육 실현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이상은, 김은영, 2014).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의 추진 목적은 첫째,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지식과 경쟁중심 교육을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지향적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 셋째, 공교육 변화 및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의 제공이다(교육부, 2013.05.29).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3.5.29). 자유학기제는 그 성과를 토대로 대상을 점차 초·중·고등학교 전체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교과수업 뿐 아니라 다양한 직·간접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유학기제가 지적 역량 뿐 아니라 공감능력, 소통능력, 협동적 문제해결력 등 비인지적 역량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최상덕 외, 201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형성은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행복한 학교생활, 꿈과 끼 찾기,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배양 등 전인적 교육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2) 본 내용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유학기 교육과정 즉 공통과정과 자율과정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학교생활에 활력을 가지도록 특히 오전의 학생참여형 수업과 오후의 자율활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활력들이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다양한 활동중심 수업 및 체험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들 또한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학교와 공동 협력체로서 각 단체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활동,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최상덕 외, 2014).

실제 현장에서의 자유학기제의 필요성 및 운영 관련 이슈가 된 내용으로는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필요성, 학부모의 학력저하 우려에 대한 불식 해소, 학교 여건에 맞는 실태분석 및 모형선택, 지속적이고 일반화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형구안(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방과후활동과 연계운영 등),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편성, 자유학기제의 평가(점수 산출을 위한 총괄평가가 아닌 학습발달을 위한 형성평가, 자기 성찰평가 및 수행과정 평가)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다른 학기는 물론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연계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수립이 필요하다(최상덕 외, 2014).

자유학기제의 추진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간의 정책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자유학기제는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3~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운영(2013년 2학기~)으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2016년 전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표 II-1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 경과(2016년 3월 3일 시점)

출처		주요 내용
일시	추진 특징	
2012.11.21	대선공약 제시	·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21일 대선공약으로 처음 제시
2013.02.21	주요 국정과제 채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국정과제 발표 -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자유학기제 실시학년·학기에 대해 사도별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
2013.03.28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기본사항 제시	·교육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업무보고 - 학생의 발달단계, 학습의 연속성 등 고려 1개 학기 선택 -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자율성 확대 - Block 수업 등 조사, 발표, 토론, 실습, 프로젝트 수행 활성화
-	연구학교 지정/지원센터 설치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42교) 지정(' 13.4.12)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선정(4.19, KEDI)
2013.05.28	핵심국정과제 지정	·국무조정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발표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국정과제의 추진계획인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국정과제 66)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제시
2013.05.28	자유학기제 목적/정책방안 구체화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 발표 - 자유학기제 추진 목적 및 기본방향/자유학기 4개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 연구·희망학교 운영 후, 결과에 기초하여 '16년 전면도입 계획 수립
-	연구학교 운영·추가지정 및 성과 확인	·2013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42개교) 운영(' 13.9~) ·2014년 1학기부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38개교) 추가지정(' 14.3~) ·2013년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13.12.23)
2014.02.13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방안 포함	·교육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업무보고 - 올해 약 600개교(2015년까지 약 1,500개교)로 연구·희망학교 확대운영 - 교육지원청 주도로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제 구축
2014.02.21	선도교육청, 선도교육지원청 선정	·교육부,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 선정 - 선도교육청(제주)의 경우 관내 모든 중학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로 운영 - 선도교육지원청의 경우 소속중학교(100개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로 운영
2013-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시범운영	- 2013~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운영(' 13,2학기~)으로 (' 13) 42교 → (' 14) 811교(25%) → (' 15) 2,551교(80%) 시범운영
2015.11.2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확정	-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 전면 시행을 위해 2016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지원(학교당 평균 20백만원 내외) - 토론·실습·프로젝트 학습 등 교실수업 개선 및 과정중심 평가 시행 -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 운영, 진로체험 2회 이상
2016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기 현황(2016. 2. 2 기준)을 살펴보면, 현재 기준으로 학교 수는 총 3,214개교이며, 1학기 운영학교는 총 59개교(1학년 1학기 45개교 + 2학년 1학기 14개교)이며, 2학기 운영학교는 총 3,155개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출처: 이지연 (2013),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21.과 서우석, 정철영, 이종범, 이순옥(2014),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및 지역인프라 연계방안, 한국교육개발원·경인교육대학교, P. 16.을 재구성.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3~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운영(2013년 2학기~)으로 (2013년) 42교 → (2014년) 811교(25%) → (2015년) 2,551교(80%) 시범운영을 거쳐서 2016년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모형 및 실행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기 현황(2016. 2. 2 기준)을 살펴보면, 현재 기준으로 학교 수는 총 3,214개교이며, 1학기 운영학교는 총 59개교(1학년 1학기 45개교 + 2학년 1학기 14개교)이며, 2학기 운영학교는 총 3,155개교로 99%이상이 2학기에 집중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2015.11.25.)을 확정·발표하였다. 확정된 주요한 내용은 첫째,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둘째, 전면 시행을 위해 2016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지원(학교당 평균 20백 만원 내외), 셋째, 토론·실습·프로젝트 학습 등 교실수업 개선 및 과정중심 평가 시행, 넷째,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 운영(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활용), 진로체험(현장직업체험, 학과체험 등) 2회 이상 운영이다(교육부, 2015.11.25.).

지역 연계 체험활동의 유형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에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 진로캠프형, 학과체험형, 현장견학형, 강연대회형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11.25.).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 편성·운영(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이다. 첫째, 학교 여건에 따라 교과군별 배당된 시간의 20% 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51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학기 활동 운영(특정 교과군에서 34시간을 초과하여 자유학기 활동 운영 불가)이다. 둘째, 예술 교과군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으로만 편성할 수 있으며, 자유학기에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예술·체육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학기 활동은 주로 오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교육부, 2015.11.25.).

자유학기 활동의 운영 기본방향은 첫째,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의 편성·운영하여 학생 중심의 자유학기활동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경험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최대한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습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자기 성찰 및 발전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희망,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이 가능하다(교육부, 2015.11.25.).

표 II-2 자유학기 활동 영역과 내용

구분	내용	목적·성격	학습 내용	운영 방법
진로탐색 활동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학습 기회 제공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진로·직업 관련 내용	학생 희망 선택
주제선택 활동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맞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학생 중심의 인문사회, 탐구, 교양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 학습 기회 제공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예술·체육 활동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다양한 예술, 체육 활동 기회 제공	문화, 음악, 미술, 체육 관련 내용	
동아리 활동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자발적, 자율적인 학생 중심 활동	자치적, 자율적 활동 기회 제공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출처: 교육부에서 2015년 11월 25일(수) 확정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자유학기활동은 170시간 이상 편성하며, 학교의 목표와 여건을 고려하여 각 활동을 균형있게 운영) p.48.

이러한 양적인 체험처 발굴 및 구축이 자유학기 활동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활용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입장에서 어떻게 연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모형과 실행방안 제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요컨대, 지역사회의 청소년 체험활동도 자유학기제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기, 학년 및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학기 뿐만아니라 이후에도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에 지나치게 집중화됨에 따라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진로체험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자유학기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관련 법률 및 정부 계획

자유학기제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정부의 기본계획, 정부의 체험활동 자원 확충 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 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첫째, 자유학기제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으로는 진로교육법(2015.6.22. 제정), 청소년활동진흥법(2016.5.29.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5.8.2.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6.8.4.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9.23.)이 있다. 앞서 제시한 자유학기제 관련 법령 및 추진 근거의 핵심내용으로 공공기관 진로체험 기회 의무제공, 지역 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역 청소년활동과 체험과 안전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규칙에서의 자유학기 학생 참여형 수업실시,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학교생활기록,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지침, 교육청 수준의 지원(자유학기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 계획 및 추진)을 제시할 수 있다(진로교육법, 2015; 청소년활동진흥법, 201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6;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 2016; 교육부, 2015.9.23.).

둘째, 자유학기제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으로는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 수립(2010-2013), 자유학기제 도입 공약 발표(2012.11) 및 국정과제 채택(2013.1~2),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2012.4.20.),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 발표(2013.5.30.),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확대 운영 계획 수립(2013.12.11, 2015.4.22.),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확정(2015.11.2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이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학교 진로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도입 로드맵, 진로진담교사배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희망학교 운영, 교실수업 혁신, 다양한 꿈끼 탐색활동,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어지는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기반확충, 진로교육 집중학년과 학기제 도입·확산 등을 제시할 수 있다(교육부, 2016.4.5.; 교육부, 2016.3.31.; 교육부, 2015.11.25.).

셋째, 정부의 체험활동 자원 확충 사업으로는 자유학기제 학생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부처협력 방안 보고(2015.2.13.),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개최(1차:2015.3.27., 2차:2015.6.25.),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2015.6.30.),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운영(2015.7), 지역 진로교육센터 운영(2015.12.23.)이 있다(교육부, 2015.11.25). 이와 같은 정부의 체험활동 자원 확충 사업으로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체험인프라와 학교 연결 및 진로체험처 관리(꿈길, 크레존, 교육기부 등), 교수·학습방법개선, 연수, 컨설팅 등이 있다(교육부, 2015.11.25.; 교육부, 2016.3.31.).

요컨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기본계획, 체험활동 자원확충 사업의 관련 주무부처는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등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현장의 학교-지역 연계협력 뿐 아니라 중앙정부 주무 부처와 담당자 간의 긴밀한 상호 연계협력 또한 중요하다.

표 II-3 자유학기제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관련 법률 및 추진 근거	주무부처	핵심내용
진로교육법 (2015.6.22. 제정.)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 공공기관 진로체험 기회 의무 제공 -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 인증 - 지역 진로교육센터 운영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2016.3.2. 일부개정) (2004.2.9. 제정)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지역 청소년활동, 체험, 안전교육 등 -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5.9.15. 개정)	교육부 학교정책과	- 중학교 한 학기 필수 자유학기 지정 - 자유학기 학생 참여형 수업 실시 -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15.9.25. 개정)		- 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로서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상황을 명시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9.23. 고시)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교육과정 편성·운영(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지침) - 교육청 수준의 지원

출처: 진로교육법 (2015. 6.22. 제정, 법률 제 1333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6. 5. 29. 일부개정, 법률 제1423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6. 8. 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2742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16. 8. 4.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 10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 (2015.9.2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p.11.

3)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 현황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 기존의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의미한다.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의 명칭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교육체험센터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지역사회 체험처와 학교 간 허브역할을 담당하며, 체험처 발굴·관리, 체험처에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체험처-학교 매칭, 센터 자체 체험프로그램(학생용, 학부모용) 운영의 역할을 한다(교육부, 2016.4.5).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은 기관별 실무담당자로서 교육지원청 장학사, 기초지자체 담당자, 학부모 진로코치, 진로교사, 퇴직교사, 청소년 관련센터, 지역사회 인사 등 10-20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마다 구성되어 있으며, 반기별 1-2회의 정례적 협의를 갖고 자유학기제·진로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는 활동을 한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표 II-4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2015.12.31.)

(단위: 개)

구분	교육지원청(개)	지자체수(개)	운영 형태				설립예정(개)	비고
			위탁운영(개)	지자체직영(개)	교육지원청직영(개)	합계		
서울	11	25	21	4	0	25	0	
부산	5	16	4	0	5	9	2	'16.4.16.8
대구	4	8	0	0	4	4	0	
인천	5	10	4	1	1	6	0	
광주	2	5	2	0	0	2	0	
대전	2	5	2	1	0	3	0	
울산	2	5	5	0	0	5	0	
세종	1	1	0	0	1	1	0	
경기	25	31	20	7	1	28	2	'16.3.16.6
강원	17	18	15	0	2	17	1	'16.3
충북	10	11	10	0	0	10	0	
충남	14	14	13	1	0	14	0	
전북	14	14	5	0	9	14	0	
전남	22	22	17	0	5	22	0	
경북	23	23	10	0	13	23	0	
경남	18	18	0	0	18	18	0	
제주	2	2	2	0	0	2	0	
총계	177	229	130	14	59	203	5	

출처: 교육부 (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질의응답 보도자료(2016. 4. 5), p. 22.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형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 직영(59개), 지자체 직영(14개),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위탁운영(130개)되고 있다(2015.12.31. 기준).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 전국 203개가 운영 중이며(2015.12.31.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177개 교육지원

청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다. 전국 229개 지자체(시·군·구 단위)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5개가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교육부, 2016.4.5.).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서울, 울산, 세종, 전북, 전남, 충남, 경북, 경남, 제주 9개의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단위에 모두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6.4.5.). 특히 충남은 충남 내의 지자체 14군데의 청소년수련관 모두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탁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전국 203개 센터 중 과반수 이상의 130개(64%) 센터가 위탁운영되고 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교육부, 2016.4.5.).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에서 위탁운영하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 위탁운영되고 있는 전체 130개 중에서 64개(49%)이다(여성가족부, 2016d.). 따라서 위탁운영의 절반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시설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자유학기제의 지역연계 운영에 있어서 수련시설의 역할이 다른 지역사회 기관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사업³⁾

1)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체험활동에 대한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흥 및 지원을 정책수립과 실질적인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1) 지역사회 체험활동의 법적 근거 등 기초 체험활동기반

① 법적 근거

첫째, 청소년 기본법(2016)에서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관련한 정의 조항으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3) 본 내용은 한도희(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가 집필하였음.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며,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청소년의 삶에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함과, 가정과 사회의 책임이고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제도적 장치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와 우수한 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대한 사항을 법조문화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의 설립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2016).

둘째, 청소년활동 진흥법(2016)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을 다루는 핵심 법률로 기본사항인 청소년수련시설 및 환경, 활동프로그램, 안전 및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청소년체험활동 계획 및 실시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도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질 제고와 고위험 활동과 대규모참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전 안전을 고려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활동진흥법, 2016). 또한 청소년체험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며,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며,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념정리에 대한 사항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내의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기반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질 관리 및 진흥 차원에서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활동진흥법, 2016).

②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을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2016)에서는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활동에 관련한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는 총 6가지로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의무화

되어 있다. 둘째,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전국 읍·면·동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의무화 되어 있다. 셋째,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전국적으로 자연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연 및 모험 등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다섯째,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말한다. 여섯째,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전국적으로 787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활동진흥법, 2016).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을 보면, 수련관(187개소), 문화의집(233개소), 수련원(188개소), 야영장(42개소), 유스호스텔(128개소), 특화시설(9개소)로 제시된다(여성가족부, 2015a). 특화시설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문화교류센터, 대구 남구청소년창작센터, 강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부안군청립청소년수련시설로 9개소의 시설이 있다(여성가족부, 2015d).

표 II-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87	187	233	188	42	128	9
공공	513	184	227	54	21	18	9
민간	274	3	6	134	21	110	0

출처: 여성가족부 (2015a). 2015 청소년백서. p. 447.

표 II-6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87	187	233	188	42	128	9
서울	62	33	16	3	0	4	6
부산	26	8	11	4	2	1	0
대구	15	5	6	2	0	1	1
인천	26	8	4	5	5	4	0
광주	12	5	6	1	0	0	0
대전	12	3	6	2	0	1	0
울산	9	1	7	1	0	0	0
세종	1	0	1	0	0	0	0
경기	154	31	49	46	7	21	0
강원	83	16	28	16	5	17	1
충북	46	8	10	19	1	8	0
충남	49	11	9	14	2	13	0
전북	56	11	18	15	3	8	1
전남	51	11	15	11	7	7	0
경북	68	16	13	16	5	18	0
경남	70	17	14	28	3	8	0
제주	47	3	20	5	2	17	0

주 : 국립청소년시설(5개)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라남도 고흥군),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라북도 김제시).

출처 : 여성가족부 (2015a). 2015 청소년백서, p. 448.

둘째, 청소년단체는 한국스카우트, 한국걸스카우트, MRA(한국도덕재무장운동본부), 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 등의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15), 학교내 단체활동과 지역사회차원의 단체 활동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1965년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 협의회로 창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대표되고 있다. 현재 8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70개 회원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269만여 명의 청소년회원과 149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자 등 총 418만명여 명이 소속되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셋째, 청소년지도사는 현장에서 학교의 교사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국가자격으로 1급,2급,3급 체계로 운영중에 있으며, 1993년부터 양성하기 시작하여 2015년 현재 38,021명이 배출되어 전국의 지역사회 현장에서 활동중이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하여 자격연수 및 자격증 발급과 관리가 실시되며, 2년에 한번씩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자격증의 제도적 활용장치로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규모 및 회원수에 따라 법적 인력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15).

표 II-7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연도	1급		2급		3급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2015년 (8월 기준)	9	19	822	2,377	215	544	1,046	2,940	3,986
누계	899	640	7,160	18,787	3,341	7,194	11,400	26,621	38,021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 청소년백서. p. 459.

③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 및 관리제도

지역사회에서의 안전한 청소년체험활동을 위하여 국가 제도로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도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도는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여 청소년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지자체와 운영주체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돌발 사고시 신속한 신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활동진흥법, 2016). 내용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실시계획을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은 지자체 및 활동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에 공개하여 참여시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b).

표 II-8 신고제 관련 신고주체 및 적용대상 요건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시·군·구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신고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 단체)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 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9세~18세)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해당 활동)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매뉴얼 개발. 청소년정책리포트 제5호, p.11..

둘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 인증프로그램이 3,743건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a).

표 II-9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단위: 건)

구분	' 06 ~ 09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인증신청	1340	340	329	276	1,291	2,895	2,026
인증	1061	266	242	212	783	1,553	1,301
인증유지	2297	1,297	1,382	1,314	1,702	2,971	3,743
만료·철회	21	55	191	342	242	287	527
인증취소	4	-	-	-	1	3	2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 청소년백서. p.114. 내용 재정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하여 활동프로그램계획, 지도력, 활동환경, 활동기록관리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이를 심사하고 인증하게 하고, 활동이 종료된 후에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활동참여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2016).

표 II-1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운영 개요

관련법	구분	내용
청소년 활동진흥법	목적	• 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
	인증위원회	• 설치 :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설치 • 구성 :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역할 : 인증제도 운영, 인증심사원 선발 등
	인증절차	• 인증신청 : 국가, 지자체, 개인, 법인, 단체 -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실시 시(45일전 신청) • 인증절차(위원회) : 내용확인(현장확인 등), 보완, 인증
	사후관리	• 인증유효기간 설정 : 4년 이내, 연장 가능 • 이행여부 확인, 시정요구(위원회)
	활동기록	• 국가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출처: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6. 5. 29. 일부개정, 법률 제1423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II-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추진체계

구분	역할	법적근거
여성가족부	인증제도 추진, 인증위원 위촉, 활동기록 유지·관리·제공	활동진흥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활동진흥법 제 7조/제35조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인증제도 운영	활동진흥법 제35조/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시·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하여 인증제도 지원, 인증받은 청소년활동의 홍보 및 지원사업 운영	활동진흥법 제7조/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인증위원회 (여성가족부 위촉, 임기 3년)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개선 요구, 인증의 유효기간 심의, 인증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시정요구, 인증의 취소, 인증신청 제한 조치, 인증심 사원 선발·활용,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의 유지·관리 조치 등	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인증심사원 (인증위원회 위촉)	서류 심사 및 이행여부 확인 심사	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2014.3.17.).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현황. p.3

(2)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체험활동 진흥사업

① 청소년어울림마당(구, 청소년문화존)

여성가족부(2016a)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통하여 상호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지원하고 있다. 본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말을 이용한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증진을 도모하게 하고자 한다(여성가족부, 2016a). 청소년어울림마당의 개념은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공연, 경연, 전시, 놀이 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상설공간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40:60 매칭펀드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시도 대표어울림마당과 110개 시·군·구 어울림마당으로 운영·지원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② 청소년동아리활동

여성가족부(2016a)에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특기개발 및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전국적으로 2,10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예산편성은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40:60 매칭펀드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며, 지원규모는 1개 동아리당 연간 125만원(지방비 포함) 한도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16a). 청소년동아리에 대한 개념은 함께 하는 청소년들의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개개 참여 청소년들의 소질, 취미,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활동하는 모임을 말한다. 청소년동아리의 활동은 첫째, 자치활동으로의 특성, 둘째, 집단활동으로의 특성, 셋째 여가활동으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원동아리 선정기준은 첫째, 10명 이상구성 및 연 12회 이상 정기활동 가능동아리, 둘째, 기 1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동아리, 셋째,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된 동아리 등을 해당 지자체 특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지원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16a; 청소년활동진흥법, 2016).

③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여성가족부(2015a)에서는 청소년의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개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성취감과 시민역량 강화하고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운영 및 지원, 관리를 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활동진흥법, 2016). 그 간 추진된 정책적 경과는 1995년 전국의 16개 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 1997년 봉사학습으로의 청소년봉사활동 실시,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시 청소년 문화활동의 하나로 봉사활동의 영역 재정립, 2006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로 확대개편, 2012년 최근 청소년자원봉사 통합 포털사이트 개발운영(dovel.youth.go.kr) 되었다(여성가족부, 2015a).

표 II-12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 포함) 인원 (단위: 명)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청소년수(명)	2,273,068	2,444,208	2,649,290	2,760,844	2,907,459	3,183,810

출처: 여성가족부 (2015a), 2015 청소년백서. p.127.

전국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 9,249개소의 청소년 자원봉사터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676,565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함께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청소년자원봉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는 총 3,183,810명이다(여성가족부, 2015a). 2000년대 들어와서는 기본 국내 중심의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을 뛰어넘어 국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세계시민의식 배양차원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활동을 지원 및 운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대한민국 청소년자원 봉사단을 추진해 하고 있다. 본 국외 청소년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이를 통하여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빈곤, 평화,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④ 청소년활동공모사업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의 지역사회현장에서 양질의 우수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시설 및 단체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2016년 국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분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16b;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c).

표 II-13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현황(2016)

구분	분야	선정 결과 현황	
청소년활동	진로·직업	29	71
	모험봉사	8	
	역사	11	
	가족·인성	11	
	문화·예술, 과학·환경	12	
청소년보호	매체이용 역기능 예방 및 해소	4	8
	청소년보호 환경조성 및 활동	4	
청소년참여	사회구성원관계개선	17	50
	지역사회개발개선	25	
	청소년권익개선	5	
	청소년정책과제 실현	3	
총계		129	

출처: 여성가족부 (2016c), 2016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선정결과 안내자료 재정리.

표 II-14 2016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규모(여성가족부)

사업분야	지원 프로그램 수 및 지원 규모
활동	○ 프로그램당 5~15백만원 내외/70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직업 프로그램 선정(20~30개) *역사분야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10개 내외)
보호(매체)	○ 프로그램당 15백만원 이내 지원/8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참여	○ 프로그램운영비 1.5~5백만원 내외/60개팀 내외 선정 예정

※ 2015년 활동분야최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10개 기관은 2016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자동 선정 및 지원

※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들의 신청총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 프로그램 수 및 지원 금액 결정

※ 지원 금액 결정은 사업분야별 배정금액,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동일분야 국고보조금 신청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 공고, p.4.

2016년 청소년활동분야의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총 71개 시설 및 단체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진로·직업 영역에 29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모험·봉사 영역에 8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가족인성 영역에 11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역사 영역에 11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문화·예술·과학·환경 영역에 12개 프로그램이 선정 운영 지원된다(여성가족부, 2016c).

(3) 기타 타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체험활동 사업

중앙부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프로그램공모, 체험활동 정보제공, 교육부의 지원사업으로는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외교부의 지원사업으로 외교사료관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농어촌 체험사업,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산업기술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창의기술 인재센터 지원이 있다(여성가족부, 2015b).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으로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어촌교류 촉진, 국가보훈처 지원사업으로 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무형유산 체험교육,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으로 4-H회원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특허청 지원사업으로 발명교육 활성화, 국민권의 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청렴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15b).

표 II -15 중앙부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사업 현황(2014-2015)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진로·직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초·중·고교 학생의 방학기간 등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 마련
	체험활동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직접 실시 정보를 등재할 수 있도록 등록 시스템 개발 - 청소년활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교육부	창의적체험자원지도(CRM) 구축운영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 체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체험활동 자원망 구축 운영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 학교-지역사회, 민-관 협력을 통해 꿈끼를 발산 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 지역사회(기업, 대학, 지자체, 청소년시설 등) 물적자원과 전문가를 활용한 인적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창의적 체험활동의 허브 역할로 센터의 보유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 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원활히 운영
외교부	외교사료관 프로그램 운영	- 평일 프로그램(외교사료관 견학프로그램: 외교부 및 외교사료관 소개, 외교퀴즈, 임용장 수여 및 부임자 선서, 외교사전시실 관람해설) - 토요 프로그램(어린이/청소년 외교관학교, 외교관과의 대화, 특별강연 등):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외교업무와 외교사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 전통한옥 내부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지원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현대미술감상: 학년 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미술관 소장품 및 상설기획전 연계 작품 해설 중심의 감상교육을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기회 제공, - 미술관 직업탐방 교육: 학급 혹은 동아리 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 소개 및 직업 현장 탐방 기회 제공을 통해 진로 개척 능력의 함양 - 청소년 아트클럽: 개별 신청자 중 선발 인원을 대상으로 현대예술 작가와 전공이 다양한 대학생 멘토를 통해 현대예술의 다양한 해석에 대한 이해와 예술 체험활동 기회 제공
	청소년 대상 국악공연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체험형 국악공연 및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제공 -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전통 공연 프로그램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희망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가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도농교류협력사업 (청소년 농어촌 체험사업)	- 도시민과 청소년들의 농어촌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체험참가자에게 체험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체험비, 숙박 및 식비, 교통비 등: 참가자 자부담 40% 이상) - 체험프로그램과 인력을 보유한 초등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운영	-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농어촌인성학교 공동 지정 및 농어촌 체험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공동개발, 시설물 지원 및 운영시스템 구축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산업통상 자원부	청소년 산업기술 체험 프로그램	- 중고생, 도서산간 및 이공계 관련 교사에게 산업기술 체험기회 부여 - 기술관여도가 높은 기술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맞춤프로그램제공
	임베디드SW경진대회(주니어분야)	- 예선을 거쳐 초중고등학교(총 130개팀) 본선진출팀 선발 - 본선진출팀에 개발장비 지급 및 기술지원 세미나(1차), 기술지원 교육(2차·3차)을 통한 개발능력 향상 - 결선(미션·기록경기)을 통한 수상팀 선정 및 시상
	청소년 창의기술 인재센터지원	-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를 통한 기술아카데미 개발운영 - 다양한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학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개최
	로봇창의교육사업	- 사회적 배려계층(복지시설)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용 로봇활용한 1인 1대 방문교육 및 창의대회 실시 - 시·군지역(농어촌 중심)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용 로봇 활용한 체험·창의교육 실시
	한국청소년 디자인전람회	-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공모전
환경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 학교-사회 환경교육 연계 및 청소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 환경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친환경체험 기회 제공
해양수산부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어촌교류촉진	- 초·중·고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양관련 시설 견학, 카누·요트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 초·중등학교와 어촌계간 1교 1촌 자매결연 교류비용 지원 - *1인당 25천원 이내, 학교당 4백만원까지
국가보훈처	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 나라사랑 연수교육, 청소년 보훈캠프,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나라사랑 봉사 프로그램(앞섬이) 운영
문화재청	청소년 무형유산 체험교육	- 재미있게 배우는 무형유산 창의체험교실로 기예능 체험교육 -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는 복합체험교육프로그램인 교과연계 현장학습 무형유산 청소년캠프 '3리 3색'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창의체험학교 운영	- 방문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 문화유산교육(이론, 현장답사 등)실시 - 학교 교육과정에 문화유산교육을 접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고 즐기는 활동인 '문화재지킴이 운동' 일환인 청소년 대상 문화재 보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단체 및 지도교사 위촉 관리 -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및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문화재청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 궁궐 및 궁궐 문화유산의 전반적 이해를 위한 현장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자연유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 미취학아동(6~7세) 및 초등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자연유산(동물·식물·화석 등)에 대한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동식물 실물 표본 및 자연유산 연구관련 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생생한 자연유산 체험 기회 제공
	청소년 대상 왕실문화 프로그램 운영	-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경복궁 등 궁능과 연계한 왕실문화 현장체험 확대 및 인문학 특강개설 - 주말, 방학기간에 고품질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가족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어린이 대상 해양문화 프로그램 운영	- 해양문화유산과 연관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습·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해양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
	현충사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프로그램	- 어린이·청소년교육(어린이 충무공학교),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현충사 자연캠 프, 충무공 휘호교실)
농촌진흥청	4-H회원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과제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해 4-H활성화 기반 구축 - 각급 단위 4-H후원단체 지원 및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훈련 체계 구축
산림청	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의 산림휴양공간에 배치하여 산림교육 실시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등 청소년 대상 부처간 협업 사업 추진 -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위한 산림교육센터 조성·지정,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실시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 산림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 단체인 '숲사랑소년단' 육성
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 발명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발명영재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발명·특허 교육 확산, 우수 발명인재 발굴을 위한 발명창의력 대회 운영, 발명교육 센터 운영 등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청렴교실(초중), 국민참여 프로그램(대학생 참여 프로그램)

출처: 여성가족부(2015b),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세부추진내용 정리, pp. 81-164.

2) 지자체 차원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 사업

지자체의 청소년체험활동은 직접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하여 계획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지자체별 시행계획에 제시된 지자체별 지역사회 체험활동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은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마련, 부산은 저소득층 청소년 토요일문화학습장 운영,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육성 우수프로그램 지원, 대구는 청소년 대구출판 운영,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인천은 청소년의 참여기구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광주는 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조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대전은 위캔(We Can)센터 준공 및 관리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울산은 청소년비전박람회 개최,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 세종은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유아·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강화, 경기도는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청년 취·창업 지원, 강원은 특정분야에 우수한 자질을 갖춘 미래인재 발굴 육성 지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청소년쉼터(5개소)운영, 충북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도내대학 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충남은 주 5일제 주말체험운영, 진로멘토링 100인 100색, 전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14개 시·군센터),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 폭력예방교육, 전남은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경북은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 경남은 지자체·학교와 지역사회 공동 청소년 돌봄서비스 시행, 청소년 전용공간 활용을 위한 수련시설 신규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 제주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15c).

표 II-16 지자체별 지역사회 체험활동 지원 사업 현황

지역	사업 주요내용
서울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관(시립 21개소) 운영, 청소년특화시설(7개소) 운영 문화존 및 동아리 등,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마련: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가출청소년 쉼터 확대. 학교밖 청소년 지원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17개 사업)
부산	저소득층 청소년 토요일문화학습장 운영, 제3회 청소년 WITH 축제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찾아가는 어울림마당 포함)운영,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육성 우수프로그램 지원, 학교폭력예방 회복조정센터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복교 사업 운영,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지원
대구	청소년 아코디언 하모니 '아하', 청소년 대구출판 운영, 백지 위에 그리는 꿈 토크콘서트, 대구자랑 '청소년기자단' 운영, 토요일체험프로그램 '경제야 놀자', 청소년과 인권의 어울림, 청소년 진로교육 꿈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우리마을 교육나눔',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인천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업 및 균형 있는 성장 지원, 청소년의 참여기구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의 통합 복지 및 건강 환경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광주	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조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운영, 광주청소년상상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보호관찰청소년 및 소년원출원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사업 주요내용
대전	대전청소년 위캔(We Can)센터 준공 및 관리 운영, 청소년글로벌 역량강화:5개국 7개 도시(일본,중국,베트남,러시아,미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효율적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자립자활 지원,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 예방대책 추진,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울산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비전박람회 개최,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 인터넷치유센터 운영, 태화문화의집 건립,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교육지원
세종	유아아동청소년 등 생애주기별로 미디어교육 실시,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유아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강화, 유아아동·청소년 인터넷 생활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경기	저소득층 생활학자금 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지원, 청소년 종합예술제·연극제 개최,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 지원,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청년 취창업 지원
강원	특정분야에 우수한 자질을 갖춘 미래인재 발굴 육성 지원, 방송에 대한 꿈과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GIBC) 운영, 천체관측을 통하여 별을 보며 꿈을 키울 수 있는 별자리관측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청소년쉼터(5개소) 운영, 2018동계올림픽 청소년 자원봉사자 육성, 해외(국내) 청소년들과 문화교류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
충북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도내대학 기업 멘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충남	국제청소년 자원봉사지원(베트남) 및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주 5일제 주말체험운영, 진로 멘토링 100인 100색, 고3 수험생 해피콘서트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확대, 비행청소년 예방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활동 지원
전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평가후 인센티브 부여(14개 시군센터),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청소년체험캠프 및 청소년미술경연대회 운영,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및 청소년단체 사업 지원
전남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 지원, 청소년 통합복지, 건강 환경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경북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
경남	지자체·학교와 지역사회 공동 청소년 돌봄서비스 시행, 청소년 전용공간 활용을 위한 수련시설 신규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 위기청소년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지원)
제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3개소)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1개소)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

출처: 여성가족부(2015c),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일부내용 정리, pp. 18-34.

3) 시사점

지역사회의 청소년체험활동과 관련된 국가(정부)및 지자체, 지역내 청소년관련 인프라 시설과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국내 관련 법령과 정부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체험활동의 경우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과 별도의 정부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념정리 및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체험활동의 경우 여성가족부차원에서 청소년육성정책 중 청소년활동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법을 토대로 청소년지도사라는 전문 체험활동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험활동을 위한 전문 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전국에 약 800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체험프로그램을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지역의 요구에 맞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프로그램의 안전성 및 질 제고를 위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현재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교육제도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사회 학생체험활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체계화되고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인식하고 협력자로서의 협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위해 구축되어온 프로그램, 시설, 전문인력,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영역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건 등을 통해 현장의 노력으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협업과정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운영 사례4)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진로 체험을 포함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형 교육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3년과 2014년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2014년~2015년 사이에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80개 연구학교를 포함하여 우수사례로 추천된 학교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를 비롯하여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에서 소개된 우수사례, 그리고 연구학교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희망운영학교로서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 교육활동이 우수한 운영학교의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1)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운영 유형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의 체험형·참여형 교육활동의 운영을 위해 활용한 지역 사회 기관 중 특히 청소년 관련 기관(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과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4) 본 내용은 황은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자유학기제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학교가 많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학교가 작성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MOU 체결 이후 구체적인 활동이 제시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성과를 분석할 수가 없었다.

지역사회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 및 청소년 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한 사례와 학교 중심 운영에 따른 지원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와 후자의 구분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또한 학생들이 직접 청소년기관으로 이동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와 교육활동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은 강사, 프로그램, 예산 등을 지원하는가에 따라 구분하였다.

(1)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중심의 연계 운영 사례

자유학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양질의 학교 밖 사회의 전문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교육과정 하에서는 지역 사회에 좋은 체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도, 학생들이 학교의 정해진 교육 활동 시간에 외부로 나가서 체험하기에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 경비 등 여러 가지 이유에 따른 제약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자유학기 기간에는 학교별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블록 타임 등의 유연한 시간 운영, 국가의 예산 지원 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직접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사회 공공기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 대학, 기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2015년 동안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한 프로그램 중 청소년 기관이 주체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로 유형화 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동이다. 실제 청소년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멘토, 외부의 강사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남 거제 중앙중학교의 경우에는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거제중앙중학교의 2015년 사례). 경북 선산중학교에서도 선산 청소년수련관의 협력을 통해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선산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하여 스포츠지도자, 바리스타, 로봇제작, 제방제과, 마술, 스포츠스테킹, 오리엔티어링, 뉴 스포츠 활동, 모듬북, 방송댄스 등의 진로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선산중학교의 2015년 사례). 이 외에도 경기도 분당중학교에서는 분당 서현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수련관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 분당중학교의 사례는 다음 절의 우수 사례 소개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두 번째 유형은 청소년 수련원을 활용한 진로캠프 운영이다. 진로 캠프는 하루 또는 하루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 운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과주 한빛 중학교의 경우 김포청소년 수련원 활용한 진로캠프를 운영하였고(한빛중학교의 2015년 사례). 전북김제중앙중학교의 경우에는 김제 청소년 농업체험센터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김제중앙중학교의 2015년 사례). 또한 괴산 오성중학교에서는 국립영덕청소년 해양환경체험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오성중학교의 2014년 사례). 청산중학교의 경우 수련활동과 연계한 우주과학캠프를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청산중학교의 2014년 사례). 이 외에도 충남 서면중학교에서는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의 Wee 센터 공감 힐링 캠프에 참가하는 등(서면중학교의 2014년 사례). 진로캠프의 운영 장소로 전국의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활동 시설이 활용되고 있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세 번째 유형은 진로교육 및 코칭,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다. 세종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조치원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조치원여자중학교의 2015년 사례). 충남 태안여자중학교는 태안군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하여 진로 교육 코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하였다(태안여자중학교의 2014년 사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네 번째 유형은 청소년 관련 기관의 시설 및 장소의 제공이다. 경남 거창여중에서는 거창청소년 수련원의 교육기부 및 장소지원을 바탕으로 동아리 및 예술체육 활동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로체험, 댄스, 드럼, 연극 동아리 및 예술체육 활동이 운영되었다(거창여자중학교의 2014년 사례). 또한 부평동중학교에서는 계양구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을 활용하여 학생선택프로그램의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부평동중학교의 2015년 사례). 충남 태안여자 중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 관련 공연 및 발표회를 개최하는데 태안군청소년 수련원의 시설을 활용하였다(태안여자중학교의 2014년 사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으로 태백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함태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 상담 및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함태중학교의 2014년 사례), 계양구 청소년 수련관의 ‘진로이야기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공연 개최 등의 상담 및 문화공연 제공(부평동중학교의 2015년 사례)등이 있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2)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자유학기제 활동 지원 운영 사례

앞에서 살펴본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중심의 연계 운영 사례이외에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지원하는 형태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강사, 프로그램, 예산 등을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이다. 인천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성리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직업 체험활동, 식품건강안전센터 프로그램 제공, 동아리활동을 위한 강사지원(손글씨반, 밴드반), 보유시설·인력을 활용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지원을 하였다. 또한 서울 당산중학교에서도 화곡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진로의 날 행사를 위한 강사 지원을 받아 파티쉐와 아나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외에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의 학교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태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태안여중을 대상으로 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태안여자중학교의 2015년 사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둘째, MOU체결을 통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 형태이다. 상당수의 학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을 통해 자유학기 운영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례로 부평동중학교의 경우 인천지역의 인하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 인천문화예술전문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기관 공문발송, 협약서 작성 및 협약식 준비, 협약식, 대외 홍보, 협력 우수기관 학교장 감사패 증정의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2)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우수 연계 사례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중 특히 지역사회와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운영이 우수한 네 개 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수련관 활용 “드림 스케치” 프로그램 운영 사례

경기도에 위치한 분당중학교는 분당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여 “11개의 드림 스케치” (1차), “10개의 드림 스케치” (2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학교의 교육활동 운영의 특징은 자유학

기 기간 동안의 지필고사 기간을 활용한 학교 밖 체험활동에 인근 지역사회의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다. 2015.10.5.(월)~10.7(수), 2015.12.2.(수)~12.4(금)의 총 6일간의 기간 동안 1학년 6개 학급의 학생 160명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직접 이동하여 진로특강, 직업체험, 진로멘토링의 3개 분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 동안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학교와 함께 협력적으로 교육활동을 시행하기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학교 내부에서만 일어나고 학생들이 직접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학교 내부에서 학교 밖 지역사회로 옮겨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단순 진로 체험이나 문화체험 뿐만이 아닌 진로특강, 직업체험, 진로멘토링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 점 등에서 지역 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우수 연계 사례로 볼 수 있다(분당중학교의 2015년 사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2) 지역사회(테크노밸리) 융합형 자유학기제 운영

경기도에 위치한 매송중학교는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위해 판교의 지역 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담당 교사가 지역 사회의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고,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학교에서 분석한 지역사회의 실태 특징 중 하나가 “청소년 수련원과 MOU를 체결을 통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의 직업인 멘토 섭외 및 진로 문화체험 교육기부 인적·물적 자원 지원이 용이한 점” 이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학교와 가까운 판교 청소년 수련관과 MOU를 체결하여 판교 테크노 밸리 및 판교 25통 공방의 교육 기부를 받아 17개 직업 멘토링 부스 운영과 15개 문화 진로체험을 실시하였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진로체험에서는 91개의 직업 체험을 하였다. 이 학교의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운영 상의 특징은 인근의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여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1~3일차 프로그램), 이를 바탕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교육기부와(4일차 프로그램) 판교 25통 공방의 교육기부(5일차 프로그램)를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매송중학교의 2015년 사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3) 청소년 수련관 활용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수서중학교는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근의 수서청소년 수련관 및 역삼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하였다. 정기고사 기간을 활용하여 역삼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하여 강사 및 재료비 등을 지원 받아 ‘진로야 놀자’ 라는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전일제 진로프로그램으로 역삼청소년 수련관의 생활체육 지도사와 파티쉐 직업체험을 통해 생활 생활체육지도사와 파티쉐의 직업 소개 및 체험, 멘토에 대한 인터뷰, 소감 및 체험일지 작성 등의 활동을 하였다(수서중학교의 2015년 사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4)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사례

거창여자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인근의 지역사회를 활용한 진로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거창군청, 거창지방법원, 거창기상대 등의 공공 기관을 비롯하여, 거창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들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을 운영하였다. 특히 거창청소년수련원은 동아리 및 예술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 및 교육기부를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체험뿐만 아니라 댄스, 드럼, 연극 등 청소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예술 활동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거창여자중학교의 2015년 사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3) 시사점

자유학기 운영학교의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연계 사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유학기 진로체험 및 진로캠프를 위한 자원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의 활용도가 높았다. 청소년 관련 기관은 청소년에게 특화된 수련시설, 체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장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자유학기 운영학교의 지역청소년기관 연계 사례분석 결과,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진로체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예술체육이나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유학기제와 별개로 청소년 수련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자원이 다양함을 고려할 때, 청소년 수련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특화시켜 반드시 진로체험이 아니라도 문화예술체육 관련 학생 체험의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자유학기제 지원에서 지역사회 기관 중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을 특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동안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학교에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체험, 학생들의 교과관련 체험 이외에도 상당히 폭 넓은 지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수련기관의

문화·예술 공연 제공, 진로콘서트 개최 등의 프로그램은 자유학기를 넘어 일반학기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과 학교의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자유학기의 일반학기 연계를 위한 연계연구학교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일반학기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역사회 기관으로의 이동상의 어려움이다. 앞서 사례에 제시한 수서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운영 및 개선 방향에 관한 학생용 설문조사 문항 중, 본교에서 진행한 자유학기제 진로직업프로그램 중 어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문항에 1순위가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17.4%), 2순위가 “역삼청소년수련관 진로체험” (16.6%)으로 조사될 만큼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았다(수서중학교의 2015년 사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반면, 이동상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수서중학교의 2015년 사례). 청소년 수련관과의 연계가 우수하게 이루어진 중학교의 경우, 전세버스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인근 수련관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수련관의 버스 운영 지원, 시도 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체험 지원 버스 운영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업무 협약 체결 이후의 실질적인 협업 체제 운영을 통한 공동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관련 기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학교의 청소년 관련 기관의 직접 방문 및 체험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⁵⁾

관련 선행연구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 직업체험, 청소년활동,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연구(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성은모, 2013; 김현철 외, 2012; 안선영, 최창욱, 2011)에서 제시되어 왔듯이,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과 연계방안, 자유학기제와

5) 본 내용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방안 등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며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와 청소년시설 현장의 실질적인 연계 운영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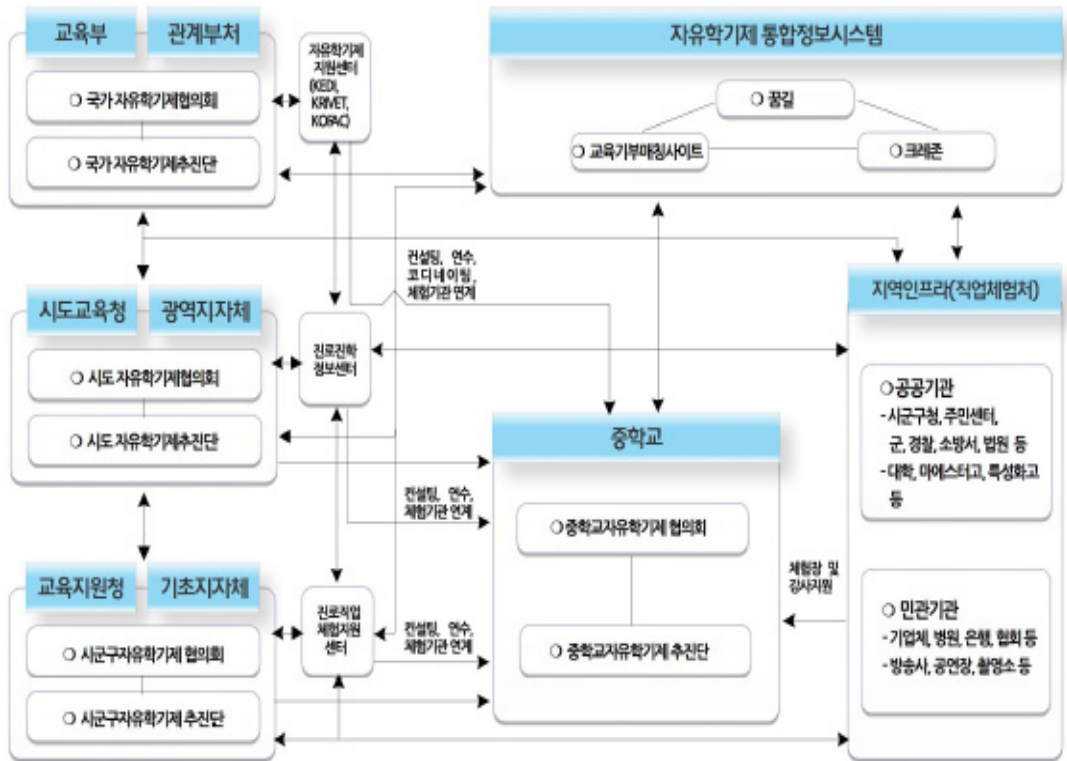
기존 연구들은 자유학기제 운영모형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등(최상덕, 이상은, 김은영 외, 2015), 지역 유형별 체험 인프라 확충모형(자립형, 연계형, 지원형), 체험인프라와 대도시 인접성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등(장현진, 정운경, 김나라 외, 2014), 학교-지역사회 연계모형 개발 및 활성화방안으로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진로교육의 내실화 방안(김위정, 임지선, 임병호, 2015) 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체험기관을 발굴하여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발굴하고 구축한 지역 체험 인프라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학기 동안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특기적성 소질개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체험처와 상호 이해와 배려를 전제로 어떤 방식으로 연계협력,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지속적인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임지연, 2015). 지금까지 이슈가 되었던 체험인프라 확대 및 구축에서 그 방향과 내용이 자유학기제 전면확대 이후의 중장기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학교와 체험처 관리 및 상호 지속가능한 연계를 할 수 있는 운영방안 연구가 필수적이다.

교육부(2015.11.25.)의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은 학생중심, 참여와 활동중심, 과정중심평가로서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활동)을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편성, 능동적 자기주도학습 경험제공, 참여 및 협력정도, 열성, 특별한 활동 내영 등을 평가, 학생의 꿈끼 관련된 활동 내역 위주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2015.11.25.)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 운영모형(예시)은 체험 방식(간접체험, 직접체험), 체험 기간(단기간, 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인식, 탐색, 체험)로 균형 있게 편성하되, 직접체험 위주의 진로체험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꿈끼 탐색지원을 위한 자유학기 활동으로 진로탐색활동으로 진로상담 및 다양한 진로검사를 활용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체험처에서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학교별로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11.25.).

서우석, 정철영, 이종범, 이순옥(2014)의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공동체 연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교육공동체 구성안을 만들고 지역인프라 연계모형, 지역인프라 구축절차 모형, 지역인프라 구축 세부절차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각 차원의 교육공동체와 실무센터

가 자유학기제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어떻게 지역인프라(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연계하고 활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위학교 차원에 이르기까지 자유학기제협의회와 자유학기제추진단이 있고, 단위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차원에 자유학기제 실제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이 있다. 실무기관은 중앙정부의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진로장학정보센터,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자유학기제추진단에서 결정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서우석 외, 2014).



출처: 서우석, 정철영, 이종범, 이순옥(2014).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및 지역인프라 연계방안. p.240.

【그림 -1】 자유학기제 교육공동체와 지역인프라 연계모형

그동안 2016년 전면 확대 실시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자유학기제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임지연 외, 2014; 정영근 외, 2014; 장현진, 정윤경 외, 2014; 최상덕, 이상은, 김은영 외, 2015), 지역인프라 연계방안(김위정 외, 2015; 서우석 외, 2014), 자유학기제 학생체험인프라

확충방안(장현진 외, 2014),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방안연구(최상덕 외, 2015) 등의 연구물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물들의 초점은 학교입장에서 학교가 지역체험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인프라구축 및 연계방안, 또는 학교가 자유학기제의 영역 중에서 교과활동, 교내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이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연구(임지연 외, 2014; 최창욱, 송병국, 김혁진, 2009)는 드물다. 더 나아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를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입장에서의 기존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상호 연계할 있도록 운영계획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시점은 전면시행이라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보다는 현실행하는 단계임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 시군구의 청소년활동정책과 자유학기제에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특징은 지역사회에서 자유학기 연계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학교가 청소년시설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단위 시설과 단위 학교 차원의 연계 운영방안과 지원정책 개발로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는 학교 입장에서의 지역인프라 구축 및 연계방안 중심이었으나,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입장에서 학교 자유학기제와 지속가능한 연계 운영방안과 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다. 둘째, 그동안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기초지자체 차원의 실무기관 지원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단위학교와 지역시설 차원에서의 운영 실무담당자를 지원하는 상호 연계운영방안과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연구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표 II-17 주요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연구제목 및 연구기관	연구목적 및 조사내용
<p>본 연구</p> <p>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의 지속 가능한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체험활동 자원을 자유학기제와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성공적인 핵심요인을 포함하는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확대와 함께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지원하고자 함. ■ 연구방법: 문헌연구, 현장사례조사, 자료분석, 개별심층면담.

연구제목 및 연구기관	연구목적 및 조사내용
	<p>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 학교, 이해관련자 ■ 본 연구의 차별성: 첫째, 기존 연구는 학교 입장에서의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연계방안 중심이었으나,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입장에서 학교 자유학기제와 지속가능한 연계 운영방안을 제시한 점임. 둘째, 그동안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기초지자체 차원의 실무기관 지원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단위학교와 단위지역시설 차원에서 실무자의 실행을 지원하는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p>서우석, 정철영, 이종범, 이순옥(2014).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및 지역인프라 연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경인교육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및 지역인프라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 연계실태 분석: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사례연구 보고서 분석, 현장면담조사 ■ 연계 우수사례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국내는 대구(우리마을 교육공동체), 서울(청진기사업), 부산과 경기도(교육공동체), 천내중학교(자유학기제 후원단) 분석 ■ 연계방안 : 자유학기제 교육공동체 구성안, 지역인프라 연계모형, 지역인프라 구축절차 모형, 지역인프라 구축 세부절차모형 ■ 연구방법: 문헌고찰, 내용분석, 전문가협의회
<p>장현진, 정윤경, 김나라, 임건주(2014). 자유학기제 학생체험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체험 인프라의 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조사대상: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선도교육지원청 담당자 ■ 연구방법: 문헌고찰, 내용분석, FGI, 현장방문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 주요내용: 체험관련 선행연구 고찰, 체험인프라 현황파악, 체험인프라 실태 및 사례분석, 체험인프라 확충 요구분석, 체험인프라 확충방안 도출 ■ 지역 유형별 체험 인프라 확충모형(자립형, 연계형, 지원형), 체험인프라와 대도시 인접성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등
<p>최상덕, 이상은, 김은영, 신철균, 황은희 외(2015).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첫째,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앞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모형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마련, 둘째, 자유학기제의 전면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 셋째, 전면확대 시행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추진전략과 추진방안, 추진로드맵을 제시하고자함. ■ 설문조사: 확대방안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 ■ 델파이조사: 해결과제에 대한 전문가의견 수렴 ■ FGI : 자유학기제 운영실태 파악 위해 10여개 연구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연구제목 및 연구기관	연구목적 및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협의회 및 워크숍
<p>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이상은, 김은영(2014). 자유학기제 운영종합매뉴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목적: 본 매뉴얼은 선행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자유학기제 운영 시 방향과 유의점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임.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단위학교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면 되며, 현장 자유학기제 인식제고와 실행 안내서를 개발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정책방향, 운영체제 및 운영방안, 운영절차, 학교 지역별규모별 운영모델의 특징 및 사례 ■ 운영모델: 도시·대규모형 운영모델, 읍면·소규모형 운영모델, 도시·소규모형 운영모델, 읍면·대규모형 운영모델의 특징, 유의점, 예시안을 제시함.
<p>김위정, 임지선, 임병호(2015).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의 실태와 구성원들의 요구, 과제를 파악하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실태,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및 기대,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 학교-지역사회 연계모형 개발 및 운영방안,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방안, 진로교육의 내실화 방안 ■ 연구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담조사, 사례조사 ■ 연계모형 개발 및 운영방안: 실무센터 운영주체에 따라 연계모형을 5개 모형(청소년수련관내 센터운영, 민간비영리단체 위탁공모 운영, 교육청 주도 모형, 지자체-교육청 협력사업(마을교육공동체)센터 내 운영, 지자체 직영)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함.
<p>최창욱, 송병국, 김혁진 (200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학교 교육정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을 모색 ■ 주요내용: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현황, 학교연계 실태와 문제점, 주요 교육정책 분석 및 연계 시사점,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와 학교의 연계방안(연계 기반의 구축방향, 연계유형분석과 과제개발모형, 연계협력 추진과제) ■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포럼, 정책협의회
<p>김승보, 장주희, 장현진, 김기현 (2014).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2014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확대 및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험인프라 활용 현황 분석 및 체험인프라의 체계적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 주요내용: 체험활동 인프라 요구분석, 체험활동 관련 예산 및 사업 현황과 과제,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 및 인력 현황과 과제, 체험처 개발 사례분석 및 운영모형, 체험 인프라 구축 방안
<p>김현철 외(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운영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정책

연구제목 및 연구기관	연구목적 및 조사내용
<p>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	<p>대안을 제시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방법: 문헌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운영 ■ 주요내용: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태 조사, 지역사회연계 청소년체험활동 사례조사,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모형 개발
<p>임지연,김정주,김정숙(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방안의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를 조사하여 실효성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함. ■ 연구방법: 문헌분석, 전문가자문, 면담조사, 설문조사, 정책 세미나 ■ 주요내용: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의미파악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의 면담조사 결과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정책방안으로 11개의 우선순위 정책과제와 세부내용을 제시함.

제 Ⅲ 장

질적·양적 조사결과 및 시사점

1. 현장 사례조사 결과분석
2.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계 실증적 자료 분석
3. 면담조사 결과분석 : 연계 운영방안
개발
4.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 III 장

질적·양적 조사결과 및 시사점

1. 현장 사례조사 결과분석⁶⁾

1) 사례조사 개요 및 분석방법

(1) 사례연구의 의미

Yin(2003: 1)에 의하면 사례연구(case study)는 “언제, 어떻게, 혹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연구자가 탐구대상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실제 현실의 구체적인 현상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목적으로 할 때 적합한 전략” 이다. 사례연구 방법은 연구대상이 존재하는 맥락적 조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에서는 모든 사회현상은 언제나 맥락적이며, 그 맥락으로부터 현상을 분리해내면 본래 탐구하려는 현상의 의미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맥락으로부터 현상을 분리해 내기보다, 맥락과 현상을 전체적 탐구대상으로 간주하고 접근한다.

사례란 분명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서 사람, 프로그램, 기관, 사건 등 다양한 층위에서 사례의 선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는 현상의 맥락적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연구를 통해서 일반화 가능한 지식과 정보를 산출하기보다,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지식과 정보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례연구는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추론을 시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자체로 연구의 관심인 대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Merriam, 1998).

6) 본 내용은 김한별(교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가 집필하였음.

(2) 사례연구 방법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사례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 방법을 시도하는 까닭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한 지역사회 체험활동 양상이 대체로 기관이 처한 지역, 기관의 특성, 사업실행의 배경 등과 같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한 경험의 의미는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맥락과 함께 결부된 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종의 기준에 의해서 기관의 경험을 분절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Merriam(1998: 19)이 지적하였듯이 연구의 대상이 모종의 성과나 결과물이 아니라, 행위의 과정일 때, 특정한 변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 주목할 때, 그리고 확인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탐색일 때 “사례연구 방법이 적절하다는 점도 사례연구 방법이 본 연구와 관련될 수 있는 타당한 전략임을 뒷받침해준다. 즉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첫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지역사회 체험활동 운영과정이란 점에서, 둘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모종의 변인으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셋째,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각 기관의 체험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탐색한다는 점에서 사례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사례연구 대상 기관들의 현재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활동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에 대해 생생하고 심층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시급하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시사점들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례연구 방법의 실행

① 조사대상 및 선정근거

본 사례조사를 위하여 연계운영 방식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활용한 운영방식, 공모사업을 활용한 운영방식, 자체사업 운영방식, 학교 입장에서의 운영방식으로 구분하여서 각 유형별로 2개씩의 사례를 선정하여 총 8개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6개의 청소년 기관과 2개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사례선정의 근거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점을 둔 운영방식 별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관이 여러 운영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특정 운영방식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선정하였다. 네 가지 운영방식 유형으로 제시한 사례선정의 근거는 문헌고찰과 전문가협의, 현장면담 결과, 현재 자유학기제를 통한 연계운영의 중점 방식으로 판단된 것이다.

사례조사 참여 기관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참여 기관 및 담당자의 섭외를 위하여 먼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활동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청소년 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문헌 자료 검토와 전문가협의를 거쳐서 연구책임자가 직접 접촉하였다. 연구책임자는 청소년 기관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참여자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참여를 부탁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를 수락한 8개 기관을 최종적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본 사례조사 참여를 수락한 기관 담당자에게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한 각 기관의 구체적 현황과 담당자 의견을 기술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III-1 **현장 사례조사 참여기관**

구분 (중점을 둔 운영방식)		조사기관	지역
진로직업체험센터		중구청소년수련관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서울
		스스로넷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용산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서울
청소년 수련관	공모사업 유형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부산
		사북청소년장학센터	강원(정선)
	자체사업 유형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충남(아산)
		마천청소년수련관	서울
학교		신길중학교	경기(안산)
		사북중학교	강원(정선)

※ 구분은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점을 둔 운영방식 별로 선정한 것임. 조사기관이 여러 운영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양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특정 운영방식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조사하였음.

※ 운영방식 유형으로 제시한 근거는 문헌고찰과 전문가협의 결과, 현재 자유학기제를 통한 연계운영의 중점 방식으로 판단된 것임.

② 자료수집

본 사례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사례발표 워크숍(1-4차)을 개최한 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과 연구진에서 사전에 요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사례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담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사업운영 유형별 2개 기관 담당자와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세 차례의 초점집단면담은 모두 서울시에 위치해 있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면담의 일시는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용유형 4월 8일, 공모사업 유형 4월 12일, 그리고 자체사업유형 4월 14일, 학교 입장에서 운영유형 4월 15일이었다. 각 면담 시간은 약 4시간 정도였으며, 면담의 진행은 각 기관이 자신들의 사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난 후, 연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 기관 담당자들은 프로그램의 개요,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의 취지와 실제, 현장의 담당자로서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에 관한 개인적 의견, 각종 애로사항 및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하였다.

참여자와 연구진과의 면담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아울러서 연구보조원 1인이 면담내용을 기록하였다. 현장에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녹음한 내용을 보완,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례유형별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청소년시설 및 학교의 사례 분석결과 : 연계 운영과정

□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활용한 자유학기제 사업 운영 유형

(1) 운영과정 분석

①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의 배경

○ 중구청소년수련관(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3년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센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진로탐색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가 결합된 서울형

자유학기제에 의해서 다양한 진로교육사업을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자유학기제 활동 가운데 필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체험 활동을 계획,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이처럼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모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청소년수련관 차원에서는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포함한 자유학기제의 4가지 활동, 즉 선택형 프로그램, 동아리, 진로직업체험, 예술·체육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 스스로넷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용산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스스로넷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서울시 교육청과 용산구가 대응 투자하여 설립한 용산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미래야’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센터의 한 개 팀으로서 ‘미래야’는 관내 청소년 진로체험교육활동 운영 및 지원을 핵심 사업으로 한다. 즉 중구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 차원에서 제시한 자유학기제 관련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특히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 청소년의 요구 및 학교, 지자체가 갖는 관심에 따라서 ‘미래야’를 운영하고 있었다.

② 학교와의 연계과정

○ 중구청소년수련관(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관내 중학교의 진로상담교사들을 중심으로 진로교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진로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을 협의하였으며,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실행하였다. 진로교사 협의체는 학교와 센터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지원체제로서 센터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에 관한 요구를 확인하며, 학교의 진로상담교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관련한 학생들의 요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러한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센터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사항은 학교와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체험처의 발굴과 학교와 지역사회 체험처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장체험 활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센터의 역할은 학교와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체험처와의 관계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 스스로넷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용산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 속해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청진기(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 프로그램을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미디어센터는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직업 체험처를 발굴하여 이들 기관들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킹 업무를 제일의 업무로 담당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이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머무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은 진로배움터로서 지역사회 체험처와 진로배움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간 적절한 연결을 돕는 네트워킹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킹을 위해서 미디어센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중학교 진로상담교사들과 함께 진로교사 간담회를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체험활동 내용과 방법, 즉 관심있는 직업군을 파악하며, 학교의 연간교육계획에 진로직업체험활동이 녹아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진로직업 체험활동 공간인 체험처와 담당 직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체험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③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 중구청소년수련관(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 활동은 실제 직업현장에서 1일 4시간 이상으로 전일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며, 이는 중구진로직업체험센터의 중점사업이다. 중구진로직업체험센터는 지역의 체험처를 발굴하여 이들을 학교의 요구와 연결해주고, 체험활동의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진로직업체험 활동의 유형은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험하는 활동(40%)이 있으며, 직업인과의 만남, 직업이해 등과 같은 학교시설을 이용한 간접적 체험을 하는 활동(60%)으로 대별된다. 학생들은 현장에 나가는 것을 주로 선호하는 편이지만,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관리와 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학교와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체험처를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체험처

의 질적 수준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험처는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교육적 경험을 담보할 수 있는 체험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왜냐하면, 체험처의 여건이나 규모, 체험처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업인의 교육자로서 역량과 자질 등 모든 요소를 안정적으로 구비하는 체험처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센터의 담당자는 이 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편,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양질의 체험처를 발굴하고 일터 멘토(일터 종사자)의 교육역량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인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적자원 측면에 있어서 중구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부모진로코치단을 구성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진로지도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부모진로코치단으로 활동하면서 학부모들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진로조사 활동 및 거리 진로상담, 지역축제에서 진로탐색 놀이 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중구진로직업체험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교 사업으로 추진해가는 시도가 학생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직업체험에 대한 준비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며, 진로직업체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체험활동으로 승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스스로넷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용산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외부환경의 변화, 즉 중학교 시기에 있어서 진로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학교와 교육청이 미디어센터에게 진로체험 활동 운영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한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직업체험 활동은 진로특강, 직업인과의 만남과 같은 학교파견형 활동, 전일제로 운영하는 현장직업체험형 활동, 자유학기제 활동 중 하나인 선택프로그램 지원 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자유학기제라는 커다란 틀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학사일정의 틀 안에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 실행 과정에서 미디어센터 내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교가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사실 미디어센터는 진로직업체험 활동에 대한 학교교사들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보기에 학교교사들은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위탁하고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느껴지는 요구를 제기하기만 할 뿐, 동반자로서 함께 협의하고 이해하며,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와 진로직업 체험기관 사이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어센터는 체험 기관의 전문 직업인들에 대한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하여 현장체험활동이 교육적으로 의미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전문직업인은 본래 그 직종의 종사자이지, 누군가의 교육자로서 경험이 충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느꼈다. 따라서 직업멘토 간담회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장체험 활동을 실제로 운영하는 직업인들의 요구 - 일터 자체의 바쁜 일정과 여건에 맞는 체험활동 규모와 내용, 방법의 조정 - 를 파악하였다. 현장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진로코치지원단을 조직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서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체 시설과 여건을 이용하여 진로동아리 및 소그룹 진로체험활동도 지원하기도 하였다.

(2) 효과성 분석

① 긍정적 측면

○ 중구청청소년수련관(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구진로직업체험센터는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의 성숙이라는 본래의 취지도 잘 살릴 수 있었지만,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지적하였다. 즉 마을을 알아가는 청소년의 변화 가운데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이웃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스스로넷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용산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자유학기제가 진로교육과 동의어는 결코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진로교육 및 활동을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취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볼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한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특히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예산 자체가 진로교육 및 체험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로교육 중심의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의 효과적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설치하고 미디어센터에 위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와 학부모, 청소년의 신뢰수준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부정적 측면

○ 중구청청소년수련관(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활용하는 유형은 자유학기제의 영역을 모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개발을 돕는 직업체험 활동에 집중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진로교육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유학기제가 갖는 다양한 가능성을 오직 진로직업 영역에 국한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본래 의미를 축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 스스로넷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용산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집중하여 운영하다보니 센터에서 감당할 프로그램과 활동이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어려웠으며, 자유학기제 운영시기가 학교별로 적절히 분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장직업체험처의 발굴이 일상에 밀접한 지역사회 일터보다는 공공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참여 학생의 규모도 중규모 이상을 요구하는 일터가 많아서 이들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 청소년 수련관 : 공모사업을 통한 자유학기제 사업 운영 유형

(1) 운영과정 분석

①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의 배경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은 지역내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담당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초 청소년수련관은 기관의 자체사업 형태로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수련관의 특성상 기존의 사업운영비 이외의 별도 사업비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이용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사북청소년장학센터가 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사업의 실행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일회적, 형식적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연속성을 갖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으며,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비용 경감이라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학교 연계 구조를 통하여 개별적인 프로그램 참여 형태에서 탈락할 수 있는 지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안정적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할 수 있었다.

② 학교와의 연계과정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은 공모사업 선정이후 지역 내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연계를 실시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학교의 학사일정과 조율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를 포기하고 인근의 재송여자중학교를 새롭게 접촉하여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0회기로 계획한 프로그램을 학교의 학사일정과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8회기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사북청소년장학센터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구상하던 가운데 연계학교인 사북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이용한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을 의뢰받게 된다. 이는 장학센터가 강원도 정선군 관내에서 사실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도 작용하였다. 학교의 의뢰를 받아서

사북중학교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센터의 담당자들과 학교의 진로부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협의를 하여 직업군과 체험처의 선정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③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였던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적으로 적절한 직업 및 진로체험처 발굴 문제이다. 직업 및 진로체험의 특성상 교육담당자가 주로 교육자로서 경험이 부족한, 전문 직업인이었기 때문에 교육활동으로서 청소년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업, 진로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해당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소하는 부분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수련관은 체험처 현장을 사전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여건 및 안전시설 구비여부를 확인하면서 체험처를 발굴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체험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이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은 직업 및 진로체험이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련관은 학생들이 체험처를 방문하기 이전에 해당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팀 형태로 하여 직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체험처에서 만나는 직업인과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미리 인터뷰 질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제한된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체험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아울러서 방문하는 학생규모를 가능한 6명 내외의 소수로 구성함으로써 제한된 시간 안에 직업에 대한 심도있는 경험을 접하고 그에 대한 성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다.

셋째,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군에 대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였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직업체험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실시한 청소년 요구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직업군과 체험활동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방식 및 이색 직업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현장을 발굴하였다.

○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운영한 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주목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다. 운영위원회는 사북청소년장학센터의 담당자, 학교의 담당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체험기관장 2인까지 포함한, 사실상의 자유학기제 사업 실행과 관련되는 지역의 모든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협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본래의 계획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안전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며, 체험기관의 요구와 학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간의 협상과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는 학교, 체험처, 학생 - 학부모 포함 -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사북청소년장학센터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다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한다. 장학센터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형식을 크게 직업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 학생들이 체험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는 형태, 그리고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동아리별로 직업 전문가와 청소년지도사가 연결되어 동아리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형태로 입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덧붙여서 개별 청소년들이 표현하는 진로상담 요구에 대응하여 교사와 청소년상담사들을 중심으로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효과성 분석

① 긍정적 측면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공모사업의 특성상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전 및 현장컨설팅은 기관의 사업실행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컨설팅을 통하여 제공받게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은 그 자체로 수련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더 배가할 수 있는 학습기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사북청소년장학센터는 자체사업 형태로 시작하다가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공모사업은 장학센터의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심화를 가능하게 한 촉매제가 되었다. 아울러서 공모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특히 장학센터가 자리잡고 있는 정선군처럼 농,산,어촌 지역의 청소년 시설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자칫 수익성에 매몰되어 의미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사업 유형의 사업실행이 유익하다.

② 부정적 측면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공모사업의 형태로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학교의 교육과정 시기와 공모사업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 처리시기가 불일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학교의 학기는 2월말까지이지만, 공모사업에서 요구하는 예산집행 및 정산은 11월말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관에서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 이러한 불가피한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교부 및 집행, 그리고 정산의 시기와 기간을 학교 교육과정 시기와 연동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북청소년장학센터

해운대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로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역시 공모사업 추진기간과 학교의 학사일정간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장학센터의 경우 특히 공모사업의 예산이 교부되기도 전에 학교의 학사일정 상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었다.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을 경우에 부딪힐 수 있는 딜레마가 학교와 센터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의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실제 운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집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 수련관 : 자체사업으로서 자유학기제 사업 운영 유형

(1) 운영과정 분석

①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의 배경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자체 교육사업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즉 자유학기제 실시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직업체험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체험교육 콘텐츠 및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센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와 연동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였다.

○ 마천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 역시 수련관 자체의 프로그램과 예산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체사업 유형의 기관이다. 수련관은 공모사업 형태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기관의 독립성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 신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체사업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요자들이 지불하는 참가비용이 프로그램 운영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이 점에서 요긴한 사업구조가 된다.

② 학교와의 연계과정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학교와 연계하는 과정에는 센터의 독특한 조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센터는 아산시가 건립하여 순천향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아산시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연 20억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행, 재정적 지원까지 함께 제공받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교육지원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와 연계하는 작업 역시 교육지원청의 안내와 지원을 토대로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나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의 연계과정에 있어서 센터는 학교협력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학교협력관은 센터와 일선 학교간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센터는 퇴직교장을 학교협력관으로 배치함으로써 학교와의 소통과 의견조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센터에 대한 학교의 인식개선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 마천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학교와의 연계를 추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시도한 작업은 학교연계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여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홍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간 2차례 정도 학교연계 관련 회의를 가짐으로써 학교의 요구와 수련관이 시도하는 교육사업에 대한 양자의 의견조율을 하였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자격증 취득형 진로프로그램과 청소년 시민교육, 체험활동 등의 영역에서 자유학기제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사업유형의 특성상 수련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관의 정체성과 철학을 반영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나, 다만 수련관의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당 학교들이 학생을 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교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은 쉽지 않으며, 담당자는 자체 사업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와의 지속가능한 연계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③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인 청소년진로멘토링 100인100색 은 3단계로 운영되었다. 우선 관내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하고, 사업신청에 관한 공문을 각 학교로 발송한다. 학교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신청서를 수합하여 센터에 접수하여 참여 학생들을 확보하였다.

청소년진로멘토링 100인100색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1단계는 직업설명회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활동이다. 직업설명회는 주로 전문직업인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특강 형태로 이루어졌다.

2단계는 진로간담회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수준을 명확히 한 청소년들을 학교와 상관없이 센터에서 공개모집하여 이들에 대한 진로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진로간담회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개인적 관심과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3단계는 직업현장체험으로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군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는 활동이다. 현장 체험처에서 진행되는 현장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각자가 관심을 갖는 직업진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진로의식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었다.

3단계의 프로그램 진행과 아울러서 센터는 청소년들의 역량개발 및 진로성숙도 개선을 위하여 재능나눔 형태로 참여하는 진로멘토 풀(Pool)을 구성, 관리하고 있다. 진로멘토는 주로 학교에 찾아가 진로특강과 같은 강연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관심에 따른 개별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센터는 진로멘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진로멘토의 발굴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 마천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은 관내 6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의 송파구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다보니 관내 많은 학교들이 교육복지투자특별지원 사업 대상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문에 이미 수련관과 학교는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수련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은 주로 진로직업체험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수련시설들과 달리, 진로유형과 성향이 서로 다른 청소년들에게 흥미위주의 체험활동 중심이 아닌, 직업과 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성찰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목하였다. 수련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체사업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진로직업체험을 포함하여, 시민교육, 환경교육, 지역사회이해교육 등 보다 포괄적인 내용의 교육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수련관 자체의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공간은 수련관 보다는 학교나 지역사회 내 독립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수준의 확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평가를

설문조사, 인터뷰, 모니터링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직업체험의 내용 및 체험처 등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해갔다.

(2) 효과성 분석

① 긍정적 측면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사례가 제기하는 첫 번째 긍정적 시사점은 학교협력관을 배치하여 학교와 센터간의 지속적인 관계와 소통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학생들의 차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기보다 단계별로 구분하여 전문직업인들의 강의를 통해서 해당 직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교육지원청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센터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동시에, 단위 학교와의 소통과 조율과정에 있어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학교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안내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센터에 추천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효과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정량적 평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소감문의 작성 및 검토를 통한 정성적 평가까지 함께 시행하였다는 점은 센터의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 운영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천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성과의 첫 번째 긍정적 측면은 자체사업 형태로 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수련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수련관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협력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공모사업과 같은 외부지원 형태보다 수련관의 독립적 역량을 발전할 수 있었다. 공모사업의 경우,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는 가능하지만, 공모사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련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었다.

둘째, 학교와 연계함으로써 자체사업 유형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문제점, 즉 안정적인 참여자 확보가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공모사업과 상관없이 운영해야 하며, 기관의 기본적 운영예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요구를 유심히 들려주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강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수험료를 지불하도록 하며, 저소득층 아동들은 낙인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수련관과 담당자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② 부정적 측면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자체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참여자 확보를 위하여 학교 교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즉, 센터는 자체사업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사례로서 개별 단위학교와 센터간의 1:1 협약을 통하여 운영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센터에서 마련해놓은 자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학교의 담당교사에 주로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학교의 담당교사가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전달하기 때문에 학교, 특히 담당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 마천청소년수련관

자체사업 형태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인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전문직업체험이 가능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지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은 수련관 담당자들의 안정적인 활동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련관에서 학교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련관의 노력이 특히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련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흥미가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각 일선 학교 진로상담 담당교사와만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 및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 역시 부정적인 운영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 학교의 자유학기제 사업 운영

(1) 운영과정 분석

①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의 배경

○ 신길중학교

신길중학교는 경기도 안산시 외곽의 택지개발지구에 개교한 학교이다. 신길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사업이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그 운영과정 및 성과도 학교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이나, 인적자원 만으로 효과적인 자유학기제 사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가 갖지 못한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학교교육 정책으로서 자유학기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서 지역사회 체험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 사북중학교

사북중학교는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진로체험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하여 지역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사업으로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정선군교육지원청과 함께 '다양JOB色'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장학센터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의 주된 역할을 맡으며, 사북중학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공간과 자원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관으로 참여하는 약 20여개 정도의 지역의 기관 및 사업장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로탐색교육을 실시하였다.

② 지역사회와의 연계과정

○ 신길중학교

신길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활동을 계획하였다. 처음 자유학기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사회의 특정 기관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사회 자체를 청소년들의 배움터로 삼고자 다양한 체험활동과 기회를 탐색하였다. 학부모지원단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자유학기제 교육활동의 실제 운영과 성과관리는 모두 학교의 몫이었다.

그러다가 자유학기제 2년 차부터 신길중학교는 사회의 청소년 시설등과의 협력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학교가 주도권을 갖되, 실제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역사회 체험처 관리는 사회 청소년 시설에 위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 청소년 시설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최대한 연관될 수 있도록 검토, 조정된 후에 실시하였던 것이다. 신길중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원만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간의 의견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사북중학교

사북중학교의 사회 연계는 먼저 학교가 지역에 있는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게 학생들을 위한 진로직업체험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장학센터가 주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관리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루어졌다. 물론 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교가 완전히 장학센터에 위임한 것은 아니다. 사북중학교는 장학센터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하면서 학교의 요구, 학생들의 요구, 그리고 교육과정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도왔으며, 동시에 장학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서 파악해갈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사북청소년장학센터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장소가 될 수 있는 지역내 시설과 단체를 지속적으로 섭외하고, 적절한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업무협약을 맺어 나갔다. 아울러서 장학센터는 진로탐색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안전에 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사북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학교의 예산뿐만 아니라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여성가족부

공모지원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예산과 인력과 합하여 원활한 진로직업체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③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 신길중학교

신길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현장진로직업체험활동이었다.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위하여 지역에서 발굴할 수 있는 체험처를 유치하였다. 그러나 신길중학교 사례에서는 진로직업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예체능 프로그램이나 선택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이와 연동하는 교사의 수업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이 강조되었다. 즉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교의 관점에서 계획, 운영되다보니 체험위주의 활동에 대해서만 주목하기 보다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신길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제1의 관건은 프로그램 내용과 목적이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 운영하기보다 학교의 자유학기제 사업 담당교사와 기관의 담당자, 프로그램 강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중학교 1학년 전체 교육과정이라는 틀에 따라 조정하고 수용여부를 판단하였다.

신길중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신길중학교 사례에서 학부모지원단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같은 존재로서 학교가 주관하여 자유학기제 사업을 실시하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토록 학부모지원단이 중요한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역에서 학교의 교사들이 갖는 상대적 약점, 지역내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지원단은 신길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지역사회의 직업 체험처를 발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학부모지원단은 현장체험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질 수 있는지 체험처의 여건과 환경에 대한 확인활동을 담당하였으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조자료의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 사북중학교

강원도 정선의 사북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2학년 1학기로 하여 실제로 운영하였다. 먼저 이에 해당하는 65명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3시간씩 사전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직업현장의 종사자들이자, 추후 이어질 현장 직업체험을 이끌어줄 직업 전문가 멘토들이 진행하는 특별강의를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사전정보 획득 및 심리적 준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전 진로교육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체험할 직업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체험활동에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학습할 수 있었다.

사전 진로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제 현장 직업 체험을 하였는데, 학생들이 희망하는 체험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각 직업군으로 3-4명씩 체험팀을 배정하였다. 배정된 체험팀은 두 차례의 직업체험을 실시하고, 다시 체험하고 싶은 직업에 대한 희망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체험팀을 조직,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장 직업체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진로캠프를 열어서 체험을 통해서 보고 들은바, 그리고 느낀 바를 공유하는 발표회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의 체험이 단순한 체험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의식을 성숙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사북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도 학부모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학부모지원단은 학교에서 실시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연수를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부모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학생들의 현장 직업체험 때 함께 참여하여 안전지도 및 인솔을 맡는 것이었으며, 직업체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인력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체험처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체험활동이 당초의 계획에 따라서 잘 실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로직업체험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 효과성 분석

① 긍정적 측면

○ 신길중학교

신길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사업 실재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학교의 취지와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충분히 안내를 하였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전체 틀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내실있는 자유학기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신길중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취지와 요구를 충분히 지역사회 시설 및 단체에게 안내하고 소통하였던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 기관은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계획되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학교가 이러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사업이 본래 취지, 즉 공교육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북중학교

사북중학교와 사북청소년장학센터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는 본 사례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기관은 상호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인력과 예산을 함께 공유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의 진행에 있어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갔는데,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장학센터, 그리고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학교와 장학센터, 그리고 지역의 참여기관 등이 벌이는 역할의 수행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갔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의미로운 직업체험 및 진로의식의 성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② 부정적 측면

○ 신길중학교

신길중학교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사업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일일이 관리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다른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학생관리 및 사업정리를 해야하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학교의 자유학기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협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둘째, 교사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약한 편이라서 연계활동의 어려움이 있다. 교사들은 학교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안착하여 지역을 이해하

며 지역과 공조하며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역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매년 바뀌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깊이있는 참여가 어려운 구조이다.

셋째, 자유학기제 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지역사회와 갖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사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사업을 단순히 지역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교육과정과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자유학기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전체 교육과정 틀 안에서 화학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사북중학교

사북중학교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측면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활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및 예산의 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강원도 정선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학교 자체의 시설이 다른 도시지역의 학교에 비하여 열악한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희망 직업체험 요구를 일일이 반영하여 세분화된 사전교육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아울러서 학생 수가 많지 않다보니 교사 수 역시 많은 편이 아니며, 이는 결국 소수의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안내하고 관련한 제반 행정업무 처리 및 지원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학교의 부족한 여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북청소년장학센터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북청소년장학센터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북청소년장학센터가 확보한 예산은 쓰임새의 용도나 방법, 그리고 정산시기 등과 같은 사항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집행지침이 예산사용의 효율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사북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사업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고민하다보니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직업체험군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보였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지역에서 체험하기 힘든 다양한 직업진로체험을 실시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물리적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이 효과적인 진로직업체험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인근 지역에서 충분한 직업체험이 가능한 도시지역에 비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두 배 이상의 물적, 인적, 재정적 자원 투입이 필요한 사북중학교 사례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별성을 염두에 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시사점

지금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활동 사례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사항은 <표 III-2>의 표로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시사점, 즉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를 연계하여 운영, 관리하는데 중요한 핵심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III-2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운영방식 비교

경험사례 운영방식	주요특징	사업실행구조	문제점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용방식	진로직업체험활동에 특화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기관중심의 사업구조 진로직업체험이라는 주제와 학교여건의 불일치로 학교참여 제한(특강, 제한적 준비교육 수준 담당)	진로직업체험 영역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범위의 제한
공모사업을 통한 운영방식	공모사업 선정주제에 관심을 갖는 학교 참여로 프로그램 운영	사업실행의 전반에 걸친 기관의 주도성 프로그램 운영 위탁자로서 학교	공모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활용, 사업실행시기 등의 제약
자체사업을 통한 운영방식	기관의 사명, 성격, 정체성에 부합하는 주제적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실행의 전반에 걸친 기관의 주도성 기관의 프로그램 홍보, 안내자로서 학교	시설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른 프로그램 수준의 차이 참여자 모집에 대한 부담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방식	학교의 부족한 인적자원,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기관과의 협력 운영	학교차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적합한 기관 프로그램 선정 학교의 주도적 역할 강조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교사의 준비도, 관심 부족

첫째, 진로직업체험으로 오해되는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복원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활동이 곧 진로직업체험이라는 인식에 갇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유형에 상관없이 많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체험활동은 주로 진로직업체험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수업과 평가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으로 대변되는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체험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학교교육의 혁신이란 입장에서 그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사실상 자유학기제 활동과 진로직업 체험은 동의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많은 활동을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의식 개선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청소년기에 있어서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을 염두에 두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활동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업에 대한 현실적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성에 맞는 미래 진로방향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직업교육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직업현장에서 접하는 생생한 경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업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도록 돕고, 자신의 삶과 일을 연결해볼 수 있는 성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체험활동 위주로만 생각하는 학교 교사들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식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꿈끼의 탐색을 위하여 지나친 지역성 강조로 인한 교육경험의 불평등 가능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여건을 활용한 체험활동에 주목하는 현재의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들은 자칫 해당 학교와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체험의 내용과 유형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교육경험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실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지역사회 연계와 활용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학교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농촌지역의 청소년과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직업체험의 내용과 유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사와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문화적 성향, 사고방식을 발달해간 존재이므로 교사와 학생들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의 범위가 지역의 문화적 조건에 불박혀 제한된다는 점이다. 가령, 도시 지역에서 자라온 아이들에게 광부라는 직업군은 자신의 미래 진로로 생각하기 어려운 선택지이지만, 탄광지역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일 수 있다.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진로의 다양성은 경험의 양과 질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성장해 온 학생들에게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경험만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꿈꿀 수 있는 직업군의 확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기획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체험의 경험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삶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생각과 선택의 폭을 강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협치 성격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관련 주체들이 자율성을 갖되, 공동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 협력하는 것을 협치(governance)라고 한다. 자유학기제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청소년 시설과 학교간의 연계는 바로 양자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함께 자유학기제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협치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청소년 시설과 학교간의 협치 구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사례조사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른 청소년 시설과 학교간 두 가지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는 학교가 청소년 시설을 찾는 유형으로서 학교가 주도권을 갖고 학사일정에 맞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및 운영일정을 기획한 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청소년 시설에게 위탁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청소년 시설이 학교를 찾는 유형으로서 지역 청소년 시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 프로그램을 학교의 교육과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유학기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상호 충족시켜줄 때 지속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든지 청소년 시설과 학교간의 상호 신뢰와 인정 관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의 실행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자는 함께 대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과적인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 사업은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과 학교의 물리적 연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자의 공생적 배움터 구성을 지원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소질과 기를 계발하고 이들이 각자의 관심과 특성에 맞게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자유학기제 사업의 본래 취지와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배움터를 학교 울타리너머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효과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자유학기제 사업을 위한 예산배분, 집행,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 실행에 있어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며 예산집행 및 정산 과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청소년 시설은 예산규모 및 집행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공공 교육시설로서 청소년 시설의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설의 재정적 열악함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목적의식을 세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시설의 재정적 조건이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공모사업 유형은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자체사업 유형 역시 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적 비용을 제외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참여 학생들이 지불하는 학습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유학기제 사업 관련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 지자체와 교육청을 거쳐서 학교로 교부되고 있는 상황이며, 각 학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시설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을 의뢰한다. 향후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현행 예산 집행의 방식을 보완하여 예산 집행과 정산이라는 부수적 활동이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이라는 본질적 활동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자유학기제 사업 관련 예산을 여성가족부에서도 마련하여 이를 각 청소년 시설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정산시기 역시 학교의 학사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의 배분은 최대한 빠르게 하여 계획단계에서 예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정산과 보고의 시기는 최대한 늦춤으로써 프로그램의 완결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학교 혁신과 교사역량 개발을 통하여 학교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과 연계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지역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내부의 역량, 즉 교사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사례조사에서 지역사회 의 청소년 시설 담당자나 학교교사 모두 교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와 학교의 원만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사업 추진에 중요한 요소임을 부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에 기여하며, 이를 실현해갈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진로직업체험활동에 국한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수업과 평가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첩병이 바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갖는 가치이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주제와 실행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그 가운데에는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가 핵심적인 대상이자 주체가 된다.

설령 진로직업체험활동에 한정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고민하더라도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진로직업체험활동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주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설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의 주도적 역할은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일회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활동이 입체적으로 구성, 조직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의미있는 진로체험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활동의 앞과 뒤에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 활동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진로체험은 지역사회와 인프라와 역량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체험을 통한 경험에서 비롯한 진로학습과 진로발달은 자유학기제 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 학교와 교사가 교수학습 측면에서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진로직업체험이 단순한 일회적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학습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역량을 돕는 연수기회나 워크숍을 수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 사업은 결국 공교육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학교가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교육정책이기 때문이다.

2.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계 실증적 자료 분석⁷⁾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활용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대상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의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된 2014-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교의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총160개를 분석하였다. 2013년은 자유학기제 처음 도입단계라 연계사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2014-2015년의 80개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다. 2014년 운영결과보고서는 80개의 연구학교가 모두 제출하였고, 2015년 운영결과보고서는 45개교 만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2016년 6월 기준) 하였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운영계획서를 포함하여 80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계실적 내용에 대한 정성적 자료 분석과 통계적인 정량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80개 연구학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9개교), 경기(6개교), 인천(4개교), 강원(4개교), 대전(6개교), 충북(4개교), 충남(5개교), 대구(4개교), 경북(5개교), 전북(4개교), 전남(6개교), 경남(5개교), 울산(4개교), 부산(5개교), 광주(5개교), 세종(2개

7) 본 내용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교), 제주(2개교)이다. 여기서 분석한 연계활용의 의미는 지역시설과 연계하여 체험을 실시하였거나 협력 이상의 활용을 한 사례를 의미한다.

○ 자료 분석대상

구분	분석자료	분석자료수
20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교의 80개의 운영결과보고서	총 160개 보고서
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교의 45개의 운영결과보고서와 35개의 운영계획서 (2016년 6월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에 한정)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의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된 2014~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교의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총160개를 분석함

1) 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실적 분석

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학교 80개 중 60개교로 75%의 학교가 지역연계 내용을 제시했다. 연구학교가 지역연계를 계획 및 경험했다고 보고한 지역연계시설은 74개 시설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42개는 청소년수련시설로 57%가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 계획 및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3 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비율⁸⁾

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지역연계 경험·계획이 있는 연구학교	학교의 지역연계비율	학교연계 지역시설	학교연계 청소년수련시설 ⁹⁾	지역시설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비율
계	80개교	60개교	75%	74개 시설	42개 시설	57%

8) 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함. 구체적인 데이터는 뒤에 제시한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활용 사례표를 참고바람.

9)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설치된 진로체험지원센터 13개를 포함하여 42개의 청소년수련시설임.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서울(9)부산(4)대구(3)광주(2)인천(4)대전(2)울산(2)경기(7)강원(4)충북(4)충남(5)전북(1)전남(3)경북(2)경남(4)제주(2)세종(2)으로 총 60개의 학교가 지역연계 내용(계획과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학교의 지역연계시설의 종류는 청소년수련관(24), 문화의집(10), 수련원(5), 유스호스텔(1), 특화시설(2), 기타(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6)로 총74개의 지역시설과 연계 계획 및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중 42개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 계획 및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설치된 진로체험지원센터 13개는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포함하였다.

학교가 연계한 청소년수련시설 외의 기타 지역연계 시설들로는 서울시학생교육원, 부산시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시학생예술문화회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대구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직업창의체험연구소(민간),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청소년진로지원센터, 인천학생교육원, 인천청소년문화센터, 자연문화체험수련관(이시소), 청소년활동진흥원, 평택위센터, 충북진로진학지원센터, 충북학생교육문화원, 김제교육문화회관, 곡성교육문화회관, 전남학생교육원, 나로도학생수련원,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진로창의체험연구소,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와 연계하는 지역시설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공공시설들이 대부분이며 민간시설과의 연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표 III-4 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실증적 자료 분석

번호	지역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¹⁰⁾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청소년시설
1	서울	거원중학교	●꿈마루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송파청소년수련관 2016.3.21.)
2		잠실중학교	
3		광진중학교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광진청소년수련관)
4		당산중학교	●화곡 청소년수련관
5		동작중학교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기타)
6		삼각산중학교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센터(강북청소년수련관)
7		수서중학교	●수서청소년수련관 ●나래꿈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역삼청소년수련관)
8		신상중학교	●노원 청소년수련관
9		연희중학교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화곡청소년수련관 ●서대문진로체험지원센터(홍은청소년문화의집)

번호	지역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¹⁰⁾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청소년시설
10	부산	백양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기타) •부산관광공사아르피나청소년문화센터(유스호스텔)(부산시/진로및스포츠택체험실시)
11		용수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수련원)(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활동진흥원/직업체험실시) •국립고흥청소년우주과학체험센터(수련원)(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활동진흥원/직업체험실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기타)(부산교육청/문화예술체험등 실시)
12		중앙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정 청소년수련관 •부산 동부 청소년꿈키움센터(기타)(법무부/학교폭력예방교육및모의법정실시)
13		화명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기타)(부산교육청/진로체험실시)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보호시설)(여성가족부,부산광역시/진로체험활동실시)
14	대구	동변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청소년회관(수련관)(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운영/창체활동 및 직업체험협조 등)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보호시설)(대구광역시직영 청소년종합지원자문기관/창체활동, 직업체험협조등 실시)
15		(계) ¹¹⁾ 신암중학교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16		천내중학교	•대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기타)(협조기관으로 제시, 직영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17	광주	선운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창의체험연구소(기타)(민간,자유학기제와 방과후 사업/매주 진로활동실시)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기타)(광주시/진로활동 실시)
18		화정중학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기타)(광주교육청/직업체험활동 실시)
19	인천	(계)영종중학교	•인천광역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구:인천광역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유관기관연계 진로캠프 실시)
20		부평동중학교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21		북인천여중학교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기타)(인천교육청/해양환경체험학습장의 갯벌체험 실시)
22		성리중학교	•인천청소년문화센터(기타)(인천광역시위탁/창체활동 및 교육기부 등 실시)
23	대전	월평중학교	•평송청소년문화센터(수련관)(2015.9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24		회덕중학교	•대전청소년위캔센터(수련관)(대전광역시설치, 대전YWCA위탁/직업체험 실시)
25		(계)연암중학교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2014.4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26	울산	(계)유곡중학교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2014.2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번호	지역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¹⁰⁾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청소년시설
27	경기	(계)봉일천중학교	●자연문화체험수련장 이시소(협약기관으로 제시)(기타)
28		(계)분당중학교	●서현 청소년수련관
29		(계)석수중학교	●선부 청소년문화의집
30		(계)세교중학교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수련관) (2015.8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31		(계)신길중학교	●청소년활동진흥원(기타)(여성가족부/역사문화체험 실시)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안산시(사)제일청소년회 운영/진로체험 및 선택프로그램실시)
32		(계)천보중학교	●의정부청소년수련관 (2015.7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의정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정부 YMCA/상담사 및 복지사체험 등)
33		(계)청북중학교	●평택 Wee센터(기타)(평택교육지원청/집단상담 실시)
34	강원	(계)사북중학교	●사북청소년장학센터(문화의집) (2015.6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35		(계)양구중학교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특화시설)
36		(계)함태중학교	●태백청소년상담복지센터(한국청소년강원도 연맹/상담 및 위기학생지원 실시)
37		(계)횡성중학교	●횡성 청소년수련관
38	충북	(계)괴산 오성중학교	●충북 진로진학지원센터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진로체험-진학-상담 등 실시)
39		(계)서현중학교	●충북 진로진학지원센터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진로체험-진학-상담 등 실시)
40		(계)옥천중학교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옥천군운영/상담활동프로그램 지원)
41		(계)증원중학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기타)(교육청/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42	충남	(계)금산중학교	●금산 문화의집 (2015.6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43		(계)서면중학교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수련관)
44		(계)연무중학교	(2015.8. 아산 행복누리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45		(계)천안 새샘중학교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천안시대조산청소년수련관 (2015.6 천안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46		(계)태안여자중학교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47	전북	(계)김제 중앙중학교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수련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진로체험활동), ●김제교육문화회관(기타)(도립/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48	전남	(계)곡성중학교	●곡성교육문화회관(기타)(전남교육청/진로동아리활동)
49		(계)삼계중학교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수련원)(여성가족부산하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선택체험활동실시) ●전라남도학생교육원(기타)(교육부/진로직업교육실시)
50		(계)화순동면중학교	●나로도학생수련원(교육청, 2015.12. 전남자연탐구수련원 나로도학생수련장으로 조직개편/야영활동 실시)

번호	지역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¹⁰⁾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청소년시설
51	경북	문경서중학교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기타)(경북청소년진흥원/진로체험실시)
52		선산중학교	●선산 청소년수련관
53	경남	거제 중앙중학교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54		거창 여자중학교	●거창 청소년수련관 ●진로창의체험연구소(기타)(민간/직업체험활동)
55		김해 대동중학교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기타)(법무부/안전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실시)
56		하동 중앙중학교	●하동 청소년수련관 ●하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동군/상담프로그램실시)
57	제주	(계)서귀포 중앙여중학교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학생문화원(기타)(제주특별자치시 교육청/동아리및예술활동)
58		(계)한라중학교	●제주학생문화원(기타)(제주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체험의날,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실시)
59	세종	조치원여자중학교	●청소년활동진흥센터(특화시설)(여성가족부/진로탐색활동실시)
60		조치원중학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15계획서에 제시) ●세종특별자치청소년상담복지센터(한국청소년진흥재단/청소년지도사강의 및 체험실시)
계			-서울(9), 부산(4), 대구(3), 광주(2), 인천(4), 대전(2), 울산(2), 경기(7), 강원(4), 충북(4), 충남(5), 전북(1), 전남(3), 경북(2), 경남(4), 제주(2), 세종(2), 총 60개의 학교가 지역연계 내용(계획과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음. -청소년수련관(24), 문화의집(10), 수련원(5, 국립수련원 4개포함), 유스호스텔(1), 특화시설(2), 기타(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6), 총 74개의 시설과 연계 내용이 있으며, 이중 42개가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연계내용이 있음. 진로체험지원센터(13개는 모두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있음)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사이트에 탑재된 2015 연구학교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를 <http://www.ggomggi.go.kr>에서 2016.06.20.인출.

2) 20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실적 분석

20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교의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시설과 연계운동을 했다고 보고한 학교는 57개교로 약 71%의 학교가 연계한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가 지역연계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지역연계시설은 77개 시설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40개는 청소년수련시설로 52%가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11) 이하 (계)는 연구학교 운영계획서를 참고했음을 의미함.

표 III-5 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비율¹²⁾

2015년	2015년 연구학교	지역연계 경험·계획이 있는 연구학교	연구학교의 지역연계비율	학교연계 지역시설	학교연계 청소년수련시설 ¹³⁾	지역시설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비율
계	80개교	57개교	71%	77개 시설	40개 시설	52%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서울(6), 부산(4), 대구(3), 광주(3), 인천(4), 대전(4), 울산(4), 경기(5), 강원(4), 충북(4), 충남(4), 전북(2), 전남(5), 경북(2), 경남(1), 제주(1), 세종(1)으로 총 57개의 학교가 지역연계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지역연계시설의 종류는 청소년수련관(24), 문화의집(10), 수련원(6), 유스호스텔(0), 특화시설(0), 기타(24), 청소년상담복지센터(5), 진로체험지원센터(8)으로 총 77개의 시설과 연계했으며, 이중 40개가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III-6 20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실증적 자료 분석

번호	지역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청소년시설
1	서울	당산중학교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기타)(서울특별시교육청/직업체험 실시)
2		동작중학교	●보라매청소년회관(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동아리활동 및 참채활동)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3		삼각산중학교	●강북 청소년수련관 난나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4		신상중학교	●노원 청소년수련관 ●상상이룸센터 노원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5		연희중학교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화곡 청소년수련관 ●서대문진로직업센터(홍은 청소년문화의집)
6		잠실중학교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광진청소년수련관)
7	부산	백양중학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기타)(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기타)(부산광역시교육청/동아리활동 실시)
8		용수중학교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기타)(진로탐색실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기타)(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문화예술 교육기관/문화예술체험 실시)

12) 20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함.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래에 제시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실증적 자료 분석을 참고바람.

13)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설치된 진로체험지원센터 3개를 포함하여 40개의 청소년수련시설임.

번호	지역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청소년시설
9		중앙중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10		화명중학교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기타)(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 지원/동아리 및 봉사활동)
11	대구	동변중학교	●북구 청소년회관(수련관)(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운영/창·체활동 및 직업체험협조 등)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보호시설)(대구광역시 직영 청소년종합지원자문기관/창·체활동, 직업체험 협조 등 실시)
12		신암중학교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13		천내중학교	●대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기타)(협조기관으로만제시/직영(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14	광주	동신중학교	●현장직업 체험활동 장소로 광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15		선운중학교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수련원)(여성가족부산하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진로체험 실시)
16		화정중학교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17	인천	부평동중학교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18		북인천중학교	●서구 청소년수련관
19		성리중학교	●인천 청소년문화센터(기타)(인천광역시 위탁/창체활동 및 교육기부 등 실시)
20		영종중학교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기타)(인천광역시/전일 진로체험실시)
21	대전	가양중학교	●대전광역시진로진학지원센터
22		외삼중학교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협력기관으로만 제시)
23		월평중학교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수련관)
24		회덕중학교	●대전 학생교육문화원(대전광역시 교육청/체육활동실시)
25	울산	대송중학교	●동구 청소년문화의집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울산 동구청 위탁운영/남목청소년문화의집 내 위치, 진로직업체험실시) ●동구청소년창의학습진로지원센터(유네스코 울산광역시협회위탁운영/동구청소년문화의집 내 위치, 진로탐색 실시)
26		연양중학교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내와 수련장(기타)(자기주도학습캠프등 실시)
27		연암중학교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울산광역시 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28		유곡중학교	●울산 공업탑 청소년문화의집 ●중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번호	지역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청소년시설
29	경기	봉일천중학교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파주청년회의소/직업탐색 및 진로탐색캠프 지원)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30		석수중학교	●진로캠프(1박2일)를 경기도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
31		신길중학교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제일청소년회/진로체험 및선택프로그램)
32		천보중학교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33		청북중학교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수련관)
34	강원	사북중학교	●사북청소년장학센터(문화의집)
35		양구중학교	●진로직업체험센터 방문
36		함태중학교	●태백청소년상담복지센터(한국청소년강원도연맹/직업체험 실시)
37		횡성중학교	●횡성 청소년수련관
38	충북	괴산 오산중학교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수련원)(여성가족부산하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전일제 진로체험 실시) ●충북 진로진학지원센터
39		서현중학교	●충북교육과학연구원(기타)(교육청/체험활동,진로캠프 등 실시)
40		옥천중학교	●체능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
41		종원중학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기타)(충청북도교육청/체험활동 프로그램실시)
42	충남	금산중학교	●금산 문화의집
43		서면중학교	●충남 학생임해수련원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44		천안 새샘중학교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충남학생교육문화원(기타)(교육청/진로특강 등)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45		태안여자중학교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46	전북	김제 중앙중학교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수련원)(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운영/진로탐색 및 체험활동실시)
47		줄포중학교	
48	전남	곡성중학교	●전라남도 학생교육원(기타)(교육부/진로캠프실시) ●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운영/진로탐색활동)
49		삼계중학교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수련원) (국립청소년수련시설임) (여성가족부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선택체험활동실시) ●전라남도학생교육원(기타)(교육부/진로직업교육실시)
50		순천이수중학교	●순천 청소년수련관
51		청산중학교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수련원)(여성가족부산하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운영/수련활동캠프실시)
52		화순동면중학교	●지리산 학생수련장(기타)(교육청/문화예술체험실시)
53	경북	선산중학교	●선산 청소년수련관 ●한국청소년 체험세상(기타)(계명대학교 내 위치,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협약/진로체험활동실시)
54		진보중학교	●청송 청소년수련관 ●경북학생문화회관(기타)(경상북도 교육청/진로 탐색 및 활동 실시)

번호	지역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청소년시설
55	경남	거창여자중학교	●거창 청소년수련관
56	제주	한라중학교	●제주학생문화원(기타)(제주교육청/진로체험의 날 실시)
57	세종	조치원중학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수련원)(여성가족부산하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역사문화특성화프로그램 실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6), 부산(4), 대구(3), 광주(3), 인천(4), 대전(4), 울산(4), 경기(5), 강원(4), 충북(4), 충남(4), 전북(2), 전남(5), 경북(2), 경남(1), 제주(1), 세종(1) 총 57개의 학교가 지역연계 경험이 있음. - 수련관(24), 문화의집(10), 수련원(6, 국립수련원4개 포함), 유스호스텔(0), 특화시설(0), 기타(24), 청소년상담복지센터(5), 진로체험지원센터(8) 총 77개의 지역시설과 연계경험이 있으며, 이중 40개가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했음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된 2014 연구학교 운영결과보고서를 <http://www.ggomggi.moe.go.kr>에서 2016.05.24.인출.

3)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분석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 전국 203개가 운영 중이며(2015.12.31.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177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6.4.5.). 위탁 운영되는 130개소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중에서 64개소(수련시설 56개소, 상담복지센터 8개소)로 49%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시설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체험처와 학교 간 허브역할을 담당하며, 체험처 발굴·관리, 체험처에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체험처-학교 매칭, 센터 자체 체험프로그램(학생용, 학부모용) 운영의 역할을 한다(교육부, 2016.4.5.). 운영형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 직영(59개), 지자체 직영(14개),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위탁운영(130개)되고 있다(2015.12.31. 기준). 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한 현황¹⁴⁾을 살펴보면, 전국 203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교육부, 2016.4.5.)와 80개 연구학교 중 15개교(19%)가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연구학교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3개는 모두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내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위탁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전국 203개 센터 중 과반수 이상의 130개(64%) 센터가 위탁운영되고 있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교육부, 2016.4.5.).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에서 위탁운영하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전체 130개 중에서 64개

14) 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함.

(49%)이다(여성가족부, 2016d). 따라서 위탁운영의 절반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시설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자유학기제의 지역연계 운영에 있어서 수련시설의 역할이 다른 지역사회 기관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연구학교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3개는 모두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내에 설치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꿈마루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송파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 2개 학교 연계), 광진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광진청소년수련관), 나래꿈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역삼청소년수련관), 서대문진로체험센터(홍은청소년문화의집), 평송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평송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울산북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북구청청소년문화의집), 울산중구진로직업체험센터(울산중구청청소년문화의집), 평택진로체험지원센터(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의정부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정부청소년수련관), 사북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사북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금산진로체험지원센터(금산문화의집), 아산행복누리 자유학기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2개교 연계), 천안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다.

2014년 8개의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상상이룸 노원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서대문진로직업센터(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광진청소년수련관), 울산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울산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울산중구청청소년문화의집), 강원도의 진로직업체험센터로 나타났다.

표 III-7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2016.2)

지역	운영현황		시 군 구	운영일	시설명	총 원 (명)
	전체	수련시설				
서울	25	6	서대문구	13.6	홍은청소년문화의집	4
			은평구	13.5	은평청소년수련관	6
			용산구	13.5	청소년미디어센터	6
			중구	13.9	중구청소년수련관	6
			강남구	13.10	역삼청소년수련관	4
			광진구	14.5	광진청소년수련관	6
부산	9	3	사하구	15.3	사하구청소년문화의집	4
			사상구	15.2	사상구청소년수련관	4
			기장군	15.3	기장군청소년수련관	4

지역	운영현황		시 군 구	운영일	시설명	총 원 (명)
	전체	수련시설				
대구	4	-	-	-	-	-
광주	2	-	-	-	-	-
인천	6	2	연수구	14.3	연수구청소년수련관	2
			서구,강화	15.4	서구청소년수련관	3
대전	3	2	대덕구	14.9	대덕구청소년수련관	5
			유성구 서구	15.9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3
울산	5	3	중구	14.2	중구청소년문화의집	3
			북구	14.4.1	북구청소년문화의집	3
			울주군	15.2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경기	28	12	가평군	15.9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3
			고양시	15.10	마두청소년수련관	6
			군포시	15.3	군포시청소년수련관	4
			의왕시	15.3	의왕시청소년수련관	4
			양주시	15	양주시청소년수련원(직영)	2
			안산시	15.8	안산청소년수련관	5
			의정부시	15.7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2
			이천시	15.12	창전청소년문화의집	5
			파주시	15.7	금촌청소년문화의집	4
			평택시	15.8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1
			안성시	15.11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양평군	15.7	양평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강원	17	6	태백시	14.9	태백청소년수련관	5
			정선군	15.6	사북청소년장학센터	4
			춘천시	15.8	춘천청소년수련관	3
			삼척시	15.7	삼척청소년수련관	4
			홍천군	15.7	홍천청소년수련관	3
			영월군	15.8	영월청소년수련관	3
충북	10	4	충주시	15.8	충주시청소년수련원	1
			제천시	15.8	제천시청소년수련원	2
			보은군	15.7	보은청소년문화의집	2
			영동군	15.8	영동상담복지센터	2

지역	운영현황		시 군 구	운영일	시설명	총 원 (명)
	전체	수련시설				
충남	14	9	천안시	15.6.2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2
			보령시	15.6	보령청소년수련관	5
			아산시	15.8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4
			당진시	15.6	당진청소년문화의집(직영)	2
			금산군	15.6	금산문화의집	3
			서천군	15.6	서천청소년수련관	4
			홍성군	15.6	홍성군청소년수련관	2
			예산군	15.6	예산군청소년수련관	3
			청양군	15.6.24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6
전북	14	4	군산시	15.5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3
			익산시	15.5	익산시청소년수련관	4
			남원시	15.2.24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임실군	15.4.1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전남	22	7	목포시	15.6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3
			여수시	15.7	여수시청소년수련관	2
			보성군	15.8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5
			장흥군	15.6	장흥청소년수련관	2
			곡성군	15.6	곡성청소년문화의집	4
			해남군	15.7.1	황산청소년문화의집	3
			장성군	15.8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
경북	23	6	경주시	15.6	경주청소년수련관	4
			안동시	15.6	안동청소년문화센터	3
			문경시	15.8	문경시청소년수련관	3
			군위군	15.6	군위청소년문화센터	5
			청송군	15.7	청송군청소년수련관	4
			울진군	15.6	울진군청소년수련관	5
경남	18	-	-	-	-	-
제주	2	-	-	-	-	-
세종	1	-	-	-	-	-
합계	203	64	-	-	-	-

출처: 여성가족부 (2016d). 청소년(수련)시설 내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내부자료 2016.2.15.). 미간행물.

4) 시사점 :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관점에서 협업 관점에서의 전환

첫째,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일회성 활용 관점에서 지속적 협업 관점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014-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결과 80개 연구학교의 지역시설 활용 비율은 평균 74%이며, 지역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비율은 평균 54%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연계하는 지역시설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공공시설들이 대부분이며 민간시설과의 연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중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고 있음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III-8 2014-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비율¹⁵⁾

구분	연구학교	지역시설 연계경험 연구학교	연구학교의 지역활용비율	학교연계 지역시설	학교연계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비율
2015년 ¹⁶⁾	80개교	60개교	75%	74개 시설	42개 시설	57%
2014년 ¹⁷⁾	80개교	57개교	71%	77개 시설	40개 시설	52%
평균	80개교	59개교	74%	76개 시설	41개 시설	54%

2014-2015년에 지속적 학교-청소년수련시설 연계운영 현황을 보면, 첫째, 20개의 학교가 22개의 청소년수련시설과 동일 연계를 함으로써 학교도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2014년, 2015년에 평균 41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 동일한 학교 연계 활용 사례는 22개의 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가 동일한 기관과 반 이상이 지속적으로 연계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위한 사전실무협의 등 운영방안 제시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운영방안 절차와 틀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15) 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와 20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한 것임.

16) 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함.

17) 20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함.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III-9 2014-2015 학교-청소년수련시설 지속적 연계운영 비율¹⁸⁾

구분	지역시설 연계경험 학교	동일한 청소년수련 시설과 연계경험 학교	동일한 청소년수련 시설과 연계활용 학교비율	학교연계 청소년수련 시설	동일한 학교와 연계경험 청소년수련시설	동일한 학교와 연계활용 수련시설 비율
2014-2015년	평균 59개교	20개교	34%	평균 41개	22개 수련시설	54%

둘째,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연계를 할수있도록 지원하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의 진로체험이나 체험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여성가족부, 2015a; 임지연, 2015).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의 타 청소년시설과 단체와는 차별적으로 청소년체험활동을 학교연계 등을 통하여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육성이라는 사명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유학기에서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임지연, 2015).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청소년수련관)나 읍·면·동(문화의집)에 설립하여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민간의 설치와 운영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임지연,김정주,김정숙, 2014). 2015년 청소년수련관 설치비율은 82.4%이며, 읍·면·동 문화의집 설치비율은 6.68%로 나타나 문화의집 설치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학기 연구학교의 지역연계시설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지역연계한 시설 중 57%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는 52%로 과반수이상은 청소년수련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자유학기제 등 학생 지역체

18) 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와 20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한 것임.

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을 확대·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국 중학교가 3,173개, 전국 교육지원청이 179개이고, 읍·면·동이 3,488개임으로 읍·면·동마다 문화의집이 활성화되면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2014).

표 Ⅲ-10 초·중·고 학생수/ 학교수/ 교육지원청수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비율

구분	산출근거		단위학교당 청소년(수련)시설 수(%)
1	중학교수/ 청소년(수련)시설수	3,173/ 787	학교 4.0개 당 1개 시설
2	초·중·고 교육지원청수/청소년(수련)시설수	179/ 787	1개 교육지원청 당 4.4개 시설
3	초·중·고 학생수/ 청소년(수련)시설수	6,285,792/ 787	학생 7,987명 당 1개 시설
4	초·중·고 학교수/ 청소년(수련)시설수	11,446/ 787	학교 14.5개 당 1개 시설

참고: 교육통계서비스(2014.11.12). 유초중등 학교급별 개황. <http://kess.chedi.re.kr/index>에서 2014. 11. 12에 인출.
여성가족부(2015a). 청소년백서를 임지연(2015). p.56에서 재인용하여 수정·보완함.

표 Ⅲ-11 행정구역별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설치 비율

구분	시·군·구	수련관	시·군·구 수련관 설치비율	읍·면·동	문화의집	읍·면·동 문화의집 설치비율
계	227	187	82.4%	3488	233	6.68%

참고: 여성가족부(2015a), 안전행정부(2013)을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2014). P.158.에서 재인용하여 수정·보완함.

전체 17개 시도에서 전국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 20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운영되는 130개소 중에서 64개소(수련시설 56개소, 상담복지센터 8개소)로 49%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시설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d).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위학교 차원에 이르기까지 자유학기제협의회와 자유학기제추진단이 있고, 단위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차원에 자유학기제 실제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이 있다. 실무기관은 중앙정부의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진로장학정보센터,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자유학기제추진단에서 결정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서우석, 정철영, 이종범, 이순옥, 2014). 그러나 현재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지역과 연계하거나 요구조사를 통해 타 지역으로 자체적으로 연계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표 III-1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위탁운영하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비율

2015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센터	위탁운영비율	위탁운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위탁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비율
계	203개소	130개소	64%	130개소	64개소	49%

자료: 여성가족부(2016d).청소년(수련)시설과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내부자료를 재정리함.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2014-2015 지속적인 연계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동작중학교-사당 청소년문화의집, 삼각산중학교-강북청소년수련관, 신상중학교-노원청소년수련관, 연희중학교-서대문청소년수련관, 화곡청소년수련관, 흥은청소년문화의집, 대구동변중학교-북구청소년회관, 신암중학교-수성구청청소년수련원, 대전월평중학교-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울산연암중학교-울산북구청청소년문화의집, 울산유곡중학교-중구청소년문화의집, 경기천보중학교-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강원도사북중학교-사북청소년장학센터(문화의집), 횡성중학교-횡성청소년수련관, 충남금산중학교-금산문화의집, 천안새샘중학교-천안시청소년수련관,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태안여자중학교-태안군청소년수련관, 전북김제중앙중학교-국립김제청소년농업체험생명체험센터, 전남삼계중학교-국립김제청소년농업체험생명체험센터, 경북선산중학교-선산청소년수련관, 경남거창여자중학교-거창청소년수련관, 세종조치원중학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다. 이와 같이 제시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중 지역연계 경험이 있는 59개의 연구학교 중 20개의 학교와 22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은 2014-2015년까지 2년 연속으로 동일한 기관과 지속적인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위한 사전실무협의 등 운영방안 제시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운영방안 절차와 틀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면담조사 결과분석 : 연계 운영방안 개발¹⁹⁾

1) 면담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조사목적은 단위학교와 단위 청소년시설 차원에서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와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핵심요인과 실행방안을 포함한 연계 운영방안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단위 학교와 단위 시설차원에서의 연계 운영 실무를 지원하고자 한다.

면담조사지는 개발하고자 하는 운영방안의 틀과 내용의 초안을 만들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을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의 형식은 운영방안 틀에 따른 실행방안들에 대한 실무경험자로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협업을 할 것 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문헌분석과 현장 사례조사, 실증적 자료 분석을 기초로 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조사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면담지를 수정·보완하여 연계운영 절차와 핵심요인과 실행방안을 조사하였다(인터뷰 질문은 [부록2]에 제시되었음). 분석방법은 조사지의 질문내용과 핵심요인, 추진단계를 중심으로 먼저 분석하고 면담조사를 진행하면서 점차 핵심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를 반복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6명과 자유학기 담당 교사 3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표 Ⅲ-13 면담조사 참여대상

번호	이름	특성 및 내용	유형	
1	김00	자체사업운영방식	ㄱ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2	박00	수련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ㄴ 청소년수련관	
3	김00	자체사업운영방식	ㄷ 청소년수련관	
4	한00	수련관 진로직업체험센터	ㄹ 청소년수련관	
5	신00	수련관 진로직업체험센터	ㅁ 청소년수련관	
6	김00	자체사업운영방식 자발적 학교연계	ㅂ 청소년수련관	

19) 본 내용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번호	이름	특성 및 내용	유형	
7	박00	자유학기제 담당	초등학교	교사
9	허00	자유학기제 담당	중학교	
10	김00	자유학기제 담당	고등학교	

면담조사 자료수집 방법은 연계 운영방안의 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질문하면서 면담과정에서 질문의 초점을 좁혀가면서 심층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별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 당 약2시간, 인터뷰 당 약2회를 면대면, 전화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 청소년지도사 및 교사의 분석결과 : 협업 방안 핵심요인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성공적인 연계를 위한 핵심요인, 절차(준비, 실행, 평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단위 학교와 단위 청소년시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협업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2016년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이 되는 시기로서 자유학기 활동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초점으로 하여 기획, 실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면담결과 기획단계의 실행방안이 제일 중요하며, 그다음 평가와 실행단계 순으로 중요성이 나타났다. 각 단계별 경험을 토대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내용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기획 준비 단계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이 자체자원분석과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실무협의를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단위 시설과 학교의 수준에 맞게 연계방식을 준비하고 참여자를 사전에 확보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일정이나 참여자 모집, 예산확보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어 문제점을 사전에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사전실무협의를 위한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자원분석을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청소년시설과 학교의 자체 자원분석(예산, 인력, 기관장 의지)을 실시. 청소년시설에서 학교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을 준비(무료, 유료, 한 학기, 일회성, 기간, 강사 등), 학교에서 지역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 준비(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예산, 한 학기, 일회성 등)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실무협의를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청소년시설의 기존 프로그램 내용과 연계 운영방식에 대한 핵심 논의사항을 학교와 협의한다, 학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프로그램, 예산 등 핵심 논의사항을 협의, 청소년시설과 학교가 사전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상호 사업계획에 반영(예시: 전년도 11월 사전실무협의, 2월 사업확정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행실무협의의 실행방안으로는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실행실무협의를 통해 당해 연도 자유학기활동 내용 및 세부 진행일정을 결정, 교사와 청소년시설 간 역할분담을 위한 실행체크리스트를 통해 역할분담을 논의로 나타났다. 넷째, 담당자사전교육으로는 학교-지역 상호 이해교육(학교/청소년시설의 행정과 프로그램 특성 등)을 실시, 기관 별로 학교-지역 협업을 위한 실무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활용하여 실무역할 사전교육을 실시로 나타났다. 다섯째, 강사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도안 작성의 실행방안으로는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한 외부강사를 확보,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강사교육을 실시,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가 작성한 수업운영지도안 개요를 확인,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에게 역량강화 기회를 주어 내부강사로 확보,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으로 나타났다.

면담조사 결과, 교사와 청소년지도사 모두 기획 준비단계에서의 자체자원분석과 사전실무협이가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핵심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2) 실행단계

면담조사 결과 실행단계의 중요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 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학생 만족도 조사 뿐아니라,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3) 평가단계

평가단계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는데 활동목표와 활동 평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으로 사전에 교육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운영성과관리로는 진행 기록 관리를 통해서 전시, 발표, 자료집 제작 등 결과물을 산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유학기 활동기록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으로는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활동기록 및 과정평

가, 사업결과보고서를 위한 활동기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스스로 기록 및 지도자 관찰기록, 과정평가 방법 등의 사전 안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 협업 방안의 핵심요인

(1) 결론 : 연계 운영방안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계 운영방안은 지역사회에서 자유학기 연계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학교가 청소년시설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단위 시설과 단위 학교 차원의 실행을 중심으로 한 협업 방안 개발로 볼 수 있다.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차원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의 사업 지원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도 단위 학교와 단위 시설의 실무 담당자가 직접적인 실무안건을 가지고 현장의 연계 운영을 준비하고 실행, 평가할 수 있는 협업 방안을 개발한 것이다.

개발된 연계운영 방안의 특징은 기획단계의 자체자원분석, 사전실무협의, 실행실무협의, 사전교육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초점을 두어, 단위 학교와 단위 시설에서 실무담당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핵심적인 추진사항을 제시하고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계 운영방안은 면담조사 뿐 아니라 문헌분석, 현장사례조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계 실증적 자료 분석 결과를 함께 합쳐서 기술된 것이다. 그동안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공동체 연계 모델 등 많은 연구자들의 지역-학교 연계모형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김위정 외, 2015; 서우석 외, 2014; 장현진, 정윤경 외, 2014;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전면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 차원,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차원의 실무기구의 역할을 단위 학교와 단위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제시한 것이다. 이제는 2016년 전면시행 시점에서는 단위 학교와 시설 차원의 연계 운영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학기제는 그동안 법과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현장에서의 실행이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전면 실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을 위하여 단위 학교와 단위 지역시설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호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연계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이러한 14개의 핵심요인과 29개의 실행방안은 절차에 따른 순서의

의미가 있지만,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몇 가지 요인이나 실행방안을 한꺼번에 실시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등 융통성을 가지고 현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정책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단위 청소년시설-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안)

핵심요인	협업을 위한 실행방안
1. 자체 자원분석	1) 청소년시설과 학교의 자체 자원분석(예산, 인력, 기관장 의지)을 실시한다.
	2) 청소년시설에서 학교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을 준비한다(무료, 유료, 한 학기, 일회성, 기간, 강사 등)
	3) 학교에서 지역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을 준비한다(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예산, 한 학기, 일회성 등)
2. 사전실무협의	4) 청소년시설의 기존 프로그램 내용과 연계 운영방식에 대한 핵심 논의사항을 학교와 협의한다.
	5) 학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프로그램, 예산 등 핵심 논의사항을 협의한다.
	6) 청소년시설과 학교가 사전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상호 사업계획에 반영한다(예시: 전년도 11월 사전실무협의, 2월 사업확정 등)
3. 실행실무협의	7)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실행실무협의를 통해 당해 연도 자유학기활동 내용 및 세부 진행일정을 결정한다.
	8) 교사와 청소년시설 간 역할분담을 위한 실행체크리스트를 통해 역할분담을 논의한다.
4. 학교의 학생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결정	9) 학생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결정 내용을 파악한다(약3월경 실시).
5. 연계운영계획 확정 및 확인	10)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자유학기 연계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한다.
6. 담당자 사전교육	11) 학교-지역 상호 이해교육(학교/청소년시설의 행정과 프로그램 특성 등)을 실시한다.
	12) 기관 별로 학교-지역 협업을 위한 실무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활용하여 실무역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7. 강사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도안 작성	13)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한 외부강사를 확보한다.
	14)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강사교육을 실시한다.
	15)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가 작성한 수업운영지도안 개요를 확인한다.
	16)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에게 역량강화 기회를 주어 내부강사로 확보한다.
	17)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한다.

핵심요인	협업을 위한 실행방안
8. 자유학기 활동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18) 학교에서 개최하는 자유학기제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를 청소년시설에서도 참여한다.
9. 학교의 학생 프로그램 배정	19) 학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별 학생배정내용을 청소년시설에서 파악한다.
10. 지역연계 자유학기 활동 운영 및 관리	20) 시설에서 내·외부 강사를 관리한다.
	21) 시설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관리한다.
	22) 시설에서 학습 교보재를 관리한다.
	23) 참가 학생을 관리한다(출석체크, 안전지도 등).
11. 학생 만족도 조사 및 중간평가 실시	24) 진행기록(자료집 제작 등에 활용)을 관리한다.
	25)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12. 운영성과관리: 전시(발표) 및 자료집 제작	26)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27) 진행 기록 관리를 통해서 전시,발표,자료집 제작 등 결과물을 산출한다.
13. 자유학기 활동기록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28)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활동기록 및 과정평가, 사업결과보고서를 위한 활동기록을 한다. (학생 스스로 기록 및 지도자 관찰기록, 과정평가 방법 등)
14.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 협의	29) 총괄평가 및 향후 연계방안 모색을 위하여 차년도 연계사업을 협의한다.

(2) 자유학기제가 청소년(수련)시설에 주는 시사점

자유학기 활동 지역 연계운영에서 성공의 핵심은 이를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이다. 이는 본 면담조사 결과 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청소년지도사와 교사들이 강조한 내용이 사전실무협의와 프로그램, 강사 문제 등 모두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역 교육력을 향상하느냐가 가장 근원적인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그동안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된 인원이 적고 다양한 업무수행으로 역량강화에 집중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외부강사 위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청소년지도사는 지역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거나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지만 청소년수련활동 중요프로그램이나 절반이상을 외부강사에 위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근무 여건에 따른 것이다. 기관별로 청소년지도사의 근무환

경의 수준차이가 있겠지만, 이제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때이다.

자유학기제가 도입 목적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자율성, 교사들의 전문성,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외, 2014)이며, 자유학기 활동 지역 연계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역할이 핵심요인이다. 이는 그냥 개인의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이제 자유학기제는 제도 마련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단위 학교와 시설에 실행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력양성, 인력개발, 전문성 강화, 교육역량 강화 등이 중요하다. 청소년지도사 및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한 결과, 상호 기관에 대한 이해와 담당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상호 협업체제와 지역교육력이라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하는 시점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의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을 보면,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않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요프로그램이나 반 이상의 활동들을 외부강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의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제한이라는 조항과 수련활동인증제에서도 외부강사 위탁운영에 대한 제약이 있듯이, 자유학기제 역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중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수련관 최소 인력배치 기준이 500명당 1명이라는 최소 인력배치 기준(청소년활동진흥법, 2016) 등의 상충되는 법·제도적 기준을 개정하고 청소년지도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외부강사 위탁을 줄이고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다회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학교도 지속가능한 진로교육을 위해서 일회성 행사성 지역연계보다는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다른 학기는 물론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연계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최상덕 외, 2015). 따라서 이제는 교육 정책적 변화에 대처하여 외부강사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은 의무가 아니며, 시설의 자체자원분석에

따른 준비와 수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아니더라도 학교연계 사업을 할수있을 정도의 활동 교육력과 예산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 대부분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는 청소년수련시설입장에서는 협력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기관이기 때문이다. 각 기관의 여건이 다르고 정책적 지원도 없는 시점에서 모든 청소년지도사에게 자유학기 활동 연계 업무와 내부강사로서 교육력 강화 등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는 없다. 그러나 향후의 정책적 변화와 현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전문분야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으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결과분석²⁰⁾

1) 설문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1) 조사대상

조사목적은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정책과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은 1-5순위 다중응답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조사방법은 web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문자와 메일로 보낸 URL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상에서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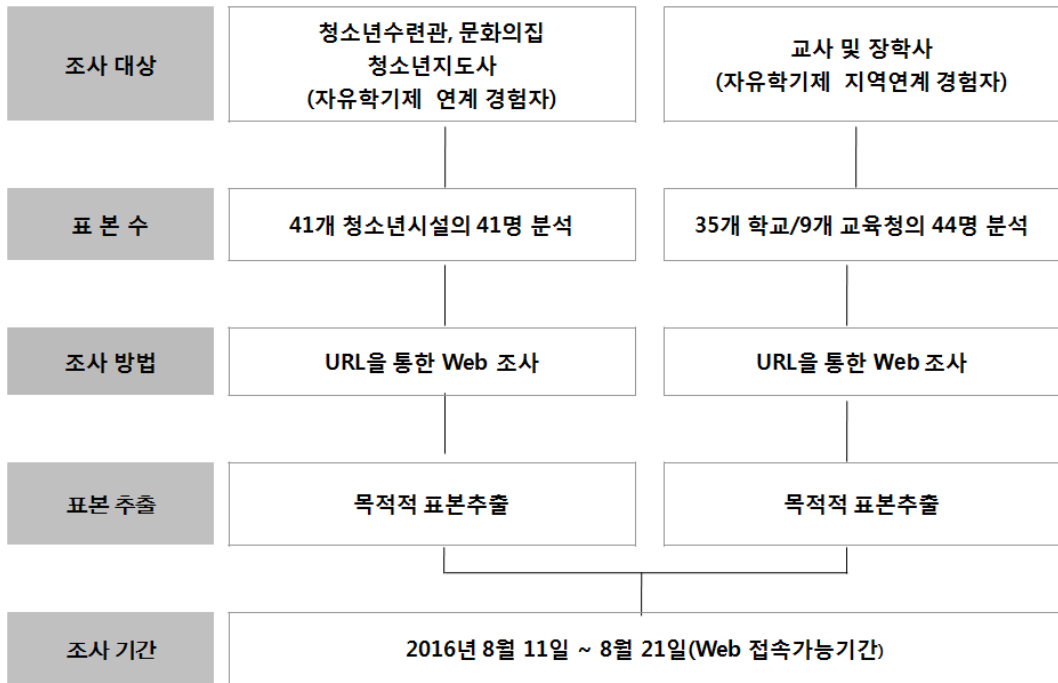
조사도구의 개발은 문헌연구, 현장워크숍, 사례연구, 면담조사 결과 개발된 연계 운영방안(14개 핵심요인, 29개 실행방안)의 핵심사항들을 단위 시설과 단위 학교의 실무자 차원의 실행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문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전문가협의를 거쳐서 단순 실행이나 관리를 의미하는 6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23문항으로 확정하였다<설문지 23문항은 부록 참고>.

조사대상은 청소년지도사(41명), 교사(35명), 교육청 장학사(9명)으로 자유학기제 지역연계 경험자로서 전문가집단이다. 자료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화통화로 경험유무를 확인하여 설문문항을 배포하였다. 학교 교사의 경우는 단순 지역체험기관 방문, 견학, 체험활동을 한 일반 담임이 아니라, 직접 자유학기 담당자로서 체험처 발굴 또는 관리, 접촉 등으로 연계를 위하여 지역사회 체험기관과 직접 실무협의 등을 해본 경험이 있는 담당 교사이다. 청소년지도사

20) 본 내용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의 경우도 학교와 직접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해 실무협의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집방법은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결과보고서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섭외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계경험을 한 담당자를 중심으로 목적적 표집으로서 전문가 추천과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스노우볼링 형태로 전문가집단으로서 설문대상자를 확보하였다. 115명 중 91명(79% 회수율)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경험있다고 응답한 8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설문조사 개요

2) 청소년지도사, 교사·장학사 분석결과 : 협업의 핵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은 91명 응답자 중에서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주제선택, 동아리, 진로탐색, 예술체육활동)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5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지도사 41명, 교사 35명, 교육청 장학사 9명으로서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종사자(청소년지도사) 41명과 학교와 교육청 종사자(교사·장학사) 44명이다.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29), 광주(1), 인천(12), 대전(2), 울산(1), 경기(19), 강원(2), 충북(1), 충남(5), 전북(1), 경북(3), 경남(4), 제주(3), 세종(2)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현재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약 99%(매우중요하다 69.4%, 중요하다 2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을 중요하게 실행해야한다는 의식은 이미 당연하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4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근무 기관유형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41	48.2
	학교	35	41.2
	교육청	9	10.6
	합계	85	100.0
소속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41	48.2
	교사·장학사 (학교, 교육청)	44	51.8
	합계	85	100.0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업무경험	경험이 있다	85	100.0
	경험이 없다	0	0
	합계	85	100.0
연계운영 인식정도	매우 중요하다	59	69.4
	중요하다	25	29.4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1.2
	합계	85	100.0

(2)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 중요도 우선순위

① 전체 응답자(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의 연계 실행방안 우선순위

전체 응답자(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의 연계 실행방안의 중요도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5순위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응답을 가중치를 두어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23개의 문항 중에서 중요도 1-12순위까지를 살펴보면, 사전실무협의,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식 준비,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연계운영방식 학교와 협의,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형태 협의, 실행실무협의, 총괄평가 차년도 연계사업, 학생 만족도 조사,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외부강사 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 중에서 전체 응답자(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1-5순위형 다중응답분석)으로 23문항 중에서 1-12순위까지 살펴보면, 상호 사전실무협의, 연계운영방식 준비,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 준비,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외부강사 확보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표 Ⅲ-15 전체 응답자(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의 협업 방안 중요도 우선순위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사전실무협의	151	1	11.84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식 준비	124	2	9.73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	116	3	9.10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113	4	8.86
연계운영방식 학교와 협의	110	5	8.63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형태 협의	96	6	7.53
실행실무협의	93	7	7.29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 준비	88	8	6.90
학생 만족도 조사	46	9	3.61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46		3.61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45	11	3.53
외부강사 확보	33	12	2.59
외부 강사교육	31	13	2.43
자체 자원분석	29	14	2.27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	25	15	1.96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참가 학생 관리	22	16	1.73
학생 개인별 평가 및 기록	22		1.73
실행체크리스트	22		1.73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참여	17	19	1.33
사전교육	17		1.33
외부 강사의 수업운영지도안 확인	12	21	0.94
학생 배정	10	22	0.78
진행 기록 관리	7	23	0.55
합계	1275		100.00

② 청소년지도사의 연계 실행방안 우선순위

청소년지도사의 연계 실행방안의 중요도 1-5순위의 가중치를 반영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 중에서 청소년지도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1-5순위형 다중응답분석)으로 23문항 중에서 1-12순위까지 살펴보면, 사전실무협의,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식 준비,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연계운영방식 학교와 협의,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형태 협의, 실행실무협의, 총괄평가 차년도 연계사업, 학생 만족도조사,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자체 자원분석, 외부강사 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청소년지도사 협업 실행방안 우선순위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사전실무협의	73	1	11.87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	67	2	10.89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식 준비	63	3	10.24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56	4	9.11
연계운영방식 학교와 협의	53	5	8.62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형태 협의	46	6	7.48
실행실무협의			
총괄평가 차년도 연계사업	44	8	7.15
학생 만족도 조사	35	9	5.69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21	10	3.41
자체 자원분석	19	11	3.09
외부강사 확보	18	12	2.93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15	13	2.44
참가 학생 관리	12	14	1.95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사전교육	10	15	1.63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참여	8	16	1.30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	7	17	1.14
외부 강사교육			
실행체크리스트	6	19	0.98
외부 강사의 수업운영지도안 확인	4	20	0.65
학생 배정	3	21	0.49
진행 기록 관리	1	22	0.16
학생 개인별 평가 및 기록			
합계	615		100.00

③ 교사 및 장학사의 연계 실행방안 우선순위

교사 및 장학사의 연계 실행방안의 중요도 1-5순위의 가중치를 반영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 중에서 교사 및 장학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1-5순위형 다중응답분석)으로 23문항 중에서 1-12순위까지 살펴보면, 사전실무협의,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식 준비, 연계운영방식 학교와 협의,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형태 협의,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 실행실무협의, 총괄평가 차년도 연계사업,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외부강사교육, 학생 개인별 평가 및 기록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교사 및 장학사 협업 실행방안 우선순위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사전실무협의	78	1	11.82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식 준비	61	2	9.24
연계운영방식 학교와 협의	57	3	8.64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형태 협의	50	5	7.58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	49	6	7.42
실행실무협의	47	7	7.12
총괄평가 차년도 연계사업	44	8	6.67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31	9	4.70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24	10	3.64
외부 강사교육			
학생 개인별 평가 및 기록	21	12	3.18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	18	13	2.73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실행체크리스트	16	14	2.42
외부강사 확보	15	15	2.27
학생 만족도 조사	11	16	1.67
참가 학생 관리	10	17	1.52
자체자원분석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참여	9	19	1.36
외부 강사의 수업운영지도안 확인	8	20	1.21
학생 배정	7	21	1.06
사전교육			
진행 기록 관리	6	23	0.91
합계	660		100.00

(3) 지역-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① 전체 응답자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

전체 응답자(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의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 15문항 중에서 중요도 1-5순위 분석결과, 체험활동 예산(교통비, 재료비, 강사료 등),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전담인력(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 부족), 이동수단(교통수단, 학생인솔, 답사 등),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3순위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응답을 가중치를 두어서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이다.

표 III-18 전체 응답자(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의 협업이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체험활동 예산(교통비,재료비,강사료 등)	84	1	16.47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75	2	14.71
전담인력(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 부족)	68	3	13.33
이동수단(교통수단,학생인솔,답사등)	55	4	10.78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50	5	9.80
원시스템(교육청-구청 연계로 기록,안내,정보지원 등)	36	6	7.06
지역교육력(강사역할,체험처,교육환경등)향상을 위한 교육청,지자체-청소년시설-학교의 지원 부족	35	7	6.86
청소년시설의 학교이해를 위한 교육부족(시기, 행정등)	28	8	5.49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안전대책(활동장소, 건강, 안전교육 등)	27	9	5.29
청소년활동시설 설립부족(행정권역별로 청소년접근 용이하도록 시, 군, 구에 설립필요)	26	10	5.10
교육멘토양성(지역체험기관 내의 강사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양성 및 운영시스템 마련)	14	11	2.75
청소년지도사의 내부 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 작성등 교육역량 부족	7	12	1.37
체험기관 세금감면(지속적인 체험참여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과 기부금 합법화필요)	3	13	0.59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가이드북의 연구개발 및 보급부족	2	14	0.39
입장료할인	0	15	0
합계	510		100.00

② 청소년지도사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

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 15문항 중에서 중요도 1-5순위 분석결과, 체험활동 예산(교통비,재료비,강사료등),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전담인력(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 부족), 이동수단(교통수단,학생인솔,답사등), 지역 교육력(강사역할,체험처,교육환경등)향상을 위한 교육청,지자체-청소년시설-학교의 지원 부족,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3순위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응답을 가중치를 두어서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이다.

표 Ⅲ-19 청소년지도사 입장에서 협업이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체험활동 예산(교통비,재료비,강사료등)	54	1	21.95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45	2	18.29
전담인력(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 부족)	30	3	12.20
이동수단(교통수단,학생인솔,답사등)	27	4	10.98
지역교육력(강사역할,체험처,교육환경등)향상을 위한 교육청,지자체-청소년시설-학교의 지원 부족	19	5	7.72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청소년시설의 학교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시기, 행정 등)	18	7	7.32
청소년활동시설 설립부족(행정권역별로 청소년접근 용이하도록 시, 군, 구에 설립필요)	12	8	4.88
안전대책(활동장소, 건강, 안전교육등)	8	9	3.25
지원시스템(교육청-구청 연계로 기록, 안내, 정보지원 등)	5	10	2.03
교육멘토양성(지역체험기관 내의 강사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양성 및 운영시스템 마련)	3	11	1.22
체험기관 세금감면(지속적인 체험참여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과 기부금 합법화필요)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가이드북의 연구개발 및 보급부족	2	13	0.81
청소년지도사의 내부 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 작성등 교육역량 부족	1	14	0.41
입장료할인	0	15	0.00
합계	246		100.00

③ 교사 및 장학사

전체 응답자(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의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의 중요도 15문항 중에서 중요도 1-5순위 분석결과는,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전담인력(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 부족), 지원시스템(교육청-구청 연계로 기록, 안내, 정보지원 등), 체험활동 예산(교통비, 재료비, 강사료 등), 이동수단(교통수단, 학생인솔, 답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3순위의 가중치를 반영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표 III-20 교사 및 장학사 입장에서 협업이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56	1	21.21
전담인력(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 부족)	38	2	14.39
지원시스템(교육청-구청 연계로 기록, 안내, 정보지원 등)	31	3	11.74
체험활동 예산(교통비, 재료비, 강사료 등)	30	4	11.36
이동수단(교통수단, 학생인솔, 답사 등)	28	5	10.61
안전대책(활동장소, 건강, 안전교육 등)	19	6	7.20

구분	빈도	순위	비율 (%)
지역교육력(강사역할, 체험처, 교육환경 등) 향상을 위한 교육청, 지자체-청소년시설-학교의 지원 부족	16	7	6.06
청소년활동시설 설립부족(행정권역별로 청소년접근 용이하도록 시, 군, 구에 설립 필요)	14	8	5.30
교육멘토양성(지역체험기관 내의 강사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양성 및 운영시스템 마련)	11	9	4.17
청소년시설의 학교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시기, 행정 등)	10	10	3.79
청소년지도사의 내부 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 작성 등 교육역량 부족	6	11	2.27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 부족	5	12	1.89
입장료할인	0	13	0.00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가이드북의 연구개발 및 보급부족			
체험기관 세금감면(지속적인 체험참여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과 기부금 합법화 필요)			
합계	264		100.00

3) 시사점

조사목적은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정책과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따라서 분석방법은 1-5순위 다중응답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web 설문조사이다. 조사내용은 연계 운영방안의 핵심사항들을 단위 시설과 단위 학교의 실무자 차원의 실행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다. 조사대상은 청소년지도사(41명), 교사(35명), 교육청 장학사(9명)으로 자유학기제 지역연계 경험자로서 전문가집단이다. 115명 중 91명(79% 회수율)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경험있다고 응답한 8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에 대한 인식정도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약 99%로 나타났다. 이는 연계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 99%가 지역 자유학기제 연계가 중요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 집단별 자유학기제행연계 실행방안 중요도 우선순위 비교

청소년지도사(41명), 교사·장학사(44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계 실행방안(23문항)의 중요도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5순위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응답에 가중치를 두어서 다중응답 분석을 한 결과이다.

집단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 중요도 우선순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응답자는 상호 사전실무협의, 연계운영방식 준비,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 준비,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시설과 자유학기제 연계운영을 일회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계로서 상호 협업과정에서 필요한 사전실무협의, 프로그램과 청소년지도사를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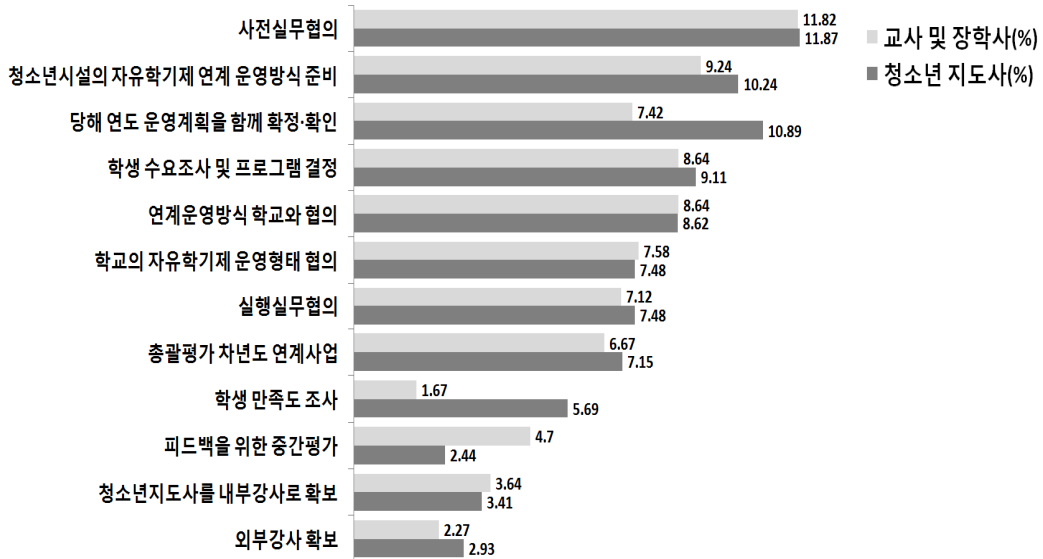
둘째, 청소년지도사의 의견에서 특징적인 점은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자체자원분석이 중요한 순위로 강조된 점이다. 이는 사전협의 뿐만 아니라 이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나 강사문제, 자체자원분석 등 근본적인 사항이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사 및 장학사의 의견에서 특징적인 점은 학생만족도조사(16순위)는 순위가 낮게 나타났고,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9순위)의 강조와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10순위), 학생개인별 평가 및 기록(12순위)이 강조된 점이다. 이는 자유학기 활동이 시험은 없지만 교육과정으로 지역 시설 연계운영을 할 때, 상호 중간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강사의 안정성과 질 관리로 청소년지도사가 그 역할을 일정 담당해 주기를 바라며, 학생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과정평가와 활동기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21 집단별 협업 실행방안 우선순위 비교

순위	전체 응답자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	청소년지도사	교사 및 장학사
1	사전실무협의	사전실무협의	사전실무협의
2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식 준비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식 준비
3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식 준비	연계운영방식 학교와 협의

순위	전체 응답자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	청소년지도사	교사 및 장학사
4	학생수요조사 및 프로그램결정	학생수요조사 및 프로그램결정	학생수요조사 및 프로그램결정
5	연계운영방식 학교와 협의	연계운영방식 학교와 협의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형태 협의
6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형태 협의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형태 협의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
7	실행실무협의	실행실무협의	실행실무협의
8	총괄평가 차년도 연계사업	총괄평가 차년도 연계사업	총괄평가 차년도 연계사업
9	학생 만족도 조사	학생 만족도 조사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10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11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자체 자원분석	외부 강사교육
12	외부강사 확보	외부강사 확보	학생 개인별 평가 및 기록
13	외부 강사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
14	자체 자원분석	참가 학생 관리	실행체크리스트
15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	사전교육	외부강사 확보
16	참가 학생 관리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참여	학생 만족도 조사
17	학생 개인별 평가 및 기록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	참가 학생 관리
18	실행체크리스트	외부 강사교육	자체 자원분석
19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참여	실행체크리스트	학생 학부모 설명회 참여
20	사전교육	외부 강사의 수업운영지도안 확인	외부 강사의 수업운영지도안 확인
21	외부 강사의 수업운영지도안 확인	학생 배정	학생 배정
22	학생 배정	진행 기록 관리	사전교육
23	진행 기록 관리	학생 개인별 평가 및 기록	진행 기록 관리



【그림 -2】 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 실행방안 우선순위 차이

(2) 집단별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비교

첫째, 집단별(전체응답자, 청소년지도사, 교사·장학사)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로 중요도 1-3순위의 가중치를 반영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별로 비교하였을 때의 15문항 중에서 1-8순위까지의 공통적인 요구로 체험활동 예산,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전담인력, 이동수단, 지역 교육력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이상의 공통적인 요구를 포함하면 지원시스템,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청소년시설의 학교이해를 위한 교육부족으로 나타났다.

2014년 청소년지도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우선순위 요구사항 조사결과를 보면,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개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로 나타났다(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2014).

2014년과 2016년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비교해보면, 일정부분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된 부분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관련 법령의 제정,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체험활동 예산,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전담인력, 이동수단, 지원시스템은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집단별 협업이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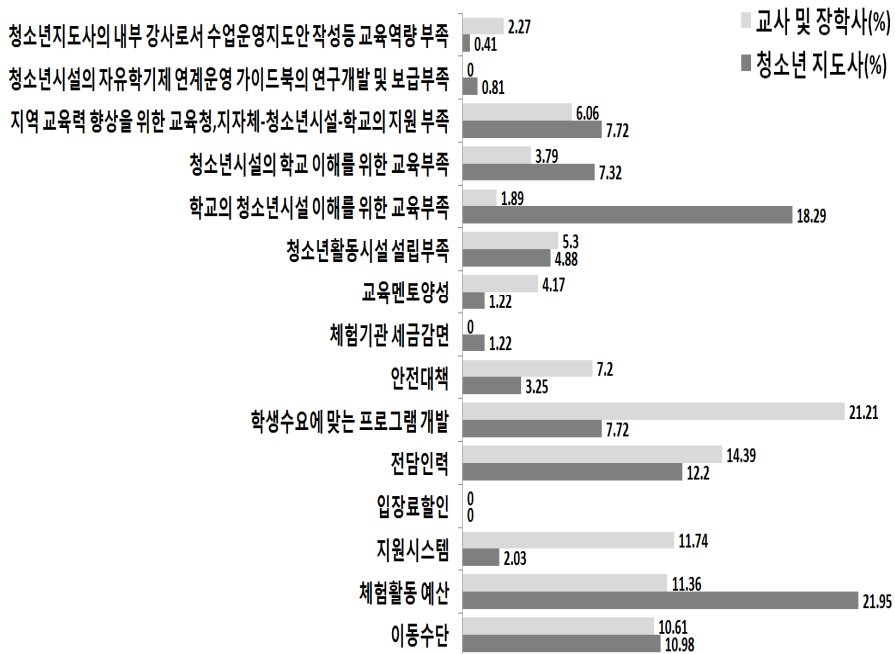
순위	전체 응답자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장학사)	청소년지도사	교사 및 장학사
1	체험활동 예산	체험활동 예산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2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전담인력
3	전담인력	전담인력	지원시스템
4	이동수단	이동수단	체험활동 예산
5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지역 교육력	이동수단
6	지원시스템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안전대책
7	지역 교육력	청소년시설의 학교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지역교육력
8	청소년시설의 학교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부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부족
9	안전대책	안전대책	교육멘토양성
10	청소년활동시설 설립부족	지원시스템	청소년시설의 학교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11	교육멘토양성	교육멘토양성	청소년지도사의 내부 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 작성등 교육역량 부족
12	청소년지도사의 내부 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 작성등 교육역량 부족	체험기관 세금감면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13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가이드북의 연구 개발 및 보급부족	입장료할인
14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가이드북의 연구 개발 및 보급부족	청소년지도사의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 작성 등 교육역량 부족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가이드북의 연구 개발 및 보급부족
15	입장료할인	입장료할인	체험기관 세금감면

2016년의 조사결과의 특징은 실행에 필요한 체험활동 예산 지원, 그리고 좀 더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지원으로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지역교육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점이다. 물론 이동수단이나 전담인력, 예산 등 여전히 정책지원이 현장에 연결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의 요구도 여전하지만, 2014년에 비해서 2016년 전면실행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활동

예산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사항에 대한 현장의 요구 순위가 높은 것은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정부도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력과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교육역량의 기회와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지원해야할 때이다. 학교내에서만, 교사들만으로는 자유학기 활동 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지속가능한 진로교육을 통한 성과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학기제에서 지역 체험활동이라는 용어를 우리 동네지역으로 한정하거나 직업체험으로만 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타지역을 얼마든지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꿈끼를 키우는 활동으로 확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청-구청의 안내 및 정보지원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정부에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자유학기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꿈길, 교육기부매칭사이트, 크레존을 통합하여 구축(서우석 외, 2014)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단위 학교나 단위 청소년시설에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림 -3】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이 어려운 이유 우선순위 차이(전체문항)

둘째, 2014년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결과, 청소년지도사의 1-4순위가 학교의 이해부족,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 지원부족, 정보교류시스템부족, 예산부족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1-4순위는 지역자원부족, 업무과다, 예산부족, 지역 교육멘토 전문성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2014). 2016년에 청소년지도사의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를 보면,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체험활동 예산,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 부족, 전담인력, 이동수단, 지역교육력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우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전담인력, 지원시스템, 체험활동예산, 이동수단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6년의 학교-지역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로 청소년지도사는 여전히 학교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예산을 1-2순위의 어려움으로 제시한 점이며, 이는 학교에서 지역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으며, 지역 공공청소년시설에 자유학기 활동 연계를 권장하지만 지속적인 진로교육과의 연계가 현실화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 IV 장



정책방안 :

지역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협업방안

1. 협업 방안 개요 : 절차 및 핵심사항
2. 협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3. 추진 로드맵

제 IV 장

정책방안:

지역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협업 방안²¹⁾

2016년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시점이라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보다는 현장에 전면 실행하는 단계임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 개발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부 정책 중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 체험활동 사업과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시설-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 제공, 셋째,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체험활동 자원을 통해 자유학기제와 지속가능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핵심요인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확대와 함께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연계운영을 위한 일선 기관들의 실무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연계 운영방안 개발과 연계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다. 연계 운영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적 중기적인 단계의 지원내용을 추진 로드맵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로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한 체험활동을 말하며, 연계운영의 의미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한 학기 약 8 회차 이상의 지속가능한 연계운영으로서 협업을 말한다. 이를 학교나 지역사회 체험기관에서 시사점을 가지고 현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21) 본 내용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 협업 방안 개요 : 절차 및 핵심사항

1)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절차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의 운영절차는 준비, 운영, 정리의 몇 가지 세부단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자율과정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자유학기제의 도입 목적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자율성, 교사들의 전문성,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다(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외, 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의 중재조건은 학교의 특성, 청소년기관의 특성, 지역기관의 특성, 청소년활동의 특성으로 도출되었다. 중재조건은 인과적 조건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약화되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2014).

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외(2014)의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운영절차의 순서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2단계로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연구팀의 협의를 통한 운영모형 결정, 학생 수요조사 실시 및 프로그램 결정, 자율과정 운영계획 수립, 자율과정 담당자 연수, 학습지도안 작성, 자율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학생 프로그램 배정, 자율과정 운영, 자율과정 학생 만족도 조사 및 중간평가 실시, 자율과정에 대한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자율과정 운영 성과 발표 및 자료집 제작, 자유학기 이후 학년 교육과정과의 연계방안 모색이다. 정영근, 민용성, 변희현 외(2015)는 교사 입장에서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방안으로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 교수학습 방법, 평가계획 및 실시,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 지역연계 체험활동 편성·운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차별적으로 청소년시설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절차를 총 14단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지역 연계운영 절차는 문헌조사, 청소년시설과 학교 담당자 워크숍과 면담조사를 통하여 작성하였다. 첫째, 기획단계로는 자원분석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사전실무협의, 자유학기 프로그램 실행실무협의, 학교의 학생 수요조사 실시 및 프로그램 결정내용 파악, 자유학기활동 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정 및 확인, 자유학기활동 연계운영 담당자 연수 및 사전교육, 강사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도안 작성이다. 둘째, 실행단계로는 학교의 지역연계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파악, 학교의 프로그램 별 학생 배정 파악, 지역연계 자유학기활동 운영 및 관리, 학생만족도 조사 및 중간평가 결과공유이다. 셋째,

평가단계로는 운영 성과관리: 발표(전시) 및 자료집 제작, 자유학기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기록 및 과정평가, 총괄평가 및 향후 연계방안 모색: 차년도 연계사업 협의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3~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운영(2013.2학기~)으로 (2013) 42교 → (2014) 811교 (25%) → (2015) 2,551교(80%) 시범운영(교육부, 2015.11.25.)을 거쳐서 2016년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1】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절차²²⁾

22) 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외(2014)의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매뉴얼과 정영근 외(2015)의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방안 등을 참고하고, 청소년시설과 학교 담당자 면담조사를 통하여 작성하였음.

2) 핵심요인과 협업 방안

본 장에서는 개발된 지역사회 청소년시설-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연계 운영방안은 학교-지역 청소년시설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절차 별로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그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연계 운영방안 개발과정은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장학사를 대상으로 문헌 자료분석, 현장 사례조사, 개별 심층면담, 전문가협의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분석하여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계 운영방안은 각 핵심요인 별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핵심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계 운영방안은 3단계별로 14개의 핵심요인과 29개의 실행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는 기획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서 절차상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러나 단위 청소년시설이나 단위 학교에서 활용할 때는 기관의 자원과 여건에 따라 각 단계별로 핵심요인과 실행방안을 순서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비슷한 내용의 핵심요인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

14개의 핵심요인은 자체자원분석, 사전실무협의, 실행실무협의, 학교의 학생수요조사 및 프로그램결정, 연계운영계획 확정 및 확인, 담당자 사전교육, 강사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도안 작성, 자유학기 활동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학교의 학생 프로그램 배정, 지역연계 자유학기 활동 운영 및 관리,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 운영성과관리로 전시발표 및 자료집 제작,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기록/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협의이다.

29개의 실행방안은 협업 사항임으로 학교나 청소년시설의 업무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협업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모두 제시한 것이다. 이는 협업에 필요한 추진사항들로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호 이해하고 확인해야하는 사항도 포함한 내용이며,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에 맞게 순서대로 진행하거나 몇가지 항목을 함께 진행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등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표 IV-1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시설-학교 자유학기제 협업 방안

단계	절차 및 핵심요인	협업 사항
기획	1. 자체 자원분석	1) 청소년시설과 학교의 자체 자원분석(예산, 인력, 기관장 의지)을 실시한다.
		2) 청소년시설에서 학교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을 준비한다(무료, 유료, 한 학기, 일회성, 기간, 강사 등)
		3) 학교에서 지역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을 준비한다(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예산, 한 학기, 일회성 등)
	2. 사전실무협의	4) 청소년시설의 기존 프로그램 내용과 연계 운영방식에 대한 핵심 논의사항을 학교와 협의한다.
		5) 학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프로그램, 예산 등 핵심 논의사항을 협의한다.
		6) 청소년시설과 학교가 사전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상호 사업계획에 반영한다(예시: 전년도 11월 사전실무협의, 2월 사업확정 등)
	3. 실행실무협의	7)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실행실무협의를 통해 당해 연도 자유학기활동 내용 및 세부 진행일정을 결정한다.
		8) 교사와 청소년시설 간 역할분담을 위한 실행체크리스트를 통해 역할분담을 논의한다.
	4. 학교의 학생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결정	9) 학생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결정 내용을 파악한다(약3월경 실시)
	5. 연계운영계획 확정 및 확인	10)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자유학기 연계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한다.
	6. 담당자 사전교육	11) 학교-지역 상호 이해교육(학교/청소년시설의 행정과 프로그램 특성 등)을 실시한다.
		12) 기관 별로 학교-지역 협업을 위한 실무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활용하여 실무역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7. 강사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도안 작성	13)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한 외부강사를 확보한다.
		14)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강사교육을 실시한다.
		15)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가 작성한 수업운영지도안 개요를 확인한다.
		16)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에게 역량강화 기회를 주어 내부강사로 확보한다.
		17)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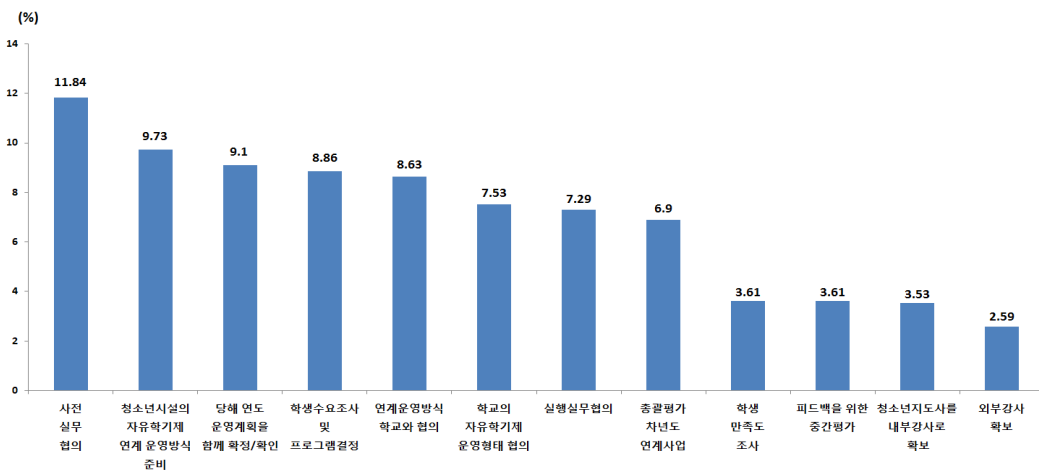
단계	절차 및 핵심요인	협업 사항
실행 단계	8. 자유학기 활동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18) 학교에서 개최하는 자유학기제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를 청소년시설에서도 참여한다.
	9. 학교의 학생 프로그램 배정	19) 학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별 학생 배정 내용을 청소년시설에서 파악한다.
	10. 지역연계 자유학기 활동 운영 및 관리	20) 시설에서 내·외부 강사를 관리한다.
		21) 시설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관리한다.
		22) 시설에서 학습 교보재를 관리한다.
		23) 참가 학생을 관리한다(출석체크, 안전지도 등).
11.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	24) 진행기록(자료집 제작 등에 활용)을 관리한다.	
	25)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평가 단계	12. 운영성과관리: 전시(발표) 및 자료집 제작	26)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13. 자유학기 활동기록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27) 진행 기록 관리를 통해서 전시, 발표, 자료집 제작 등 결과물을 산출한다.
	14.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 협의	28)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활동기록 및 과정평가, 사업 결과보고서를 위한 활동기록을 한다. (학생 스스로 기록 및 지도자 관찰기록, 과정평가 방법 등)
		29) 총괄평가 및 향후 연계방안 모색을 위하여 차년도 연계사업을 협의한다.

2. 협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그동안 자유학기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6.8.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6.8.4.),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확정(2015.11.25.), 진로교육법 제정(2015.6.22.), 청소년활동진흥법(2016.5.29) 등으로 법적 제도적 규정, 사업계획은 구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지역-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학교 자유학기 활동 연계운영 사업과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법, 국가계획, 제도적 정책이 현장에 잘 실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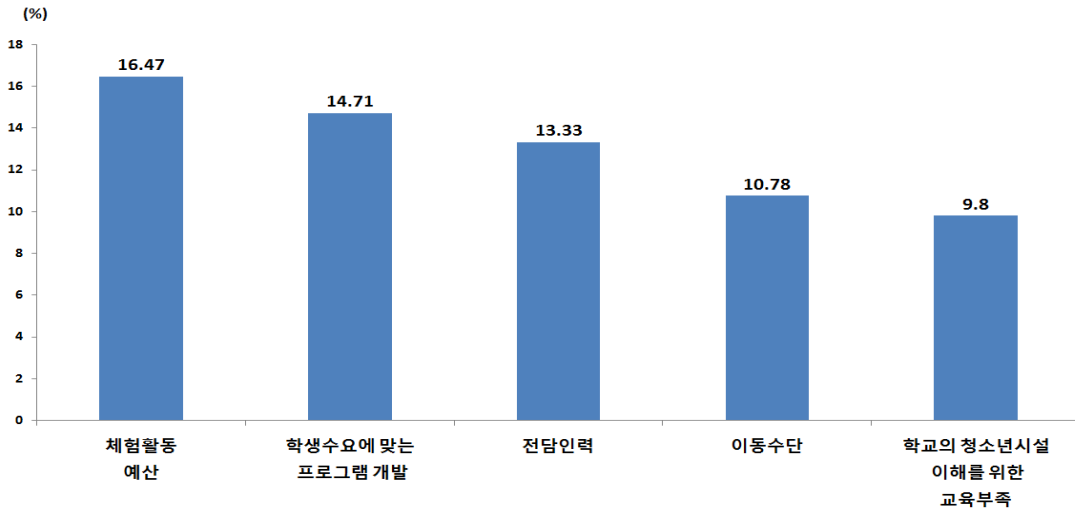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개발된 운영방안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써 이를 위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정책과제는 예산 등 당면문제 뿐만이 아니라, 좀 더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 청소년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제공,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지역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개발과 교사의 지역이해 역량개발 등의 정책과제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지역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필요한 협업사항과 상호 필요한 역량개발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하여 문헌조사, 현장 사례조사, 문헌 실증자료 분석, 개별 심층면담을 통하여 개발된 연계운영 방안을 설문지로 개발하여 전문가집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41명), 교사·장학사(44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계 실행방안(23문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1-5순위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응답을 가중치를 두어서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계 실행방안(23문항) 중에서 전체응답자의 1-12순위를 살펴보면, 상호 사전실무협의를, 연계운영방식 준비, 학생 수요 조사 및 프로그램,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 준비,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시설과 자유학기제 연계운영은 일회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계를 인식하면서 상호 협업과정에서 필요한 사전기획단계의 사항들과 프로그램과 청소년지도사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 실행방안 우선순위(1-5순위형 다중응답분석)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우선순위로 중요도 1-3순위의 가중치를 반영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여 세 집단별(전체응답자, 청소년지도사, 교사·장학사)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계가 어려운 이유 15문항 중에서 1-8순위까지의 공통적인 요구로는 체험활동 예산,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전담인력, 이동수단, 지역 교육력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이상의 공통적인 요구를 포함하면 지원시스템,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청소년시설의 학교이해를 위한 교육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림 -3】교사와 청소년지도사의 협업이 어려운 이유(1-3순위형 다중응답분석)

이러한 설문 조사결과와 정책협의회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정책영역, 9개의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방안의 구성 틀은 정책영역 별로 문제현상, 문제원인, 대책마련 및 추진방안, 범·예산·추진체계 개선방안, 현장 활용 Tip, 추진 로드맵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3개의 정책영역은 학교와 지역기관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 협력체계 구축, 학생 수요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제공, 지역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와 학교의 교사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이다. 도출된 9개의 정책과제는 자체자원분석 및 사전실무협의, 실행실무협의, 담당자 사전교육, 사전 수요조사와 홍보로 자율참여 증진, 정부공모사업 조정 및 확대, 공공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활동 사업비 지원,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및 교육역량 강화, 교사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 방안,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증대이다.

본 장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운영이 잘 실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단체가 체험활동 자원을 통해 자유학기제와 지속가능한 연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실행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확대와 함께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1)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 협력체계 구축

[정책영역1]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 협력체계 구축	
: 사전에 자유학기 활동 연계운영을 준비하는 현장 기관별 사전실무협의를 지원	
추진 방안	<p>과제1) 기관별 자체자원분석 및 사전실무협의 지원</p> <p>(1)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주위의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정보로 제공하면서 사전실무협의를 권고사항으로 하며 이를 공문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p> <p>(2) 학교-지역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실무협의를 위한 연수를 개최한다. 협의할 구체적인 실무 안건을 가진 현장 차원의 실무협의방안을 안내하고 제공한다.</p> <p>(3) 사전실무협의를 실행하여 반영한 실적을 학교평가 지표/청소년시설 평가지표에 제시한다.</p> <p>(4) 현장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실무담당자의 만남으로 회의비, 다과비 식사비, 교통비, 사전 실무협의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p> <p>(5) 진로교육법의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 등 관련 조항에 단위학교 차원의 사전실무협의를 촉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를 만든다.</p> <p>(6)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설평가 지표에서 기관 차원에서 주최하는 사전실무협의 개최의 반영실적을 평가지표로 제공한다.</p>
	<p>과제2) 자유학기 프로그램 실행실무협의 지원</p> <p>(1) 단위 학교와 단위 시설 차원의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설 등의 이해를 위한 교사 교육을 실시한다.</p> <p>(2) 교사와 청소년시설 간의 자유학기 활동 연계를 위한 상호 실행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개발하여 배포한다.</p> <p>(3)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자유학기 연계 당시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한다.</p>
	<p>과제3) 담당자 사전교육 지원</p> <p>(1) 학교-지역 상호 이해교육(학교/청소년시설의 행정과 프로그램 특성 등)을 실시한다.</p> <p>(2) 기관 자체에서 학교-지역 연계운영 실무체크리스트양식 등을 활용하여 실무역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p> <p>(3) 자유학기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활동기록 및 과정평가 방법을 교육한다.</p> <p>(4)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활용방안을 교육한다.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결과를 공유한다.</p> <p>(5) 향후 총괄평가 내용 및 차년도 연계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한다.</p> <p>(6)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가이드북(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한다.</p>

○ 문제현상

첫째, 학교와 지역기관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실무 협력체계 관련 현재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까지 실무와 연결될 수 있게 실행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기존의 사전협력체계 구축이 교육청 차원이나 폭넓은 협력기관 차원으로 진행되어 현장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회의참석은 하지만 실질적 성과와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자유학기제 협의체 운영 관련 법·제도적 근거와 관련하여 진로교육법(2015)과 진로교육법 시행령(2015) 등을 살펴보면, 현장 실무자들이 아니라 각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중심의 폭넓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이다. 현장 실행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사전실무협의를 위한 자유학기 활동 사전실무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형식적인 업무협약에서 실질적인 협업체제 운영을 통한 공동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사전실무협의를 논의할 때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지역청소년시설과 학교 자유학기제의 연계운영 방안에 대한 심층 면담 결과, 사전실무협의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계운영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전실무협의를의 중요도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실행방안 23문항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1-5순위 다중응답분석 결과) 분석결과이다.

둘째,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일회성 활용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진로교육을 위해서 협업 관점에서의 인식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실증적으로 2014-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 160개를 분석한 결과, 학교의 지역시설활용 비율은 평균 74%이며, 지역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비율은 평균 54%로 과반수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2014-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활용 비율²³⁾

구분	연구학교	지역시설 연계경험 연구학교	연구학교의 지역활용비율	학교연계 지역시설	학교연계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비율
2015년	80개교	60개교	75%	74개 시설	42개 시설	57%
2014년	80개교	57개교	71%	77개 시설	40개 시설	52%
평균	80개교	59개교	74%	76개 시설	41개 시설	54%

23) 2015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80개)와 20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80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를 분석한 것임. 본 보고서 <표 III-8> 참고.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위탁운영하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비율

2015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센터	위탁운영비율	위탁운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위탁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비율
계	203개소	130개소	64%	130개소	64개소	49%

자료: 여성가족부(2016d). 청소년(수련)시설 내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 내부자료를 재정리함. 본 보고서, <표 III-12> 참고.

셋째, 지자체에서 자유학기제 등 학생 지역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확대·설치비용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 2014-2015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설 중 54%가 청소년수련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학교의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에 대한 지자체의 설치비용은 저조하다. 지자체에서 자유학기제 등 학생 지역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을 확대·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국 중학교가 3,173개이고 읍·면·동이 3,488개임으로 읍·면·동마다 문화의집이 활성화되면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2014).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체험기관들이 있지만, 학교가 연계를 가장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의 경우는 98%가 공공기관(여성가족부, 2015a)이며,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고 있으며 생활권 내의 청소년지도사와 시설, 프로그램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초·중·고 학생수/ 학교수/ 교육지원청수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비율

구분	산출근거	단위학교당 청소년(수련)시설 수(%)
1	중학교수/ 청소년(수련)시설수	3,173/ 787 학교 4.0개 당 1개 시설
2	초·중·고 교육지원청수/ 청소년(수련)시설수	179/ 787 1개 교육지원청 당 4.4개 시설
3	초·중·고 학생수/ 청소년(수련)시설수	6,285,792/ 787 학생 7,987명 당 1개 시설
4	초·중·고 학교수/ 청소년(수련)시설수	11,446/ 787 학교 14.5개 당 1개 시설

참고: 교육통계서비스(2014.11.12). 유초중등 학교급별 개황. <http://kess.chedi.re.kr/index>에서 2014. 11. 12에 인출. 여성가족부(2015a). 청소년백서를 임지연(2015). p.56에서 재인용하여 수정·보완함. 본 보고서, <표 III-10> 참고.

○ 행정구역별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설치 비율

구분	시군구	수련관	시군구 수련관 설치비율	읍·면·동	문화의집	읍·면·동 문화의집 설치비율
계	227	187	82.4%	3488	233	6.68%

참고: 여성가족부(2015a), 안전행정부(2013)을 임지연,김정주,김정숙(2014). P.158.에서 재인용하여 수정·보완함. 본 보고서 <표 III-11> 참고.

그러나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인력,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연계만 하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자유학기제의 방향이 한 학기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학기와 학년, 교급과도 연결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담당자 사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연계 운영이라는 것은 담당자의 역할이 절대적인 핵심요인인데 담당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교육이 거의 없다.

○ 문제원인

그동안 학교와 지역기관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 협력체계가 실효성이 없었던 문제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별 자체자원분석 및 사전실무협의를 실효성 있게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연계운영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지원이 없고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상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지도사가 연계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체험활동예산(1순위),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2순위), 청소년시설의 학교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7순위)로 나타났다. 연계 운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설명회, 연수 등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학기 프로그램 실행실무협의를 실효성있게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상호 기관의 특징과 행정절차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내실있게 실행단계까지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입장에서는 자유학기 활동 연계가 의무사항도 아니고 동아리활동이나 청소년운영위원회나 기타 활동들처럼 체험활동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 즉 정책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 대책마련 및 추진방안

본 연구의 조사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기관별 자체자원분석 및 사전실무협의, 둘째, 자유학기 프로그램 실행실무협의, 셋째, 담당자 사전교육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기관별 자체자원분석 및 사전실무협의 지원방안

- ①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주위의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정보제공하면서 사전실무협의를 권고 사항으로 하여 공문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 ② 학교-지역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실무협의를 위한 연수를 개최한다. 협의할 구체적인 실무 안건을 가진 현장 차원의 실무협의방안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 ③ 사전실무협의를 실행하여 반영한 실적을 학교평가 지표/청소년시설 평가지표에 제시한다.
- ④ 현장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실무담당자의 만남으로 회의비, 다과비, 식사비, 교통비, 사전실무협의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⑤ 진로교육법의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 등 관련 조항에 단위학교 차원의 사전실무협의를 촉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를 만든다.
- ⑥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설평가 지표에서 기관 차원에서 주최하는 사전실무협의 개최의 반영실적을 평가지표로 제공한다.

(2) 자유학기 프로그램 실행실무협의 지원방안

- ① 단위 학교와 단위 시설 차원의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설 등의 이해를 위한 교사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교사와 청소년시설 간의 자유학기 활동 연계를 위한 상호 실행체크리스트 양식²⁴⁾ 등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 ③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자유학기 연계 당시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한다.

24) 추진 활용 Tip으로 <표Ⅳ-2> 예시로 제시하였음.

(3) 담당자 사전교육 지원방안

- ① 학교-지역 상호 이해교육(학교/청소년시설의 행정과 프로그램 특성 등)을 실시한다.
- ② 기관 자체에서 학교-지역 연계운영 실무체크리스트양식 등을 활용하여 실무역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③ 자유학기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활동기록 및 과정평가 방법을 교육한다.
- ④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활용방안을 교육한다.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 ⑤ 향후 총괄평가 내용 및 차년도 연계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한다.
- ⑥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가이드북(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한다. 기존 학교입장의 진로직업체험센터 매뉴얼(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매뉴얼(최상덕 외, 2014) 참고한다.

(4) 추진 활용 Tip

표 IV-2 < 예시 > 청소년시설-학교 자유학기제 협업 실행체크리스트 양식

작성날짜 :				
담당 청소년지도자 :		담당 교사 :		
항 목	세 부 항 목	실시여부 (O, X)	점검자의견	
1. 자체 자원분석	1) 청소년시설과 학교의 자체 자원분석(예산, 인력, 기관장 의지)을 실시한다.			
	2) 청소년시설에서 학교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을 준비한다(무료, 유료, 한 학기, 일회성, 기간, 강사 등).			
	3) 학교에서 지역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방식을 준비한다(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예산, 한 학기, 일회성 등)			
2. 사전실무협의	4) 청소년시설의 기존 프로그램 내용과 연계 운영방식에 대한 핵심 논의사항을 학교와 협의한다.			
	5) 학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프로그램, 예산 등 핵심 논의사항을 협의한다.			
	6) 청소년시설과 학교가 사전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상호 사업계획에 반영한다(예시: 전년도 11월 사전실무협의, 2월 사업확정 등).			
3. 실행실무협의	7)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실행실무협의를 통해 당해 연도 자유학기활동 내용 및 세부 진행일정을 결정한다.			
	8) 교사와 청소년시설 간 역할분담을 위한 실행체크리스트를 통해 역할분담을 논의한다.			

작성날짜 :				
담당 청소년지도자 :		담당 교사 :		
항 목	세 부 항 목	실시여부 (O, X)	점검자의견	
4. 학교의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9)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내용을 청소년시설에서 파악한다.(3월경 실시)			
5.연계운영계획 확정 및 확인	10)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자유학기 연계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한다.			
6. 담당자 사전교육	11) 학교-지역 상호 이해교육(학교/청소년시설의 행정과 프로그램 특성 등)을 실시한다.			
	12) 기관 별로 학교-지역 협업을 위한 실무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활용하여 실무역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7. 강사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도안 작성	13)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한 외부강사를 확보한다.			
	14)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강사교육을 실시한다.			
	15)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가 작성한 수업운영지도안 개요를 확인한다.			
	16)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에게 역량강화 기회를 주어 내부강사로 확보한다.			
	17)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한다.			
8. 자유학기 활동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18) 학교에서 개최하는 자유학기제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를 청소년시설에서도 참여한다.			
9. 학교의 학생 프로그램 배정	19) 학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별 학생 배정 내용을 청소년시설에서 파악한다.			
10. 지역연계 자유학기 활동 운영 및 관리	20) 시설에서 내·외부 강사를 관리한다.			
	21) 시설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관리한다.			
	22) 시설에서 학습 교보재를 관리한다.			
	23) 참가 학생을 관리한다(출석체크, 안전지도 등).			
11. 학생 만족도 조사 및 중간평가 실시	24) 진행기록(자료집 제작 등에 활용)을 관리한다.			
	25)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12. 운영성과관리: 전시(발표) 및 자료집 제작	26)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27) 진행 기록 관리를 통해서 전시, 발표, 자료집 제작 등 결과물을 산출한다.			
13.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28)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활동기록 및 과정평가를 한다. (학생 스스로 기록 및 지도자 관찰기록, 과정평가 방법 등)			
14. 총괄평가 및 차년도 연계사업 협의	29) 총괄평가 및 향후 연계방안 모색을 위하여 차년도 연계사업을 협의한다.			

(5) 법·예산·추진체계 개선방안

자유학기제 지역협의체 운영 관련 법·제도적 근거를 살펴보면, 그동안 자유학기제 지역 연계운영에 필수적인 지역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법·제도적 규정은 구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지역-학교 연계 자유학기제 실행단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지역연계 운영과 관련된 법, 국가계획, 제도적 정책이 현장에 잘 실행되도록 연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사전실무협의회, 실행실무협의회, 사전교육을 제안하였다.

표 IV-3 자유학기제 지역협의체 운영 관련 법·제도적 근거

출처 및 관련법	해당 내용
진로교육법 ²⁵⁾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진로체험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국가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²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제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²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4조 3항에 따른 자유학기제와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015년 지역 자유학기제-진로체험 지원센터용 매뉴얼 ²⁸⁾ (지역협력체계 구축, 기관장 협의회, 자유학기제-진로체험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협력체계 (주체) 시군구 기초지자체,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단체) 기관장 협의회→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필요성) ① 학생의 진로체험은 지역에 기반한 지역 학습 생태계 속에서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② 지역 학습 생태계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야 함. ○ 기관장 협의회 (명칭) 교육행정협의회/교육발전위원회/진로교육협의회 등 지역에 따라 명칭과 구성이 다양함 ※ 법적 근거(지자체 자치법규, 조례 등)에 의한 기관장 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교육발전위원회 등

출처 및 관련법	해당 내용
	<p>(구성) 교육장,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장(경찰서, 소방서 등), 상공인단체장, 교장협의회장, 진로교사협의회장, 학부모협의회장 등</p> <p>(역할)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활동,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운영의 인식 공유와 의사결정</p> <p>(운영) 법적 근거에 의한 기관장 협의회 또는 교육 관련 협의체의 정례적 협의회(연 1~4회)를 통해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 관련한 안건을 논의 아젠다로 상정</p> <p>※ 안건 상정 관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담당자 지정 및 지역사회 체험처 발굴 지원 -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 및 예산 지원 -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및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활동 현황 점검 등
	<p>○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p> <p>(성격) 기관장 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기관별 실무담당자로 구성</p> <p>(구성) 교육지원청 장학사, 기초지자체 담당자, 학부모 진로코치, 진로교사, 퇴직 교사, 청소년 관관센터, 지역사회 인사 등 10~20명으로 구성</p> <p>(실태)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세종포함)에서 177개 지원단 구성(15.6기준)</p> <p>(활동) 반기별 1~2회의 정례적 협의를 갖고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p> <p>※ 담당 장학사는 매년 3월 지원단의 새로운 구성원(인사이동 등) 및 지난해 활동 내용을 점검하여 시도 교육청에 보고</p>
<p>청소년기본법²⁹⁾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p>	<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여성가족부장관이 제 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청소년활동진흥법³⁰⁾ (관계기관의 협조, 학교와의 협력 등)</p>	<p>○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 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다.</p> <p>○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지자체 자치법규³¹⁾ (교육행정협의회, 교육발전위원회)</p>	<p>○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조례 제 4815호, 2014.12.31.] -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조례 제 5116호, 2015.2.25.] <p>○ 교육발전위원회 조례(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 1063호, 2014.10.15.] - (울릉군)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 1624호, 2009.6.11.]

25) 진로교육법 (2015. 6.22. 제정, 법률 제 1333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6. 8. 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2742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7) 진로교육법 시행령 (2015.12.22. 제정, 대통령령 제2672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8)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2015년 지역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용 매뉴얼. pp.10-13.
 29) 청소년기본법 (2016. 3. 2. 일부개정, 법률 제1406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0)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6. 5. 29. 일부개정, 법률 제1423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1)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통합검색, '교육행정협의회', '교육발전위원회' 검색후 자치법규 확인.

추진 체계	현황 및 문제점(원인)	문제점 원인 해결 및 지원사항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자유학기제 협의체 운영 관련 법·제도적 근거를 살펴보면, 진로교육법(2015)에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진로체험 지원, 진로체험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청소년기본법(2016)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③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에 학생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해 교육부, 지자체,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할수있음.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해당 지역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진로교육법(2015)에 이미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실무협약이 아니라, 광범위한 구성원들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한 협의체로서 실질적인 협의내용을 운영하는 현장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②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시설 사전실무협약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공문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③ 협의할 구체적인 실무 안건을 가진 현장 차원의 실무협의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함. 내용없이 참가하는 명목상 협의체보다는 성과를 가져오는 현장의 사전실무협약의 중요성이 대두됨.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진로교육법(2015)에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이는 운영예산 근거가 됨.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이는 운영예산 근거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위 학교와 청소년시설 실무담당자의 만남으로 인한 회의비, 다과비 식사비, 교통비 등 사전실무협약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함. ② 진로교육법(2015)의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 등 관련 조항에 단위학교 차원의 사전실무협약을 촉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를 만들.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청소년기본법(2016)에 국가 및 지자체의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②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에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 구축. ③ 지자체 자치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의 교육행정협의회, 교육발전위원회 등 설치·운영이 명시되어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주위의 청소년시설 기능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전실무협약을 권고사항으로 하는 공문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함 ②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설평가 지표에서 기관 차원에서 주최하는 사전실무협약 개최의 반영실적을 평가지표로 제시하여 형식적인 협의 개최를 지양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지원함.

2) 학생 수요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제공

[영역 2] 학생수요에 기반한 자율참여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제공방안

: 기관별로 1년 전에 준비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에 기반하여 자율참여를 촉진하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추진
방안

과제1) 사전에 준비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에 기반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자율참여 증진

(1년 전에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를 실시하여 학생 자율참여를 촉진하는 지원방안/ 학생 자율참여 촉진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실시 지원방안)

- (1) 1년 전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하도록 지원한다.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내용을 청소년시설에서 파악한다(3월경 실시)
- (2)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별로 학생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배포하여 공유한다. 지도사와 교사 관련자들의 설문지문항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예산을 확보한다.)
- (3) 개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간에 몰려있는 체험일정을 분산하여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 (4) 대규모(학년 단위)에서 소규모(학급별, 소모임 단위)로 실시할 수 있게 지원한다.
- (5)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수단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학년단위는 이동상의 어려움을 동반하며, 다양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전세버스를 활용하거나, 청소년 수련관의 버스운영지원, 시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체험지원 버스운영 등이 요구된다.
- (6)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단기부터 중장기 “프로그램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다.

과제2)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정부 공모사업의 확대

- (1)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주제와 공고시기 등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사업에 맞게 추진한다. 정부 공모사업은 주제별로 영역이 정해져있어 한계가 있는데, 자유학기제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을 하면 특정한 주제에 국한 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 (2)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공모사업의 공고와 확정시기, 예산지원 시기를 사업 운영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한다(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공모사업의 공고와 확정 등 행정절차를 연말로 조정하여 추진한다. 공모사업을 현행 2월에 공고가 나서 3월에 확정되는 행정절차를 수정하여, 11월에 공고가 나서 12월에 확정해주어야 차년도 자유학기 연계운명을 추진할 수 있다).

과제3) 공공 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명목의 사업비 지원

- (1) 자유학기제 연계운명을 하는 공공 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명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정책적으로 자유학기 연계운명을 명시한 만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 연계운영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책
방안
제
IV
장

○ 문제현상

첫째,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의 영역을 진로체험으로 한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2014-2015 자유학기 운영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연계 운영내용을 보면, 진로체험 프로그램 뿐 아니라, 문화예술체육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특성을 이해하고 자유학기 활동의 영역이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으로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정부 공모사업의 살펴보면, 진로직업체험 분야에 한정하여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학기 활동의 영역이 다양한데도 진로체험을 주제로 한정하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자유학기 주제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둘째, 학생 수요조사를 1년 전에 실시하여 충분히 홍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급하게 하거나 준비되지 못해서 충분한 홍보와 프로그램 제공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공공청소년시관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명목의 사업비 지원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공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활동 운영예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법 체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부에서는 전면 시행을 위해 2016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지원(학교당 평균 20백만원 내외)(교육부, 2015.11.25.)를 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 예산 중 체험활동 예산이 크지않고, 청소년시설에는 체험활동 예산 지원이 없다. 예를들어,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을 살펴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에 필요한 운영예산을 명시함으로써 실행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넷째, 이동수단이 불편하여 학생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개인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학년별 단위에서 소규모 학급별, 소모임 단위로 다양화한다. 학년단위는 이동상의 어려움을 동반함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로 이동하기위해 전세버스를 활용하거나, 청소년수련관의 버스운영지원, 시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체험지원 버스 운영 등이 요구된다.

다섯째, 자유학기제 사업을 위한 예산배분, 집행, 관리 문제점이 있다.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 실행에 있어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며 예산집행 및 정산 과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현장 사례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청소년 시설은 예산규모 및 집행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현재 자유학기제 사업 관련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 지자체와 교육청을

거쳐서 학교로 교부되고 있는 상황이며, 각 학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시설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을 의뢰한다. 향후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현행 예산 집행의 방식을 보완하여 예산 집행과 정산이라는 부수적 활동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 문제원인

첫째, 공공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활동 사업이 활성화되지 어려운 이유는 운영예산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유학기 연계운영이 어려운 이유(1-3 순위 다중응답분석)로 청소년지도사는 체험활동 예산부족을 1순위로 응답하였고, 교사 및 장학사는 체험활동 예산부족을 4순위로 응답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전면 시행을 위해 2016년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지원(학교당 평균 20백만원 내외)(교육부, 2015.11.25.)를 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 예산 중 체험활동 예산이 크지않고, 청소년시설에는 체험활동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을 살펴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에 필요한 운영예산을 명시함으로써 실행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자유학기 연계운영을 명시한 만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 연계운영 사업비를 지원한다.

둘째, 선호하는 체험일정이 시험기간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의 다른 학기는 물론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연계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수립이 필요하다(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외, 2014).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체험활동도 자유학기제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기, 학년 및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학기 뿐 만아니라 이후에도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진로학기제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외, 20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6).

셋째, 학생 수요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 요구조사를 1년 전에 실시하고 충분히 홍보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사전준비를 할수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의 공고 및 확정, 운영, 평가보고가 학교교육과정과 지역청소년시설의 사업시작과 마무리 시기를 맞추지않고, 주제 역시 진로체험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운영결과보고서(2014-2015) 등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 연계 사례분석 결과(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경우 진로체험이 아니더라도 예술·체육이나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주제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책마련 및 추진방안

본 연구의 조사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사전에 준비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에 기반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자율참여 증진, 둘째,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정부 공모사업의 확대, 셋째, 공공 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명목의 예산 지원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에 준비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자율참여 증진방안 (한 학기 전에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를 실시하여 학생 자율참여를 촉진하는 지원방안/ 학생 자율참여 촉진을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실시 지원방안)

- ①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를 1년 전에 실시한다.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내용을 청소년시설에서 파악한다(3월경 실시).
- ②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학교-시설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③ 개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간에 몰려있는 체험일정을 분산하여 실시할 수 있게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 ④ 대규모 학년별 단위에서 소규모 학급별, 소모임 단위로 실시한다.
- ⑤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수단을 지역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 ⑥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단기부터 중장기 “프로그램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다.

(2)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정부 공모사업의 확대방안

- ①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주제와 공고시기 등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사업에 맞게 추진한다. 정부 공모사업은 주제별로 영역이 정해져있어 한계가 있는데, 자유학기제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을 하면 특정한 주제에 국한 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공모사업의 공고와 확정 등 행정절차를 연말로 조정하여 추진한다. 공모사업을 현행 2월에 공고가 나서 3월에 확정되는 행정절차를 수정하여, 11월에 공고가 나서 12월에 확정해 주어야 차년도 자유학기 연계운영을 추진할 수 있다.

(3) 공공 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명목의 사업비 지원방안

- ① 자유학기제 연계운업을 하는 공공 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명목의 운영예산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정책적으로 자유학기 연계운업을 명시한 만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소년기관에 자유학기 연계운영 사업비를 지원한다.

(4) 추진 활용 Tip

표 IV-5 <예시> 청소년(수련)시설³²⁾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방식

구분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안)
참여대상	• 한 학급, 2-3학급, 한 학년, 5-10명, 인원수에 구애 받지 않음.
활동기간 (진행횟수)	• 자유학기 한 학기(13차시부터 16차시), 일일체험, 맛보기체험, 4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함
프로그램	• 다양한 프로그램(진로체험, 디자인, 뮤지컬, 목공, 도예, 난타, 바리스타 등)
활동장소	• 교실, 수련관, 학교, 지역 체험처, 야외 등
사업과 예산확보	•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기관이라 1년 전에 연간 사업계획 운영을 세울 때 반영이 되어야 자유학기 프로그램 연계사업 일정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갑자기 문의하면 1회성 프로그램이나 상시 프로그램에 소규모 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학교에서 접근방식	• 학교 근처에 위치한 수련관과 문화의집에 문의하여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지속적 프로그램은 1년 전에 협의 필요)
자유학기 운영방식	•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므로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인원과 참여대상 등 자유학기 운영방식이 확정될 수 있음
청소년수련시설 특성고려	• 지역, 시설, 학교, 학생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협의 및 선택
지속적인 자유학기 연계과정 프로그램	• 중학교 자유학기 한 학기 이후 연계과정으로 2-3학년 자율동아리활동 등을 계속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능 • 자유학기 사후 연계과정 대상은 2-3학년(자율동아리활동 등 계속 지원)

출처: 정영근 외 (2015).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방안. p.253.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워크숍자료집으로 발간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가이드북 구안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연구자료. P. 59.

32) 자유학기 연계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의미함.

(5) 법·예산·추진체계 개선방안

표 IV-6 학생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관련 법률 근거

출처 및 관련법		해당 내용
진로 교육법 ³³⁾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진로체험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진로교육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진로 교육법 시행령 ³⁴⁾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함)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제와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 육법 ³⁵⁾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³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나)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라) 자유학기에는 협동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마)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바)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사)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출처 및 관련법		해당 내용
	교육청 수준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³⁷⁾	청소년 방과후활동 종합지원 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방과 후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4. 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1.11.18.]
	청소년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 ³⁸⁾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출처 및 관련법		해당 내용
2015 청소년 백서 ³⁹⁾	청소년 참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 운영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 회의를 통한 청소년관련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운영예산으로 17개 시도에는 매년 10백만원(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시·군·구에는 2백 8십만원(국비 1백 40만원, 지방비 1백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2015.12.31.기준)
	청소년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 운영예산으로 운영위원회별 매년 2백만원(국비 1백만원, 지방비 1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지원하고 있다(2015.12.31.기준)
	청소년 특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해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로써 매년 하나의 정책주제를 선정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해가는 전국 규모의 참여기구이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및 각급 학교(초·중·고·대학교)의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해 우수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전국 1,46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지원하였으며, 동아리 지원금액(천원)은 1,460,000(천원)이며, 국고(40%), 지방비(60%)의 비율로 지원되었다.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4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이다.

33) 진로교육법 (2015. 6.22. 제정, 법률 제 1333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4) 진로교육법 시행령 (2015.12.22. 제정, 대통령령 제2672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5) 초·중등교육법 (2016. 2. 3. 일부개정, 법률 제1394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15.9.23. 전부개정,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15.5.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22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8)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6. 5. 29. 일부개정, 법률 제1423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9) 여성가족부(2015a). 2015 청소년백서. pp.86-115.내용 재정리.

40)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6).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개.

표 IV-7

학생수요에 기반한 자율참여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추진 체계	현황 및 문제점(원인)	문제점 원인 해결 및 지원사항
<p>법·제도</p>	<p>① 진로교육법(2015)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야함.</p> <p>② 초·중등학교 교육과정(2015)에 교육청 수준의 지원으로 첫째,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둘째,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p> <p>③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에서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지역 청소년활동요구를 정기적 조사하고 지역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함/ 지자체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에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조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 교육과 홍보 사업수행을 명시함.</p> <p>④ 청소년기본법 시행령(2015)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계획에 수요조사,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명시함.</p>	<p>① 학생 청소년이라는 같은 대상을 두고 지역별로 각기 목적에 맞는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학교의 교과교육과정 외에도 자유학기 활동 등은 학생의 요구가 중요함으로 학교는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함.</p> <p>② 첫째,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별 청소년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활동시설 및 단체에 배포함. 둘째, 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같은 지역의 같은 대상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조사시기에 차이를 둔다면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음.</p>
<p>예산</p>	<p>①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지원예산이 지자체와 교육청을 거쳐서 학교로 교부되고 있는 상황이며, 각 학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시설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을 의뢰함. 향후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현행 예산 집행의 방식을 보완하여 예산 집행과 정산 등에 소요되는 부수적 업무를 축소하여야함</p> <p>②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방과후아카데미 등에 의무화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p> <p>③ 자유학기 활동 연계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정책화되었음에도 교육부와 여가부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자유학기 사업 지원예산은 전혀 없음.</p>	<p>①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사업을 위한 예산규모, 배분, 집행, 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p> <p>② 자유학기제 사업 관련 예산을 여성가족부에서도 마련하여 이를 각 청소년 시설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예산의 집행 및 정산시기를 학교의 학사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 배분시기를 앞당기고 정산보고시기를 늦추어 현실화하는 방안필요.</p> <p>③ 자유학기 활동 연계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이 되었음으로 교육부와 여가부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자유학기 사업지원, 공모사업 확대 등 예산 배정이 필요함.</p>
<p>추진 주체</p>	<p>①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하여 자유학기 운영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교육연수, 지역연계, 학교의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 연계·협력 지원을 명시함/ 학교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학생 요구/학부모 요구조사를 반영하도록 권고함.</p> <p>②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하여 해당지역 청소년활동요구를 정기적조사하고 지역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함. 지자체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p>	<p>① 교육부, 교육청의 지역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자유학기 사업예산지원, 학교에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개선필요, 공모사업의 개선 및 확대.</p> <p>② 여가부, 지자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자유학기 사업예산지원 및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필요, 공모사업의 개선 및 확대.</p>

3) 지역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

[영역 3] 지역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

첫째, 지역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가 자유학기의 다회기 프로그램을 기획에서 직접적인 학생교육까지 할수있도록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방안
 둘째, 지역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교사 역량개발을 통해 학교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방안

추진 방안	<p>과제1)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및 교육역량 강화</p> <p>(1) 청소년지도사가 자유학기의 다회기 프로그램을 기획에서 직접적인 학생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예산, 시간과 교육기회).</p> <p>(2)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한 강사교육을 실시한다.</p> <p>(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할수있게 교육한다.</p> <p>(4) 청소년지도사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전문분야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p>
	<p>과제2) 교사의 학교 교육과정 개선 및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 방안</p> <p>(1)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실현해 갈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p> <p>(2) 교사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p> <p>(3) 지역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내부의 혁신사항을 지원한다.</p>
	<p>과제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증대</p> <p>(1)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의 인력배치 인원을 증대하기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한다.</p> <p>(2)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를 많이 채용하도록 기관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예산을 지원한다.</p>

○ 문제현상

첫째,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자유학기제 연계가 어려운 이유로 15문항 중에서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5순위), 청소년시설의 학교이해를 위한 교육 부족(8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세 집단별(전체응답자, 청소년지도사, 교사·장학사)로 비교분석한 결과, 연계가 어려운 이유 15문항 중에서 1-8순위까지의 공통적인 요구로는 체험활동 예산, 학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전담인력, 이동수단, 지역 교육력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이상의 공통적인 요구를 포함하면 지원시스템, 학교의 청소년시설 이해를 위한 교육부족, 청소년시설의 학교이해를 위한 교육 부족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야한다는

규정과 청소년수련시설의 법적 청소년지도사의 인력배치 인원 규정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의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제39조에 의하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자(일부 수탁받은자)도 청소년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함, 또한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2015)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수용인원 500명 기준으로 4명을 배치하고,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 당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고 명시되어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의 수련활동의 위탁제한 조항을 보면,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와같이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인증수련활동 지도자배치 규정(여성가족부, 2015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a)을 살펴보면, 실내(30명당 1명), 실외(30명당 1명), 야외(15명당 1명)에 지도자 자격은 해당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 최소 1명이상(운영담당자와 겸임 가능), 참여청소년수가 30명 초과시, 매20명 단위로 지도자 1명씩 추가배치(실내프로그램 제외),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청소년수련관에 현행 500명당 4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청소년문화의집에 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기준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너무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문제원인

첫째, 청소년지도사가 외부강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프로그램 기획에서 수업지도까지 하기 어려운 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법적 인력배치 인원이 너무 적어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 때문이다.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야한다는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서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2015)에 명시된 청소년지도사의 인력 배치 인원을 증대해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을 보면 외부강사의 자격과 프로그램 범위에 제한이 있다. 이와 같이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야함을 알수있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수련활동위탁제한 요건이 충족이 되지못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에 현행 500명당 4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청소년문화의집에 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기준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시간과 인력의 부족을 가져온다.

여성가족부(2015a)의 청소년백서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업무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지도하기보다는, 너무 적은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외부강사에게 위탁하고 운영하는 역할, 지역 코디네이터역할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중요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 예산 등 여건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 이해와 협업을 위한 실무 연수나 교육적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대책마련 및 추진방안

본 연구의 조사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하여 수업운영지도안 작성 등 교육역량 강화, 둘째, 학교 교사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증대로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및 교육역량 강화 방안
 - ① 지역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가 자유학기의 다회기 프로그램을 기획에서 직접적인 학생교육까지 할수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지도사들이 역량을 강화할 시간과 예산, 교육기회 등 여건을 마련해준다. (청소년지도사의 티칭 교육역량강화에 기여한다, 계획서를 쓰는 것에 한정되지않고 가르치거나 전수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지원한다, 현재 시간 없고 여력도 없고 의무 아니다.)
 - ②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한 강사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시설에서 내외부 강사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강사교육을 실시한다.
 - ③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할 수 있게 교육한다.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에게 역량강화 기회를

주어 내부강사로 확보한다

- ④ 청소년지도사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전문분야의 학습을 지원하여 청소년지도사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

(2) 교사의 학교 교육과정 개선 및 지역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 방안

- 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실현해 갈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 본 연구의 현장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제시하듯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주제와 실행방법을 교육과정 실행과 연결하여 모색해야한다. 이를 위한 핵심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가 핵심 대상이며 주체가 된다.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일회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교수학습 측면에서 계획하고 관리해야하는 사항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기 위한 진로학습경험이 될 수 있다.
- ② 교사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지역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내부의 혁신사항을 지원한다

(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 증대방안

- ① 청소년지도사의 인력배치 인원을 증대하기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한다.
- ②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를 많이 채용하도록 기관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4) 법·예산·추진체계 개선방안

표 IV-8 청소년지도사 인력과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제한 관련 법률 근거자료

출처 및 관련법		해당 내용
청소년 활동진흥법 ⁴¹⁾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및 관련법		해당 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⁴²⁾	위탁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의8(위탁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프로그램”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⁴³⁾	청소년 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규제 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2.3.>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3.24.]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⁴⁴⁾	청소년 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18.]
	청소년 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의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 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8.]

출처 및 관련법	해당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지도사 배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 청소년수련원: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유스호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천 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 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지도사 보수교육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진로 교육법 시행령⁴⁶⁾</p> <p style="text-align: center;">진로전담 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 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야 한다.

출처 및 관련법		해당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⁴⁷⁾	학급 담당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신설 2013.2.1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⁴⁸⁾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 사서교사(1급), 보건교사(1급), 영양교사(1급), 수석교사, 교감 및 원감: 15일 이상(기간)/ 90시간 이상(이수시간) ○ 교장 및 원장: 25일 이상(기간)/ 180시간 이상(이수시간)

41)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6. 5. 29. 일부개정, 법률 제1423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2)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2016. 9. 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9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3) 청소년기본법 (2016. 3. 2. 일부개정, 법률 제1406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4)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15.5.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22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5)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15.10.22.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제7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6) 진로교육법 시행령 (2015.12.22. 제정, 대통령령 제2672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6. 8. 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2742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013. 7.15.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6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추진 체계	현황 및 문제점(원인)	문제점 원인 해결 및 지원사항
<p>법·제도</p>	<p>①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2016)의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제39조에 의하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자(일부 수탁받은자)도 청소년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함. 또한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p> <p>② 현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2015)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수용인원 500명 기준으로 4명을 배치하고,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 당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p> <p>=> 현재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야한다는 규정과 청소년수련시설의 법적 청소년지도사의 인력 배치 인원 규정은 상충됨.</p>	<p>①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을 보면 외부강사의 자격과 프로그램 범위에 제한이 있음. 이와같이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야 함을 알수있음. 또한 이는 청소년수련활동인 증제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수련활동위탁제한 요건이 충족이 되지못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p> <p>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에 현행 500명당 4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청소년문화의 집에 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기준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인력 부족을 낳게 되고 이는 인력 증대로 해결해야함.</p> <p>=>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해야한다는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인력배치 인원을 증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p> <p>=> 지역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및 교육역량 강화,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증대 방안이 필요함.</p>
<p>예산</p>	<p>① 현재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201)에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으로 명시됨.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함.</p> <p>=> 청소년지도사 교육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 및 연수기회가 너무 적음. 이는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양하여 청소년 지도 및 교육역량을 강화할 여건 및 시간, 인식도 부족함.</p>	<p>① 교육훈련기간에 필요한 보조인력예산, 교육비 전문연수, 직무연수, 출장비, 재료비, 도서비, 교육특근비, 학습동아리지원비를 지원함</p> <p>② 청소년지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연수나 교육훈련 비용과 시간 지원이 필요함.</p> <p>③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p>
<p>추진 주제</p>	<p>① 현재 교육부는 다양한 교사연수 및 교과별 학습동아리 등 교사들이 교재 및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인정하여 출장비, 교재비, 학습동아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p> <p>② 현재 청소년지도사는 자격연수와 보수연수 외에는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수업지도안 작성 등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시간 및 여건마련이 부족함.</p>	<p>①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교사연수에 지역사회이해와 협력이라는 주제의 강의개설 등으로 교사대상 연수뿐만아니라 청소년지도사 대상의 학교행정 및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 등 지원.</p> <p>②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설평가 지표에서 청소년지도사 교육역량 강화 제공의 반영실적을 평가지표로 제시하여 실효성을 지원함(교육훈련학습 결과보고 및 결과반영 실적).</p> <p>③ 교육부/여가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지속적으로 연계운영하는 공공청소년시설에 교육훈련비를 제공하고 결과보고를 받거나, 교육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p>

3. 추진 로드맵

표 IV-10 본 연구결과 추진 로드맵 (지역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정책방안)

정책영역	정책과제 ⁴⁹⁾	추진방안 ⁵⁰⁾	추진단계 ⁵¹⁾	추진체계 ⁵²⁾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 활동 사전협력체계 구축	1. 자체지원분석 및 사전실무협의	1) 학교-시설 주위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정보제공하면서 사전실무협의를 권고사항으로 하는 공문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단기과제 (1-2년)	주)교육부 여가부 보)지자체
		2) 학교-지역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실무협의를 위한 연수를 개최한다. 협의할 구체적인 실무 안건을 가진 현장 차원의 실무협의방안을 안내하고 제공한다.		
		3) 사전실무협의를 실행하여 반영한 실적을 학교평가 지표/청소년시설 평가지표에 제시한다.		
		4) 단위 학교와 청소년시설 실무담당자의 만남으로 회의비, 다과비, 식사비, 교통비, 사전실무협의를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5) 진로교육법의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 등 관련 조항에 단위학교 차원의 사전실무협의를 촉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를 만든다.		
		6)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설평가 지표에서 기관 차원에서 주최하는 사전실무협의 개최의 반영실적을 평가지표로 제공한다.		
	2. 실행실무협의	1) 단위 학교와 단위 시설 차원의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설 등의 이해를 위한 교사 교육을 실시한다.	단기과제 (1-2년)	주)여가부 교육부 보)지자체
		2) 교사와 청소년시설 간의 자유학기 활동 연계를 위한 상호 실행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3)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자유학기 연계 당시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한다.		
	3. 담당자 사전교육	1) 학교-지역 상호 이해교육(학교/청소년시설의 행정과 프로그램 특성 등) 연수 등을 실시한다.	단기과제 (1-2년)	주)여가부 교육부 보)지자체
		2) 기관 자체에서 학교-지역 연계운영 실무체크리스트 양식 등을 활용하여 실무역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3) 자유학기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활동기록 및 과정평가 방법을 교육한다.		
		4)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활용방안을 교육한다.		
		5) 향후 총괄평가 내용 및 차년도 연계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한다.		
		6)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가이드북을 개발 및 보급한다.		

정책영역	정책과제 ⁴⁹⁾	추진방안 ⁵⁰⁾	추진단계 ⁵¹⁾	추진체계 ⁵²⁾
학생 수요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제공	4. 사전 수요조사와 홍보로 자율참여 증진	1)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수요조사와 홍보를 1년 전에 실시한다.	단기과제 (1-2년) 중기과제 (3-4년)	주)교육부, 여가부 보)지자체
		2)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학교-시설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3) 개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간에 몰려있는 체험일정을 분산하여 실시할 수 있게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4) 대규모(학년 단위)에서 소규모(학급별, 소모임 단위)로 실시할 수 있게 지원한다.		
		5)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수단을 지역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6)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단기부터 중장기 “프로그램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다.		
	5. 정부공모사업 조정 및 확대	1)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주제와 공고시기 등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사업에 맞게 추진한다.	단기과제 (1-2년)	주)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2)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공모사업의 공고와 확정시기, 예산지원 시기를 사업운영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한다.		
	6. 공공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활동 사업비 지원	1) 공공 청소년시설에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명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역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와 학교의 교사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	7. 청소년지도사를 내부강사로 확보 및 교육역량 강화	1) 청소년지도사가 자유학기의 다회기 프로그램을 기획에서 직접적인 학생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예산, 시간과 교육기회).	단기과제 (1-2년) 중기과제 (3-4년)	주)여가부 교육부, 보)지자체
		2)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한 강사교육을 실시한다.		
		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할수있게 교육한다.		
		4) 청소년지도사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전문분야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8. 교사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 방안	1) 교사의 지역사회 이해와 관계형성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단기과제 (1-2년)	주)교육부 여가부 협)지자체
		2) 지역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내부의 혁신사항을 지원한다.		
9.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 인원증대	1)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의 인력배치 인원을 증대하기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한다.	중기과제 (3-4년)	주)여가부 지자체 보)교육부	
	2)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를 많이 채용하도록 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49) 정책과제는 정책영역과 우선순위로 도출된 정책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협의를 통해 제시하였음

50) 정책 추진방안은 심층면담 및 전문가집단 설문조사결과 중요도 우선순위(1-5순위)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음.

51) 추진단계는 대부분 단기과제(1-2년), 중기과제(3-4년)로 나타났음.

52) 추진체계는 정책이나 사업 주관부처, 연계부처, 지자체를 주관부서(주), 보조부서(보), 협조부서(협)로 명시하였음.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김기현, 김형주 (2015).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15-11.
- 김승보, 장주희, 장현진, 김기현 (2014).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위정, 임지선, 임병호(2015).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방안.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우석, 정철영, 이종범, 이순옥 (2014).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및 지역인프라 연계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경인교육대학교..
- 성은모 (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 최창욱 (2011).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자원연계 코디네이팅 연수 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부백서. 서울: 안전행정부.
- 여성가족부 (2015a).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b).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c).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I), (II)-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d). 청소년수련시설현황(2015.12.31.).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a). 2016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b). 2016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공고(제14호).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c). 2016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선정결과 안내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d). 청소년(수련)시설 내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내부자료 2016.2.15.). 미간행물.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매뉴얼 개발. 청소년정책리포트 제5호.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지연 (2013).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진로탐색 중심 접근.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지연 (2014). 지역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현황과 과제 토론문. 제39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진로 직업체험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과제와 전망, 75-78.
- 임지연 (2015). 자유학기제의 청소년시설 연계활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워크숍 자료집: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가이드북 구안, 55-62.
-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지역 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현진, 이지연, 윤수린, 이운진(2014).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세미나 자료집: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189-239.
- 장현진, 정윤경, 김나라, 임건주(2014). 자유학기제 학생체험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영근, 김진숙, 이근호(2014).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세미나 자료집: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189-239.
- 정영근, 민용성, 변희현, 김용명, 설현수, 임지연, 장현진 (2015).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이상은, 김은영 (2014).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매뉴얼. 세종: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이상은, 고장완, 김경숙, 김기현 (2015).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Ⅲ):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이상은, 김은영, 신철균, 황은희, 김기현, 김병찬, 김재철, 성열관, 오세희, 윤미선, 이원석(2015).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방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창욱, 송병국, 김혁진 (200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가이드북 구안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인터넷 자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2013. 7.15.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66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대통령령/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24662,20130715\)](http://www.law.go.kr/대통령령/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24662,20130715))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 교육부 (2013.05.29.).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발표 보도자료를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list.do?bbsId=294> 에서 2016년 5월 19일 인출.
- 교육부 (2015.11.2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확정 보도자료.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list.do?bbsId=294>에서 2016년 5월 19일 인출.
- 교육부 (2015.9.2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보도자료를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list.do?bbsId=294> 에서 2016년 5월 19일 인출.
- 교육부 (2016.03.31).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보도자료를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list.do?bbsId=294> 에서 2016년 5월 19일 인출.
- 교육부 (2016.04.05).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질의응답 보도자료.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list.do?bbsId=294>에서 2016년 5월 19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사이트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http://www.ggoomggi.go.kr/>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꿈길 사이트의 2015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매뉴얼 www.ggoomgil.go.kr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2014.11.12). 유치중등 학교급별 개황.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4. 11. 12에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교육 행정협의회, 교육발전위원회 검색 후 자치법규 확인. 2016년 10월 19일 인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개 웹사이트 <http://www.youth.go.kr/yaca/about/about.do>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 진로교육법 (2015. 6.22. 제정, 법률 제 1333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진로교육법/\(13336,20150622\)](http://www.law.go.kr/법령/진로교육법/(13336,20150622))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 진로교육법 시행령 (2015.12.22. 제정, 대통령령 제2672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대통령령/진로교육법시행령/\(26727,20151222\)](http://www.law.go.kr/대통령령/진로교육법시행령/(26727,20151222))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 청소년기본법 (2016. 3. 2. 일부개정, 법률 제1406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14066,20160302\)](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14066,20160302))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15.10.22.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제7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여성가족부령/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79,20151022\)](http://www.law.go.kr/여성가족부령/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79,20151022))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15.5.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22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대통령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26223,20150501\)](http://www.law.go.kr/대통령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26223,20150501))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2016).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추진경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yap.youth.go.kr/yap/index.do>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6. 5. 29. 일부개정, 법률 제1423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14238,20160529\)](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14238,20160529))에서 2016년 7월 14일 인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2016. 9. 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9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여성가족부령/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99,20160902\)](http://www.law.go.kr/여성가족부령/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99,20160902))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 초·중등교육법 (2016. 2. 3. 일부개정, 법률 제1394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13943,20160203\)](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13943,20160203))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16. 8. 4.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 10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교육부령/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104,20160804\)](http://www.law.go.kr/교육부령/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104,20160804))에서 2016년 10월 27일 인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6. 8. 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2742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27425,20160802\)](http://www.law.go.kr/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27425,20160802))에서 2016년 10월 27일 인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15.9.23. 전부개정,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교육부고시/초·중등학교교육과정/\(2015-74,20150923\)](http://www.law.go.kr/교육부고시/초·중등학교교육과정/(2015-74,20150923))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a).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웹사이트 <https://www.kywa.or.kr/>에서 2016. 10.25일 인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b).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웹사이트 <https://www.kywa.or.kr/>에서 2016.10.25일 인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c).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웹사이트 <https://www.kywa.or.kr/>에서 2016.10.25일 인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 (201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현황(2014.3.17.).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 록

- [부록 1] 현장 사례조사지: 청소년지도사 및 교사
- [부록 2] 면담조사지: 청소년지도사용/교사용
- [부록 3] 설문조사지: 청소년지도사/교사장학사

[부 록]

[부록 1] 현장 사례조사지 : 청소년지도사 및 교사(연계운영 경험자)

[현장 사례 조사지]

※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2016)

사례발표의 내용은 연계프로그램 소개가 아니라, 운영경험입니다.

- (1) 운영사례의 특성을 중심으로(예를 들어 공모사업, 진로직업체험센터, 자체사업, 학교에서의 접근방법으로 의 운영특성 등) (2) 주요 연계활동 및 실행과정 경험을 중심으로 (3) 단답식 답변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자유학기 연계 운영사례 소개

※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사업개요

본문.....

2. 다음 질문에 대한 가능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지역사회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연계목표 및 연계이유

본문.....

2) 연계 운영의 주체 및 담당자는 누구인가?

본문.....

3) 학교(지역기관)와 처음에 어떻게 연결하게 되었나요?(연결계기, 연결방식 등)

본문.....

4) 주요 연계 활동 운영 장소(장소선정 및 섭외과정 등)

본문.....

5) 주요 연계내용 및 연계방법, 경험적 노하우

본문.....

6) 연계 운영을 위한 사전 요구분석을 위해 수행한 활동

본문.....

7) 연계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실행 준비 활동

본문.....

8) 연계 운영방식의 실제 운영 과정

본문.....

9) 연계 운영 후 결과 평가를 위한 활동

본문.....

10) 연계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 담당자의 활동 또는 역할

본문.....

11) 연계 운영과 관련한 참여 청소년 활동/역할

본문.....

12) 연계 운영과 관련한 참여 청소년의 부모(양육자) 활동/역할

본문.....

13) 연계 운영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지역사회 특성(환경, 문화 등)

본문.....

14) 연계 운영방식 유형에 따른 장·단점과 성공요인

본문.....

15) 연계운영 방식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본문.....

16) 기타 및 소감

본문.....

[부록 2] 면담 조사지 : 청소년지도사용/교사용(연계운영 경험자)

[면담 조사지]

■ 기획 준비단계

1. 자원분석 및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실무협의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 학교와 실무협의 운영 ○ 지역기관들과 실무협의 운영 ○ 연계운영방식 결정
 - 기관별 사업계획에 반영 및 예산확보
2. 자유학기 프로그램 실행준비 실무협의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 학교 및 수련관 담당자의 업무협의 ○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 진행일정 협의 및 결정
3. 학생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결정 과약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 학생 설명회 및 학부모 안내 ○ 학생 수요 및 학부모 수요 파악
 -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결정 ○ 프로그램별 학생 편성
4. 자유학기 활동 연계운영계획 확정 및 확인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 학교의 자유학기 운영계획 수립 ○ 청소년수련관의 자유학기 연계 운영계획 수립
5. 자유학기 활동 연계운영 담당자 연수 및 사전교육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 사전교육 내용, 실행체크리스트 양식
6. 강사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도안/수업지도안 작성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 진행 강사 확보 및 진행내용 협의(시설) ○ 프로그램 운영지도안/수업지도안 작성(시설)

■ 실행 단계

7. 지역연계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8. 학생 프로그램 배정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9. 지역연계 자유학기 활동 운영 및 관리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 강사관리, 프로그램 진행관리, 학습교보재 관리, 참가학생관리, 진행기록관리
10. 학생 만족도 조사 및 중간평가 실시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회의 운영

■ 평가 (정리)

11. 운영 성과관리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 발표회, 전시회, 축제, 자료집 제작 등
12. 활동기록관리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 사업결과보고서
13. 향후 연계방안 모색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 차년도 연계사업 운영방안 협의, 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사업계획 반영

[부록 3] 설문 조사지 : 청소년지도사/교사·장학사(연계운영 경험자)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전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ID —

2016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 조사

[지역학교 연계담당- 청소년지도사교사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
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
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
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운영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활동(주제선택활
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에 따른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등)과 학교 간의 자유학기제 연계운영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의 기관명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활용됨으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 8. .

조사주관기관 담당 연구자: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지연 연구위원	조사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2226) LJY522@nypi.re.kr
-------------------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http://www.nypi.re.kr>

I. 청소년시설/학교에서의 [연계 실행방안 23문항] “현재 실천도”와 “중요도”에 관한 본인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실천도					청소년시설-학교 간 자유학기제 연계 실행방안	중요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1)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결정 내용을 청소년시설에서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가 내부강사로서 수업운영지도안을 직접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가 작성한 수업운영지도안 개요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교사와 청소년시설 간 역할분담을 위한 실행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자유학기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별 평가 및 기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종괄평가 및 향후 연계방안 모색을 위하여 차년도 연계사업을 협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에게 역량강화 기회를 주어 내부강사로 확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활동 수업지도를 위한 외부강사를 확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학교에서 개최하는 자유학기제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를 청소년시설에서도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와 청소년시설이 자유학기 연계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함께 확정·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청소년시설의 기존 프로그램 내용과 연계 운영방식에 대한 핵심 논의사항을 학교와 협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청소년시설에서 외부 강사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강사교육을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청소년시설 자체에서 학교 연계가 가능한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 방식을 준비한다(무료, 유료, 한 학기, 일회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참가 학생 관리를 한다(출석체크, 안전지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청소년시설과 학교가 사전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상호 사업계획에 반영한다(예시: 전년도 11월 사전실무협의, 2월 사업확정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진행 기록 관리를 통해서 전시, 발표, 자료집 제작 등 결과물을 산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실행실무협의를 통해 당해 연도 자유학기활동 내용 및 세부 진행일정을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학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형태, 시수, 프로그램, 예산 등 핵심 논의사항을 협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9) 청소년시설과 학교의 자체 자원분석(예산, 인력, 기관장 의지)를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0) 연계 담당자를 위한 사전교육(학교/청소년시설의 행정과 프로그램 특성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 학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별 학생 배정 내용을 청소년시설에서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2)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3) 청소년지도사와 교사가 학생교육 피드백을 위한 중간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 [연계 실행방안 23문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5순위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Abstract

A Study on Implementing Plans on Youth Activities of school-local community collaboration through Free Semester System

It is imperative to link youth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free semester system. The linkage of youth activities with the free semester system means that youth programs that include more than eight sessions are held in terms of the free semester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feasible plans of the free semester system that is linked with youth activit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oes not only examine some pivotal factors that facilitate interlocking youth activities within the free semester system, but also suggest the system in which youth-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can play meaningful roles. Youth activities means practices of youth-relate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such as Youth Centers, Youth Training Centers, and Youth Cultural Centers. Youth activities in this study are practice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existing studies in the sense that it suggests policies at the institution level from the youth centers' perspective.

In order to attain this study's goal, a couple of methods for collecting different types of data are used: Literature review, experts' consultations, case study, workshops,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Particularly, based on four types of implementation such as implementing by a youth career training center, implementing as youth center's projects, implementing as regular programs, and implementing by schools, eight cases have been gathered and focused group interviews(FGIs) were conducted for four times. In the meantime, survey with 85 experts was conducted to analyze problems and issues.

Findings from FGIs and survey have been used to develop policies that enhance the linkage.

Study findings addressed issues to be improved such as problems, implementation, tips, law, budget, and systems. Nine policies have been categorized as three domains: examining resources and conducting working-level talks at each institution level, developing opportunities for discussion for the free semester program, training people in charge, encouraging students 'participation based on needs, expanding government projects, funding for programs of public youth centers, training youth leaders as instructors, developing school teacher § capacity to manage relationship between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youth leaders in the field and arranging them in institution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road map for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Ⅱ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Ⅰ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종·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윤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연구 협력진 ◆

- 권 부 남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 권 성 진 (세종시교육청)
- 금 길 호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 김 기 흥 (마천청소년수련관)
- 김 연 희 (사당중학교)
- 김 정 숙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 김 정 주 (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 김 지 수 (인생나자 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 김 지 숙 (남동청소년문화의집)
- 박 기 윤 (경기매송중학교)
- 박 선 숙 (전)흥은청소년문화의집)
- 박 찬 열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 배 한 수 (해운대청소년수련관)
- 백 수 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 신 문 선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 유 평 준 (사북중학교)
- 이 두 호 (사북청소년장학센터)
- 이 승 순 (부평동중학교)
- 지 명 근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 한 송 희 (광산구청소년수련관)
- 허 은 숙 (본오중학교)
- 황 은 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17-2 93330



연구보고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172

ISBN 979-11-5654-117-2